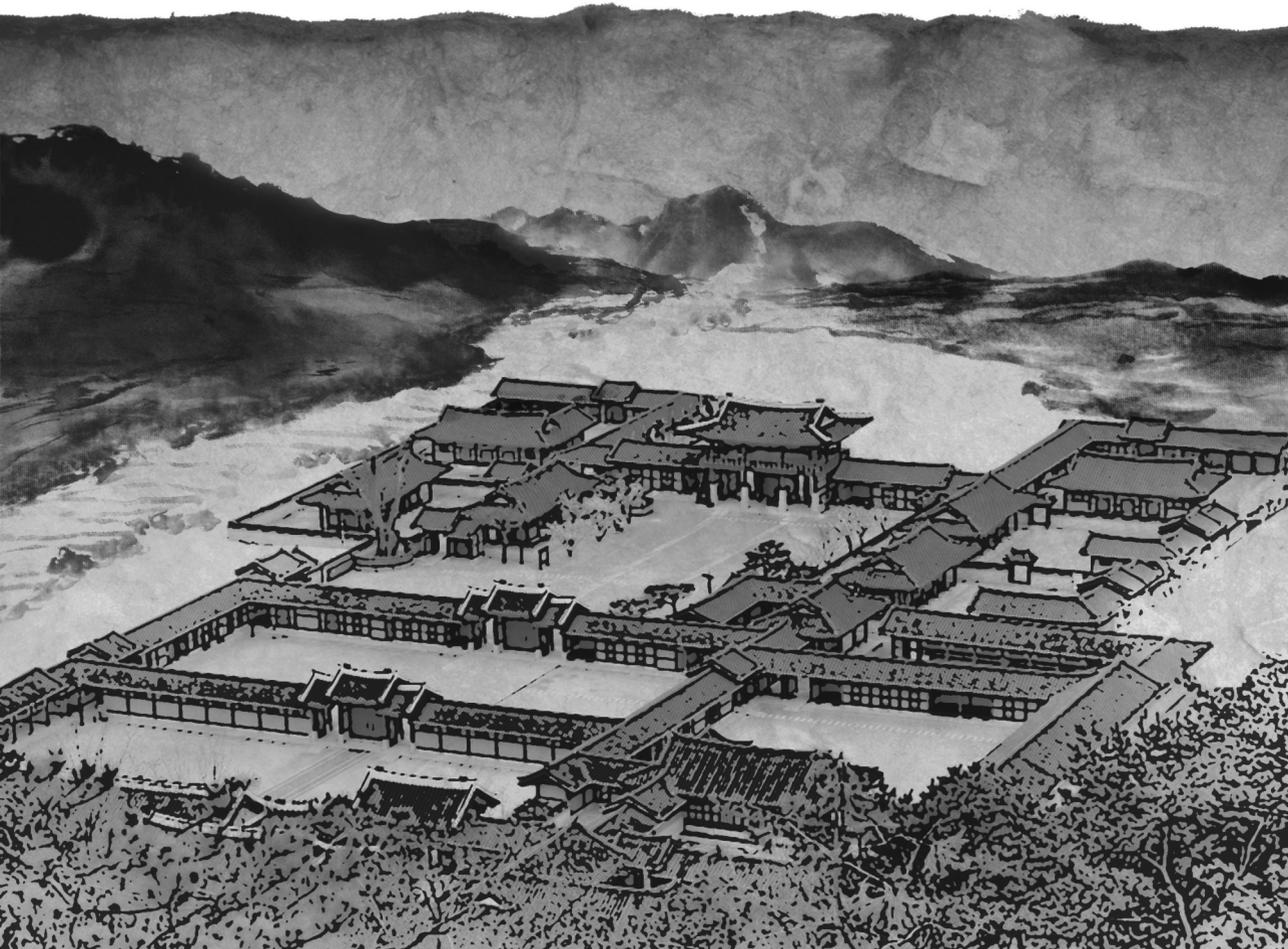


2012 水原學研究所

第9號

水原學研究



水原文化院 附設 水原學研究所

눈덮인 수원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수원학연구소장을 맡으며 수원시민들에게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좀 더 관심 갖게 하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수원학연구소는 수원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영욱 수원학연구소장

먼저, 9회를 맞은 수원학연구소 정기학술세미나는 작년 수원 화성행궁의 역사에서 복원·활용에 이르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다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서수원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처음 시도된 학술토론회 ‘정조 우리시대 멘토인가?’는 지금까지 수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정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 의미있는 토론회로 우리시대 멘토로서의 정조를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수원의 역사·인물·이야기 등 수원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교양서 『알수록 재미있는 수원이야기』를 발간해 시민들이 몰랐던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수원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논문집 『수원학연구』를 통해 수원과 수원학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호는 발표논문으로 정기학술 세미나 ‘서수원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를 비롯해 과거 수원 산업의 중심지였던 선경SK 부지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원시 전체의 균등한 문화 발전을 위한 4편의 논문과 함께 일반논문으로 수원의 인물 박승극, 수원의 민요를 연구한 논문 2편, 학술토론회 ‘정조 우리시대 멘토인가’의 토론문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의 우수한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수원문화의 발전과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장을 마련하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학연구』 9호가 수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염상덕 수원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강진갑 연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님, 그리고 원고 집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사

수원의 문화발전과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1년간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 『수원학연구』 9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염상덕_수원문화원장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기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사료총서』 및 『수원학연구』의 발간 등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원학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로 아홉돌을 맞은 수원학연구소는 그동안 수원학 연구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시대, 더 큰 도약을 향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존 정기학술세미나 외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조의 도시 수원에서 정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알수록 재미있는 수원이야기』의 발간으로 수원의 역사·문화·인물 등 수원 곳곳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엮어내 수원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수원학연구소는 수원학을 통해서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수원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에 수원학연구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의 발전이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가꿔나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들을 통해 수원학연구소의 위상을 떨치길
바라며, 수원의 문화발전과 수원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수원학연구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수원학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욱 수원학연구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학연구』 9호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위원님들과 집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발표논문 .. 서수원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 수원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과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발전적 활용방안 _강식 3
- 산업유산 선경직물 수원공장 활용 방안 연구
'문화 +경제' 복합 공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_강진갑 31
- 도시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활용방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중심으로 _정다미 51
- 수원시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재구성 방안 연구 _배봉균 .. 75

일반논문 ..

- 박승극의 생애와 소설 _우대식 113
- 수원의 민요 _홍은상(석분) 135

토론문 .. 정조, 우리시대 멘토인가?

- 정조의 능행과 위민정치 _김문식 179
- 정조의 위민정책과 화성건설 _김준혁 187
- 정조와 대보단: 정조는 개혁군주였나? _계승범 199
- 우리 시대 정조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_김기봉 225

발표논문
...

서수원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 수원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과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발전적 활용방안 _강 식
- 산업유산 선경직물 수원공장 활용 방안 연구
‘문화 +경제’ 복합 공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_강진갑
- 도시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활용방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중심으로 _정다미
- 수원시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재구성 방안 연구 _배봉균

수원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과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발전적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부 연구위원

강 식

- I. 서론
- II. 부지여건 및 현황
- III. 부지의 기능 및 역할 전망
- IV. 결론 : 부지 활용방안

I. 서론

□ 배경 및 목적

-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도유지)와 서울대 농생대(국유지) 부지 교환 추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검토 필요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 파악 및 현황분석을 통한 합리적 활용 방향설정(추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위한 기초조사 연구)

□ 범 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 농생대 부지
- 내용적 범위 : 대상부지 입지 및 여건 분석, 활용방안에 관한 기본방향 도출

□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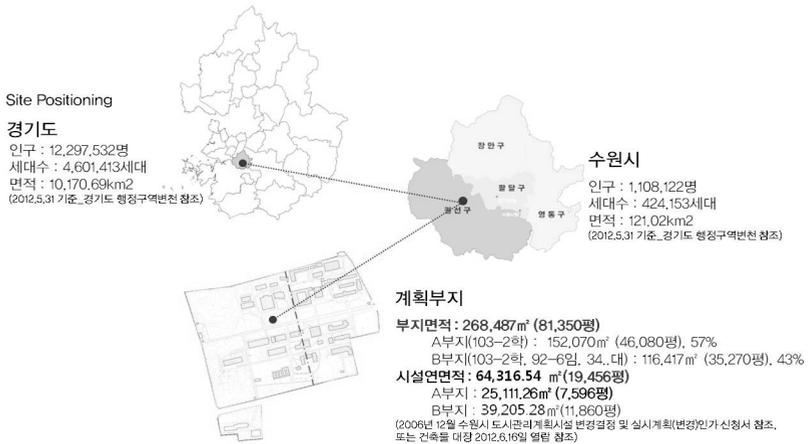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지리적 입지 및 특징 분석
 - 공간적 입지분석, 교통여건 분석, 항공기 소음 등 주변여건 종합분석
 - 기존 건축물 및 부지의 역사적 가치, 건축물 활용 가능성 등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기본 활용방향 설정
 - 부지 및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도시계획 및 지역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활용 방안 설정 및 검토

II. 부지여건 및 현황

1. 입지 여건

□ 위치 개요

- 수원역으로부터 서쪽 1km에 위치, 도로로 15분 거리로 수원시 도심지역에 인접



- 북측으로 농업진흥청, 동측 및 서측으로 농장 및 목장, 남측으로는 수원수목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이 위치

-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회선지역으로 소음이 심하고 전투기를 자주 볼 수 있음
- 국도 42호선에서 진입하는 폭 20m도로와 서부 우회도로에서 진입되는 폭 15m도로가 있으며 국도 42호선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폭 35m의 도시계획도로가 접함



2. 도시계획 현황

□ 수원시의 위상

- 3차 수도권 정비계획관련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2006-2020)상 수원시의 위치는 첨단산업벨트에 속함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기능 제고
 - 지식산업 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
 - 주거위주의 택지개발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고차서비스 기능 강화
 - 여가 및 관광자원 분포와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8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원에는 화성을 자원으로 하는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육성

□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개요

- 상업·업무·첨단산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도시위상 정립
- 수원시 전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관리 도모
- 공공시설이전부지와 주변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양호한 기반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택지물량 확보
- 공원·녹지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의 유연성을 확보
-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도시로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역산업 특화도시
- 균형적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다핵공간도시
 - 경부선 철도 및 군사시설의 입지로 동·서지역간 불균형적 도시성장 구조 개편. 도시기능의 다핵화 공간구조로의 개편

□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 입지

- 계획대지 북측으로 수원시 도시중심부 여기산이 위치하고 남측으로 평탄한 농경지가 위치함
 - 수원지역은 선사시대(청동기시대)부터 정착 생활한 흔적을 가지고 서둔동 여기산 일대에서 유물과 유적이 출토되고 있음
 - 유형문화재인 농진청(서둔동) 내 축만제(서호)와 여기산 선사시대 유적으로부터 반경 300m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에 제약
- 광고산에서 서쪽으로 내린 물이 서호에 유입되고, 수원 4대 주요하천 중 서호천이 계획대지에 인접함
 - 서호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개발 및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성에 용이
- 개발기본구상
 - 부지의 위치는 서수원지역에 해당, 첨단환경산업으로의 개발기본 구상이 정립되어 있으나 구도심 및 북수원지역과 인접하여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사업으로의 개발과도 연계가 필요
- 녹지축의 구상
 - 주녹지축 및 부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과 4대 하천 및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계축의 네트워크화를 도모

- 부지는 부녹지축에서 여기산과 서울대 실습림, 칠보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상에 위치하며, 광교산 서측으로 내려오는 서호 저수지와 4대 하천중 하나인 서호천에 인접한 수계축 상에 위치

○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생활권 구분에서는 서수원생활권에 포함되어, 향후 호매실택지지구, 권선구 행정타운 개발, 수원 산업단지 확장, 배후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이 설정
- 서수원생활권의 개발방향 주요기능은 주거, 지역상업, 농업연구, 첨단부품
- 권선구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기능 및 지역상업 육성
-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을 통한 지역산업기반 강화
- 기존 농업연구기능의 집약 및 BT 관련 연구 및 산업기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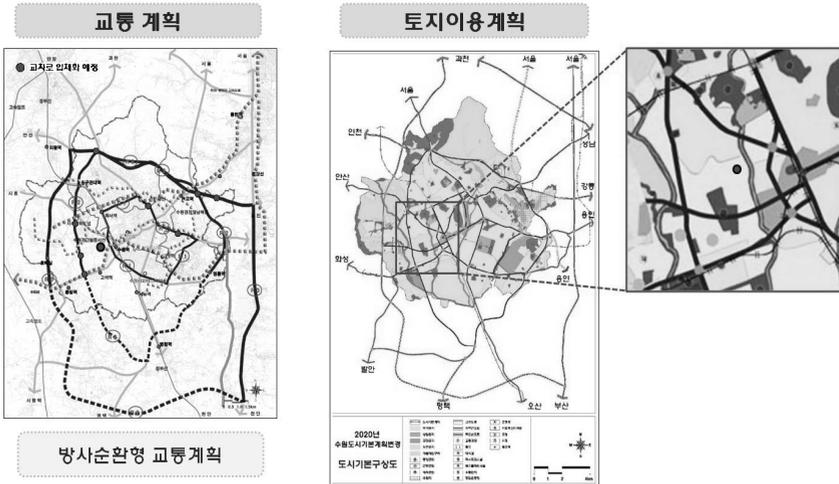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과 공원·녹지계획이 도시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변수에 따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변경됨
- 문제점 : 서울을 제외한 국내 최고의 고밀도시로, 경부선 철도에 의해 동서로 양분, 군사시설(비행장)의 입지로 남서부의 시가지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되어 도시적 토이이용 기대 어려움. 또한 서수원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민간개발(나홀로 아파트)로 기반시설 설치 가중 및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토지이용

- 잠재력 : 수인선 노선축을 따라 개발 가용지가 분포하며 자연자원이 도심 곳곳에 있고, 개발가용지에 수계 및 소규모 구릉이 위치해 환경 친화적 개발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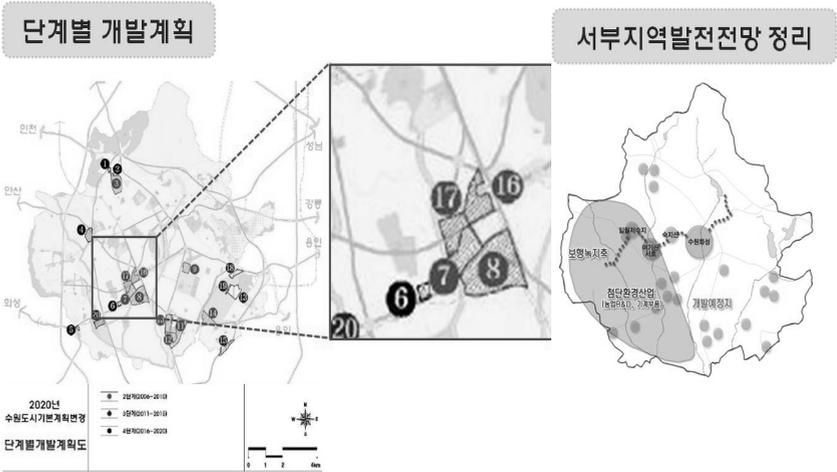
○ 교통축의 구상

- 도심순환도로(R1), 내부순환도로(R2)의 외곽에, 외곽순환도로(R3)의 내부에 위치함
- 수원역 중심의 남북축 경부선 철도망을 중심으로 수인선, 분당선 등 동·서간 철도망 연결



○ 단계별 개발계획(변경)

- 2단계(2006-2010) : 공장이전에정부지 및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여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주거, 공원·녹지, 교육, 문화복지기능 도입, 권선구 행정타운의 활성화 및 배후지원 기능 수용, 난개발 방지 공원지정
- 3단계(2011-2015) : 수원남부 권선동 일원 등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 남부권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 단계별 개발방향에서 부지주변부 2단계 17, 18번의 상업용지 7, 8의 주거용지 개발, 20번 권선구 행정타운은 3단계, 6번 주거용지는 4단계



3. 역사 및 생태, 건축적 관점에서의 부지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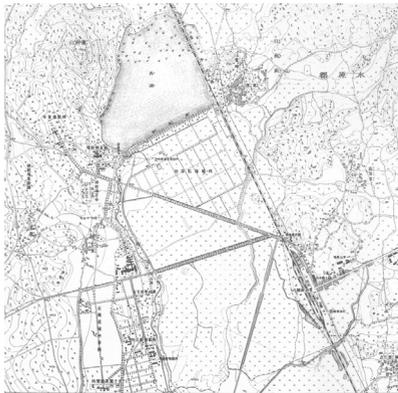
□ 철도의 건설과 수원의 근대적 변화

- 철도의 건설과 도시구조의 변화 : 1905년 경부철도의 개통과 함께 수원 역이 건설되었고 이때 수원역은 화성의 남서쪽에 건설
- 1918년 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에서 팔달산 서측에 경부선이 지나가고, 화성에서 팔달산 남측으로 수원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
 - 경부철도와 수원역의 입지는 구 시가지를 벗어나 건설
- 구 시가지와 적절한 거리를 뒀으로써 수원역 앞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수원역의 배후지는 농업과 잠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철도의 입지가 수원의 시가지 변화의 큰 틀을 결정
- 수려선은 1930년 12월 3일에 사설철도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여주 지역의 쌀을 수송하기 위해 부설한 철도로 1972년까지 운영, 수려선은 수원과 이천 사이 53km 구간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여주까지 연결된 것은 1931년 11월 27일
- 수인선은 수원역과 인천의 남인천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1937년에 개통되어 1996년 1월 1일까지 운행, 수인선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부터임

- 수원-인천간 47km와 시흥군 수암면에서 군자면에 이르는 시흥군 지선 7km가 사설철도인 조선경동철도에 의해 건설. 수원선은 소래지역의 소금을 운반하는 역할이 커서 소래지역의 염전 활성화에 영향이 컸음
- 이들 두 철도는 모두 표준궤가 아닌 협궤로 부설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철도와 연계되지 않았으나, 두 철도의 중심인 수원역은 1940년에 일일 이용객수가 3천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객 수가 급증하여 시설 확장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교통망의 중심이 됨

□ 일제강점기 수원 화성밖 도시와 건축의 변화

- 화성밖의 근대기 변화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 수원이 근대 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것은 1906년 3월 22일 고종황제의 제가를 받아, 4월 19일에 발표된 권업모범장관제에 따라 1906년 6월 15일에 농업연구기관인 권업모범장이 설치
 - 권업모범장의 사업을 산업의 발달 개량에 자(資)할 모범조사 및 시험,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물료의 분석 및 감정, 종자·종묘·잠종 및 종축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 통신 및 강화로 규정
 - 철도를 중심으로 경부철도의 서편을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시설을 건설하고, 경부철도 동북측에는 시가지가 형성. 이러한 화성 밖의 도시공간은 철도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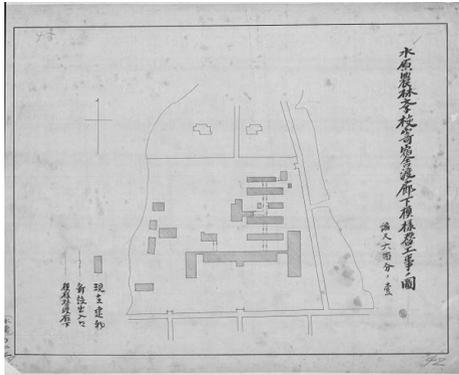
수원역과 권업모범장, 총독부지형도(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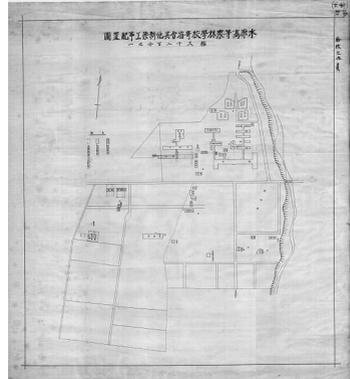
대상지 위성사진(2012)

□ 수원 농생대 건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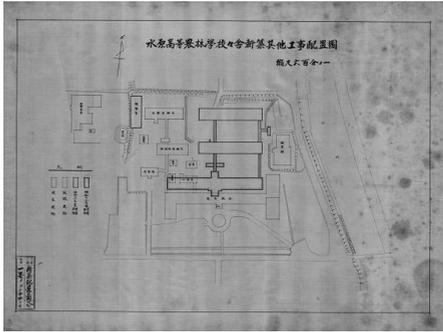
- 1904년에 설립되었던 농상공학교에서 1906년에 농과가 독립하여 농상공부 소속의 농림학교가 창설되었고,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된 직후인 1907년에 수원으로 학교가 이전
- 1909년에 3년제 농림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10년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됨. 1916년 전문학교 관제가 공포되면서, 조선총독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 학교로 개편
- 1923 수원고등농림학교 배치도에서 1909년과 달라진 점은 부지 북쪽에 관사가 배치되어 있고, 서쪽에 1918년에 건축된 기숙사가 위치
- 1937년에 작성된 배치도는 본관이 신축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 출입구가 돌출되고, 주 출입구 앞에 작은 로타리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배치도와 유사하며 본관 동편에 구 박물관 건물도 1937년에 이미 존재함
- 2006년 실시계획변경도서의 배치도는 서울대 소유부지 내 현재 산학협력관의 증축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현재 건축물 배치현황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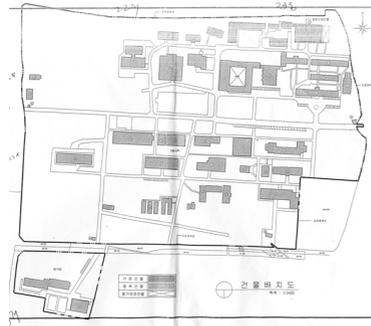
수원농림학교 기숙사 배치도



수원고등농림학교 배치도(1923)



수원고등농림학교 배치도(1937)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서(2006)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건축사적 의미

- 수원은 근대농업기술의 개발과 교육의 본거지로 한국근대건축 변천의 양상을 반영한 교육과 산업시설이 주로 분포
- 광복 후 수원에는 국제주의양식 건축의 집결지로서 서울대 농대, 농진청 도서관, 경기도청 등 건축가 김희춘의 작품,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농진청 교육관, 김정수 설계의 농진청 본관, 나상진 설계의 원호청 등 유명 건축가들의 근대건축유산 분포
- 서울대학교 구 농과대학 터 유구의 활용함에 있어 우선 건물별로 조사하고 남겨야 하는 유구를 선정한 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생태적 의미

- 서울대학교 농생대부지는 10여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도시숲으로서의 높은 잠재성을 가지므로 생태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콘크리트 포장재의 틈새를 뚫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 등 인공소재와 자연이 오랜시간 동안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 독일 에센의 줄페라인이나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의 경우 기존의 산업시설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 철재가 갖는 물성을 미학적으로 재활용했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은 경관적으로도 가치를 가짐

- 현재의 경관은 그 자체로도 좋은 생태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대상지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가능함

4. 관련계획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 추진 및 수원역 인근개발

- 국토부는 5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일반매각이 어려운(농지, 대형부지) 10개 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공사, LH공사를 통해 매각 예정
- 수원에 위치한 2, 3, 4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예정 (4지구 농업과학원 수원시 일부 매입)
- 수원역 서측으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2단계 개발계획 부지 내, 롯데백화점 신축 및 입점 예정. SK케미칼 직물공장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 2지구(북측):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167,882평)
- 3지구(남측): 농업과학원 (49,356평)
- 4지구(서측):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139,051평)

수원역 인근변화

- 롯데백화점 입점
- SK 케미칼 직물공장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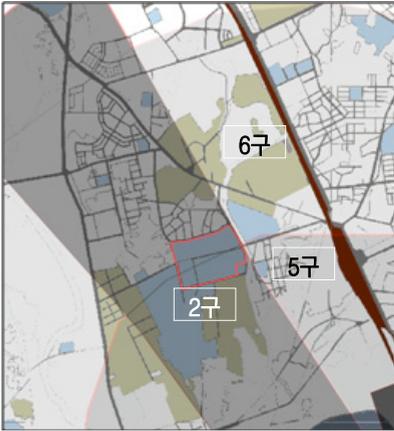


5. 대상지 현황

□ 대상지 문제점 및 기회요인

- 군용비행장 입지에 따른 소음_제약조건(비행안전구역)
 -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에 해당 :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서둔동), 농업연수원, 원예연구소(탑동)일부, 작물과학원(서둔동) 부지

-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하며,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음 : (제1구역의 경계에서 건축물 설치지점과의 거리에 1/50을 곱하여 제한높이를 산정, 작물과학원 및 농업과학기술원 남단의 경우 $2\text{km} \times (1/50) = 40\text{m}$ 로 약 12층 이상이 불가함) 계획대지의 경우 약 3km 이상 떨어져 60m 이상 가능



군용비행장 고도제한



주간선도로에서 진입

- 부녹지축 연계방안 및 부지와의 연결방안 고려 필요
- 주변부 개발가능지의 개발 전망에 따른 연계성 확보 및 부지 내 개발억제지 활용방안 검토
 - 개발가능지역 분석 : 계획대지를 포함 주변부가 대부분 개발가능지로 분석되고, 부지내 녹지의 일부와 남측에 생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3급으로 개발 억제지로 분석. 수원역 서측으로 시가화에정용지와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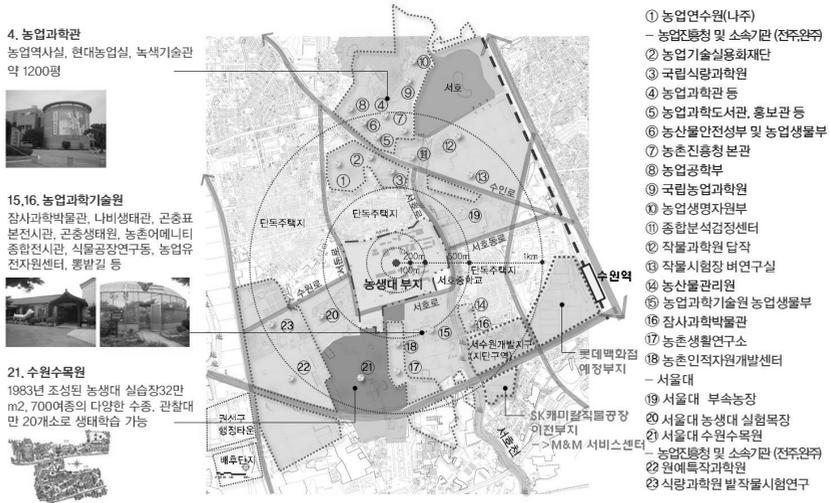
수원시 부녹지축 관통



부지내 개발억제지 분포

□ 주변 농업관련 시설 분포 현황

○ 대상지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관련 시설은 농업연수원, 농업과학기
술원, 농업과학관 등 약 20여개 이상이 분포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분포와 농업관련 주요시설

□ 부지개요

- 수원역 뒤편의 서수원 생활권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들이 근접하여 위치함
-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접근로는 국도 42호선에서 진입하는 폭 20m도로와 서부 우회도로에서 진입되는 폭 15m도로가 있으며 국도 42호선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폭 35m의 도시계획도로가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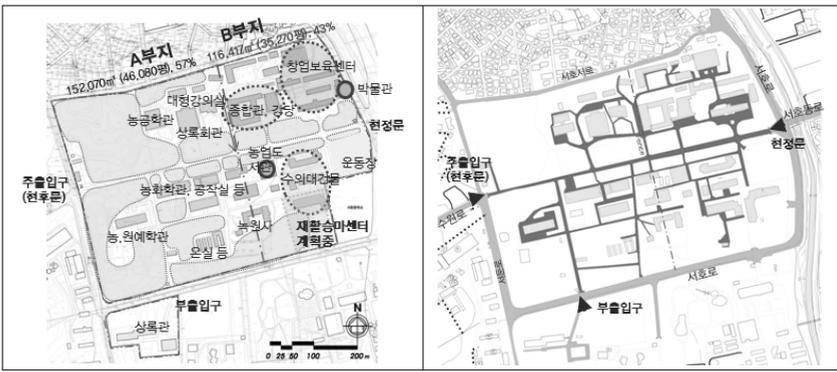
〈부지개요〉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외 2필지
지 목 :	103-2번지(학교용지), 92-6번지(임야), 341-2번지(대)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	학교시설보호지구 281,815㎡
용도지구 :	(서울대 소유부지 포함, 학교시설부지), (103-2번지 : 265,129㎡, 92-6번지 : 16,660㎡, 341-2번지 : 26㎡) 152,070㎡
전체부지 :	(103-2번지 일부 경기도 소유부지) 30,645.35㎡(10.88%)
A부지면적	법정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64,169.10㎡(22.77%) 법정 자연녹지지역 100% 이하
건축면적 :	건축부지 30,645.35㎡(10.88%)
건 폐 율 :	체육장부지 13,455.00㎡(4.77%)
연 면 적 :	도로부지 33,035.00㎡(11.72%)
용 적 율 :	주차장부지 1,909.00㎡(0.68%)
토지이용 :	녹지부지 202,770.65㎡(71.95%)



□ 부지 내 토지이용 및 교통동선

- A부지 대규모 녹지영역 분포 : 동서관통 녹지축의 보존계획 필요
- 중앙의 웬스에 의한 공간 분리 : 동서 관통로에 의한 부지개방 예상
- 수원역에서 주도로에서 A부지로 접근성이 떨어짐 : B부지를 관통하는 접근로 확보 필요
- 건물 개별 주차공간 형성 : 차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필요



토지이용 현황

부지내 교통 현황

- A, B부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심도로축과 본 중심도로축에서 분기하는 단지내 순환 및 지선도로가 형성



서호서로에서 부지북측 접근



서호로에서 현 후문(부지서측)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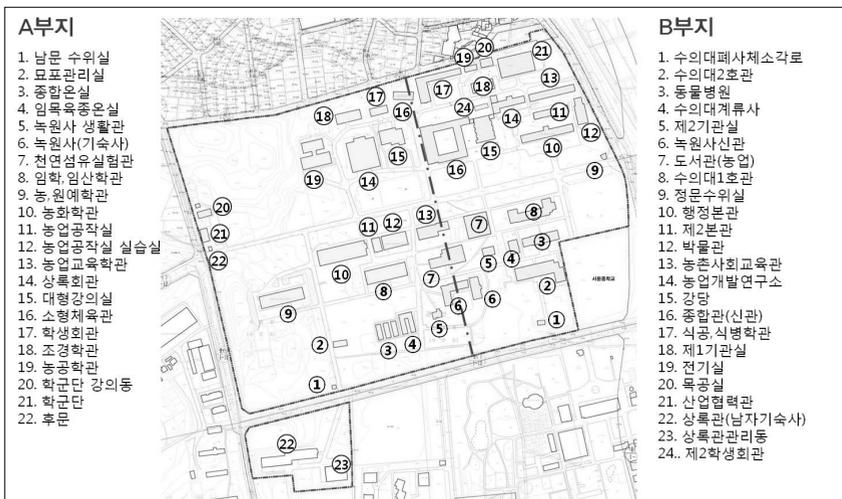
서호로에서 현 정문(부지동측) 접근



서호로에서 부지남측 접근

□ 건축물 현황

- A부지에는 총 22개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건축년도별로 보면, 50년대말이 4개, 60년대가 7개, 70년대가 4개 80년대가 6개이며, 90년초 농공학관 1개의 건축물이 건축됨
- B부지에는 건축년도 미상의 1개(수의대 폐사체 소각로) 건축물을 포함 총 24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년도별로 보면, 30년대가 3개, 50년대가 4개, 60년대가 8개, 70년대가 2개, 80년대가 3개, 90년대가 1개이며, 2000년에 들어 기존 1957년도 4개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산업협력관과 제2학생회관인 2개의 건축물이 건축됨



□ 대상지 분석종합

- 대상지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지로 우리나라 근대 농업발전을 선도했던 중심지역이며 1930년대부터 1990년대의 건축물들이 보존되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
- 2003년 서울대 캠퍼스 이전 후 폐쇄되어 수림이 자연상태로 조성되어 고라니, 꿩 등이 서식하고 희귀한 식물과 가치가 높은 나무들이 존재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소
- 부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근대건축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한 다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 공공기관 이전과 인근 부지의 개발 및 수원역 서부지역의 변화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이용수요를 대상으로 한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지역

Ⅲ. 부지의 기능 및 역할 전망

1. 수원역 서부지역의 변화 전망

□ 서부지역 문제

- 경부선 철도와 군용비행장(어반베리어)에 의한 도시구조의 동측 편재로 동서 불균형 개발 및 발전 심화



어반 매스

○ 수원역 서측에 실질적 문화시설로 잠사박물관이 유일하나 지방이전 예정



문화시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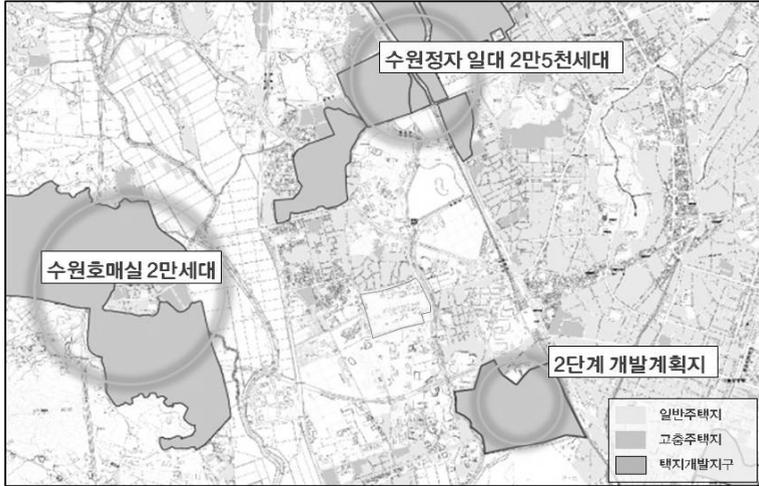
□ 서부지역 발전전망

○ 단계별 개발계획 및 서부지역 개발계획, 공공시설 이전부지 계획 등에 의해 상업지역 서측 확대



상업지역의 확대

- 서부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있으나 불균형적 도시팽창으로 서측 문화시설의 부족 예상



택지개발지구 및 주거용지 분포

- 수원역 서측에는 비교적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분포하고, 부녹지축이 대상지를 관통하나 주변 녹지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녹지 및 퍼블릭스페이스 분포

- 대상지에서 주간선도로까지의 접근에 불편함이 있고 특히 현 A부지로의 접근(후문)이 용이하지 않음



교통체계 변화가능성

2. 대상지의 기능 및 역할 구상

- 서부지역에서 대상지의 역할



-근대건축이라는 그릇에 담긴 농업과학과 자연의 역사-

생태공원 속의 수원 서부 문화중심지

□ 대상지의 개발전략구상도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 근대건축, 농업 역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공원 속 수원 서부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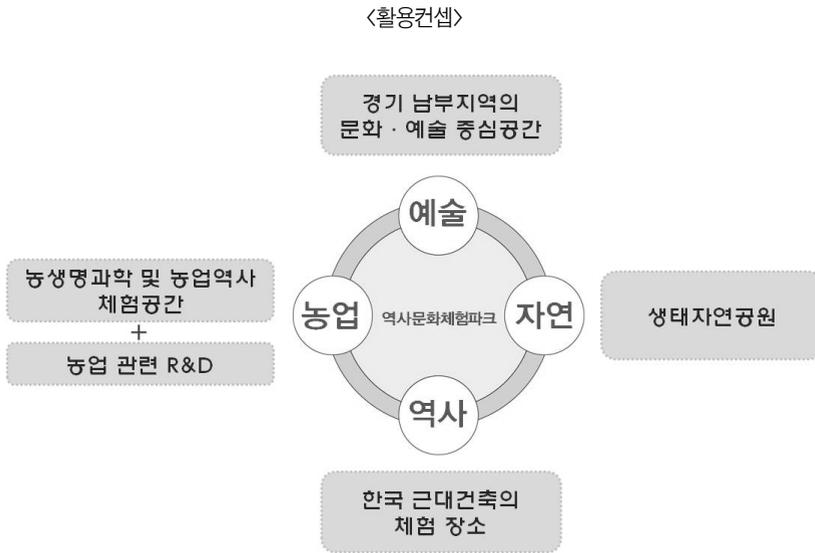
IV. 결론 : 부지 활용방안

1. 기본방향

- 부지의 역사적 성격, 기존 자연환경 및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
 - 본 부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교육연구시설의 성격과 기존의 양호한 자연
 - 환경 및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검토
- 주변시설과의 연계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검토
 - 본 부지는 당초 인접한 서울대 소유 부지와 일체화된 하나의 단지로서

- 본 서울대 소유부지의 외부공간 및 건축물과 연계된 활용방안을 검토
-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변시설인 북측 농촌진흥청 부지, 남측 수원 수목원 및 목장, 농장 부지와 연계방안을 검토
- 광역적인 측면에서는 수원역 서부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 공공시설로서 도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2. 활용방안



- 농생명과학·농업역사의 체험 및 농업 관련 R&D 공간으로 조성
 - 부지의 역사적 기반인 근대농업과 최신 농생명과학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 조성
 - 부지의 당초 기능인 교육·연구의 기능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R&D시설의 유치 및 활용
- 한국 근대건축의 체험장소로 활용되는 새로운 시설의 도입
 - 인접 서울대 소유부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근대건축 유산의 발굴 및 복원 등을 통한 역사적 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모범활용 사례화

〈근대건축 유구의 활용사례〉

	
<p>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p>	<p>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p>
<p>기존의 화력발전소 외관은 변형시키지 않고 내부만 새롭게 구성, 대형 미술관으로 변모시킴</p>	<p>독일 철강회사 티센의 제철소 시설을 개조한 환경공원으로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교육의 장이 됨</p>
	
<p>독일 에센 졸버레인</p>	<p>일본 요코하마 ZAIM</p>
<p>폐탄광지의 산업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쓰임을 달리함. 2001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p>	<p>80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관공서 건물을 예술가들의 보금자리화. 내부 컨텐츠만 바꿈</p>

- 생태자연공원으로서의 부지 활용
 - 남측 수목원과 본 부지의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수원 부녹지축을 연결하는 광역거점 생태도시공원으로 조성
 - 기존의 양호한 식생 및 수목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자연상태로의 도심공원 조성
- 경기 남부지역·수원 서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조성
 - 수원역이라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경기 남부지역, 수원 서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조성
 - 수원역 서부지역에 부족한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등) 등의 활용도 검토 가능



- 이처럼 대상지는 한국 근대농업의 학문적 산실지로서
-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대상지의 수림 및 녹지가 지역 소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 세밀한 건축물 및 수목·생태 현황을 조사 후,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세부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최근 검토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이전, 활용도 도민을 위한 지역 생태 문화중심지 조성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신규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참고문헌

- 경기도(2004.9).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 김홍기(2007.12). 독일 산업·기술문화재로서의 폐광산 재생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12호.
- 수원시(2009).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 수원시(2009.7).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 안건혁(2007). 『역사보전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윤인석(2003). 『근대기 수원의 건축 및 도시 변천사』.
- 이주형 외(2006.3).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제3호.
- 지우석 외(2011). 『수원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 파악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도시계획 현황, 역사 및 생태, 그리고 건축적 관점에서의 부지여건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 대상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상황과 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기능과 역할 전망에서는 본 대상지의 활용주제를 '생태공원 속의 수원 서부 문화중심지'로 전제하고, 기본방향으로 첫째, 부지의 역사적 성격, 기존 자연환경 및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 둘째, 주변시설과의 연계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검토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지의 활용방안을 네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농생명과학농업역사의 체험 및 농업 관련 R&D 공간, 둘째, 한국 근대건축의 체험장소, 셋째, 생태자연공원, 넷째, 경기 남부지역·수원 서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서의 부지활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농생명과학농업역사, 역사적 장소, 근대건축물 유산, 생태자연공원, 문화·예술공간

Abstract

A Strategy for Reusing Former Site of SNU CALS in Suwon

Kang, 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rategy for reusing 'Former Site of SNU CALS'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exist site condition. For this purpose, the locational site conditions and urban planning status, site history, exist ecological condition and historical meaning of architecture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is, problems and potential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e situation and current development plan of the surrounding area were deducted.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ite and the subject of the use was set to 'the Culture Center of Western Suwon in Eco-park'

The basic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Activating use of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site, the existing natural environment, and buildings; Second, Review of the utilization through the linkage of the surrounding facilities and developments.

Four kinds of usage plan of the site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spaces for experience and agriculture-related R&D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Science and Agricultural History; Second, the experience places of modern architecture; Third, the ecological nature park; and Fourth, the center of culture and art in western Suwon region and southern Gyeonggi area, are suggested as the land use plan.



Keyword : Former Si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LS(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gricultural Biotechnology Science and Agricultural History, Historic Places, Modern Architecture Heritage, Ecological Nature Parks, Cultural and Art Space

산업유산 선경직물 수원공장 활용 방안 연구 - ‘문화 +경제’ 복합 공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강진갑

- I. 머리말
- II.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역사와 건물 보존 실태
- III.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 사례
- IV. 선경직물 수원공장 보존 및 활용 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¹⁾

수원 평동에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해방 후 한국인이 인수하여 경영하였으나, 6·25전쟁으로 폐허로 변하자, 선경의 생산부장을 지낸바 있는 최종건 회장이 1953년 공장을 인수하고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역사 상징물이자,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산업유산이다. 선경직물은 1953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수원시 평동 별관에서 직기(織機) 20대로 시작하여 오늘날 매출 110조원, 재

1) 본고는 필자의 「한국 산업사 유산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산업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자」(『수원사랑』 2012년 여름호, 수원문화원.)를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

계 3위 기업 SK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이곳은 SK 그룹의 입장에서도 요람이자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1944년 건축된 사무동을 비롯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건립된 본관과 공장 건물이 보존되어 남아 있다. 1944년 건축된 사무동을 제외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산업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SK그룹은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쇼핑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근대 산업유산인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가 단순히 대형 쇼핑몰로만 개발된다는 것은 한국근대 산업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를 근대 산업유산으로 보존하면서 SK그룹에게도 이익을 주는 상생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는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선경직물의 역사와 공장 터의 보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유산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1년 12월 23일과 2012년 2월 13일 두 차례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현장 답사하면서 공장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건물 현황은 답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II.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역사와 건물 보존 실태

1.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역사

수원 평동의 선경직물 수원 공장은 SK그룹의 발원지로, 1953년 최종건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창업 현장이다. 이곳에 선경직물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이다. 직물수입상인 선만주단주식회사(鮮滿綢緞株式會社)가 일본의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견직회사(絹織會社)인 경도직물주식회사(京都織物株式會社)와 합작하여 1942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하였고, 1943년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같은 해 12월 미군정청 적산관리 요령에 의해 선경직물의 조선인 주주였던 황청하(黃淸河)·김덕유(金德裕) 두 사람이 선경직

물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선경직물은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관재청 관리로 넘어갔다. 선경직물은 6·25 전쟁 기간 중 폭격으로 대부분 공장이 파괴되었다. 1953년 최종건이 폐허가 된 선경직물을 매수하기로 관재청과 계약하고, 10월 1일 귀속재산 매수계약금으로 대납한 지가증권 13만원(圓)을 반제한 후, 이 날을 ‘선경직물 창립일’로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SK의 터전이 가꾸어 진 것이다.²⁾



창립기 선경직물 수원공장 정문



전성기 수원 공장 전경

1950년대에 들어 선경직물의 인조견 안감 상표인 ‘닭표’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당대 필수 혼숫감이 되었던 ‘봉황새’ 본건(本絹) 이불감을 개발하였고, ‘곰보 나일론’ 직물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선경직물은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직물업계 발전을 선도했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전성기는 1970년대였다. 직물 산업이 활황이었던 당시 공장 직원은 2천여 명에 달하였다.

1976년 1월 선경직물은 상호를 (주)선경으로 변경하였고, 그 해 11월에 종합무역상사가 되었다. 이어 (주)선경은 계열화 기업 외에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증진을 위해 선경머린, 선경식품, 선경반도체, 선경금속, 선경종합건설, 선경목재

2) 최종건이 선경직물을 인수하고 난 후, 회사 내에서 일본인 사용하던 ‘선경(鮮京)’이란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할지 새로운 회사명을 작명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선경’이란 명칭이 일제 강점기 공장을 설립한 선만주단주식회사(鮮滿州段株式會社)와 경도직물주식회사(京都織物株式會社)의 첫 글자를 따와서 지은 명칭이기 때문이다. 최종건은 ‘선경’을 “조선에서 빛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선경’이라는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다. (「우리 조선에서 크게 빛내자/ 봉황 이불로...최종건의 선경 창업」,

<http://blog.naver.com/lims021?Redirect=Log&logNo=10017104583> (2012.12.25. 검색)



등을 설립하였다. (주)선경의 수원 직물공장은 선경 그룹의 모태이지만, (주)선경의 주력 제품이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경의 수원 직물공장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경영도 부실해졌다.

수원 직물공장은 1985년 선경합섬 소속이 되었다. 선경합섬은 1988년 상호를 (주)선경인더스트리로 바꾸었다. 1998년 선경인더스트리는 SK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년 섬유사업을 분리하고, 정밀화학과 생명과학사업에 집중하는 사업구조를 갖추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직물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2003년 9월 수원 직물공장은 문을 닫았다. 이제 선경의 모태 공장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나게 되었다.³⁾

2. 선경직물 수원공장 건축물 보존 실태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소재하고 있다. 공장 넓이는 11만2397.2m² (3만4000여 평)이다. 현재 공장은 SK건설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SK건설과 금융권이 출자한 서수원개발주식회사(SPC)이다.

공장 한가운데를 도로가 지나가면서 공장 부지는 남북으로 나누어 졌다. 이 때 일부 공장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나머지 건물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남아 있는 건물 중 일부는 외부에 임대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않아 대부분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 지역이 수원공군비행장 인근에 있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임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SK모태 수원 직물공장 50년 역사 마감」 『연합뉴스』 2003년 9월 8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454466> <2012.12.25 기사 검색>); 「SK그룹의 발원지 "수원 평동공장,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2008년 3월 12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31209275522815> <2012.12.10 기사검색>)



1944년 건립된 선경직물 사무실 건물

남아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44년 건립된 선경직물 공장 사무실 건물이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이 건물은 선경직물 창립 초기에 제품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 식민지시기 소규모 업무·영업 겸용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기와는 예전 그대로의 것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선경직물 공장 본관(2012년 현재 모습)

보존되고 있는 건물 중 대표적인 건물은 1959년 건립된 선경직물 공장 본관이 다. SK그룹 창업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1층 중앙에 넓은 업무실과 응접실이, 2층에는 사장실과 별실이 배치되어 있다. 공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 내부는 건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형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 1950년대 건축물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1960년과 1964년에 건립된 선경직물 공장 2개 동도 남아 있다. 붉은 벽돌 구조에 톱날지붕을 얹은 전형적인 공장 건축물이다. 내부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는 건축형태이다. 1965년 건립된 공장 기숙사도 남아 있다. 보일러실에서 열을 공급하는 중앙공급식으로 난방장치가 잘 된 기숙사 시설이었다.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옥탑 층에는 외출하지 못하는 여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었고, 옥상은 빨래 건조장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1966년 건립된 수조 및 폐수처리장도 남아 있다. 옷감을 제조, 염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용수를 배출하기 전에 정제하는 환경시설이다. 공장부지 인근의 하천에 인접해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통형 저수조와 각종 기계, 기기류들이 존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등이 발발하여 최근 철거하였다. 그 외 나염 공장, 노조 사무실과 운동장, 사원주택 등이 남아 있다.



1960년대 건축된 공장 건물. 잘 보존되어 있다



나염 공장

공장에는 건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 내에는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요타 세단 승용차와 지프차, 금고가 보관되어 있다. 공장 본관에는 각종 집기류, 건축도면, 태극기, 회장 초상화 등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공장 건너편에 최종건 회장의 생가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최종건 회장이 사용한 자동차



공장 건너편에 있는 최종건 회장의 사택

Ⅲ.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 사례

산업 유산을 재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를 들 수 있다. 붉은 벽돌 창고는 1910년대 건립된 항구의 창고이다. 1989년 용도 폐기되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었다가, 요코하마시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건물의 역사성과 벽돌소재를 살리는 방식으로 보수 복원공사를 실시하였다. 1호관은 문화시설로 만들었다. 홀과 극장이 들어섰고, 각종 이벤트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호관은 쇼핑센터, 재즈 라이브 하우스가 들어선 상업시설로 개조되었다. 요코하마의 흉물이 요코하마의 상징이 되었고,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하여 요코하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붉은 벽돌 창고사례는 산업유산을 ‘문화+경제’복합공간으로 조성 활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쇼핑센터로 변모한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1층

이외에도 산업유산을 활용한 해외 사례가 많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1804년 최고재판소 건물로 지어졌으나 화재로 소실된 후, 1900년 오르세 역으로 재건되었다. 1939년 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 방치되었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탄생하여 관광 명소가 되었다. 영국 런던 강변의 데이트 모던 갤러리는 1947년부터 1981년까지 벅크사이트 화력발전소로 사용되다가 공해 문제로 가동이 중단, 방치되었다가 2005년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즐페라인 문화공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최대 탄광 중의 하나였던 탄광을 개조한 것이다. 독일 루르 지방에 소재한 즐페라인 문화공간은 내부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하여 박물관과 주민의 휴식 터로 조성하였다. 특히 레드 닷 디자인 센터를 즐페라인 문화공간 내에 조성하여 세계 디자인산업을 선도하고 있다.⁴⁾



레스토랑으로 변모한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3층

4) 김미림, 2010,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87쪽.



독일의 쥘페라인 외관



쥘페라인 내부. 레스토랑으로 꾸며져 있다



쥘페라인 내부. 디자인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쥘페라인 공간내에 있는 레드 닷 디자인 센터

국내 사례로는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284’로 개조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던 정수장을 2002년 국내 최초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선유도 사례도 있다. 또한 개항장이었던 인천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 아트플랫폼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다. 인천의 사례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창고, 인쇄소 등의 옛 건물을 하나의 회랑으로 연결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개조한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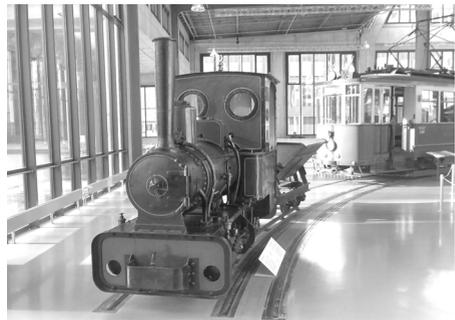


인천 아트플랫폼

산업사 박물관 건립 사례로는 1903년 건립된 독일 뮌헨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들 수 있다. 명칭은 종합박물관이지만 내용은 과학기술박물관이다. 우주, 항공, 사진과 영화, 물리, 인쇄, 농경 등 자연 과학 기술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상황을 전시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 과학박물관과 맨체스터 과학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맨체스터 과학박물관은 1983년 개관하였는데 이 도시의 중요한 명소이다.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라 할 수 있는 맨체스터의 역사, 과학,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1933년 개관한 시카고 과학박물관이 있다. 규모도 크지만 체험장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에는 2001년 개관한 도쿄의 미래과학관이 있다. 일본 미래의 과학기술들을 보여주는 박물관인데, 최첨단 과학 기술을 테마별로 전시 소개하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인기가 있어, 매년 100~50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다.⁶⁾



독일 국립박물관



독일 국립박물관 내부

5) 김미림, 위의 글, 102-104쪽.

6) 경기학연구실, 2011, 「경기도에 산업박물관을 세우자」, 경기문화재단 내부 문서.



영국 맨체스터 과학박물관



미국 시카고 과학박물관 내부



영국 맨체스터 과학박물관 전시물

IV. 선경직물 수원공장 보존 및 활용 방안

1.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를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서수원개발주식회사는 평동의 공장 터를 대규모 쇼핑몰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를 상세히 보도한 『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 평동 SK직물공장 대형쇼핑몰로 개발 - SK건설 남측구역 롯데마트, 북측구역 대형쇼핑몰 개발 : 고 최종건 회장 박물관 백지화, SK그룹 상징물 건립 검토〉
수원시 평동의 SK케미칼 수원 직물공장이 대형 쇼핑몰로 개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

면 SK건설과 금융권이 출자한 서수원개발주식회사(SPC)는 대형 쇼핑몰 개발을 골자로 한 '수원 역세권개발에 따른 개발 전략지구' 1블록 지구단위개발 계획안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부지 11만2397.2m² (3만4000여 평)인 1블록은 북측구역과 남측구역으로 나눠 각각 연면적 19만8348m² (6만평) 4층, 6만6116m² (2만여 평) 3층 규모로 개발키로 했다. 남측구역은 지난 4월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북측구역은 테마형 쇼핑몰이 들어선다. 특히 테마형 쇼핑몰은 해외 유명 유통업체가 직접 출점해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그룹의 모태라는 상징성 때문에 검토됐던 故 최중건 회장 기념관(박물관) 건립은 수원시가 주거지역 내 적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지구단위계획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추후 SK그룹 모태 성격의 상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가 진행 중인 공장용지 재배치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대 11만2397.2m² (3만4000여 평)에 들어선 이 직물공장은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의 출발점으로 지난 53년 고 최중건 초대 회장이 이곳에서 직기 15대로 사업을 시작했었다. SK케미칼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인 서수원개발주식회사에 부지를 매각했고, 현재는 SK건설이 19.9%의 지분을 출자해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고 있다.⁷⁾

이상의 기사에 따르면 SK그룹은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쇼핑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SK그룹은 선경의 창업지인 이곳에 창업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수원시가 난색을 표하여 별도의 상징물 건립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사의 중요한 현장이자, 산업유산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이 단순히 대형 쇼핑몰로만 개발된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 현장을 사라지게 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근대산업유산 훼손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K그룹이 수원시에 협조 요청한 내용을 위 신문 기사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원시가 한국 산업사의 중요한 현장인 평동 수원공장 터에 선경직물 창업주 기념관 건립을 난색을 표했다는 것은 한국 근대 산업 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지인 선경직물 수원공장 부지를 근대산업유산이기에 보존만 할 것

7) 「수원 평동 SK직물공장 대형쇼핑몰로 개발」, 『이데일리』 2007년 9월 20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F12&newsid=01554726583262088&DCD=A00206&OutLnkChk=Y\(2012.12.10기사 검색\)](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F12&newsid=01554726583262088&DCD=A00206&OutLnkChk=Y(2012.12.10기사 검색)))

을 SK그룹에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선정직물 수원공장 터를 근대 산업유산으로 보존하면서 SK그룹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선정직물 수원공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건립된 공장 건물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한국 경제성장사의 현장이고,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기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2월 13일 문화재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직물 수원공장 터를 답사한바 있다. 답사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위원장 김정동 교수를 포함하여 문화재위원인 정연상 교수와 문화재 전문가 강성원 박사, 한동민 박사가 참여하였고, 공장 내 본관, 공장 건물, 사무실의 보존 상태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위원장 김정동 교수를 포함한 문화재 전문가들은 공장의 역사성, 지역사적 의미, 건물의 보존상태 등을 고려하면, 공장 내 건물 전체를 근대문화재로 등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본관 건물은 건축물 자체의 가치가 높더라도 본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현대식으로 보수하지 말고, 복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959년 제작된 타일의 상태가 이 정도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건물이 유일한 것일 수도 있다며 원형 보존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본관 내부에 배치된 각종 집기류, 건축도면, 태극기, 회장 초상화 등도 건물과 유기성이 있는 관계로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장 건물의 외벽이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방식인데,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고, 공장 건물 내부에 보존 중인 최중건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요타 세단승용차와 지프차, 금고 등도 공장 건물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44년 지은 사무실은 건축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기술자에 의한 복원 수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

시하였다.⁸⁾

근대문화유산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현대시기에 생성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정문화재가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하는데 반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는 소유주가 필요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처럼 문화재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가해지지 않는 제도이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재 보수 정비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유지이면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문화+경제’ 복합 공간 조성

한국산업사의 중요한 유산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경제’ 복합 공간은 문화 공간과 산업경제 시설을 일정한 공간에 함께 조성하는 개념이다. 동일한 공간에 조성된 문화 공간과 산업경제 시설이 상호 융합하여 문화공간과 산업시설이 상생하게 하는 방안이다. 성공사례로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붉은 벽돌 창고를 들 수 있다. ‘문화+경제’ 복합 공간은 선경직물 수원공장처럼 한국산업사의 중요한 유산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산을 활용할 경우 기업과 지역 사회, 국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경제’ 복합 공간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건축된 선경직물의 상징적인 공간인 사무동, 본관, 공장 건물 등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산업박물관과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박물관은 SK와 한국 섬유산업의 태동과 발전 역사를 전시하고, 당시 생산시설과 생산 공정을 재현하여 이를 관람/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단순한 전시·교육 공간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간단한 의류를 제작하는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한국에 산업박물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산업박물관 조성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재

8)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2012, 경기문화재단 문서 「경기도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을 위한 선경직물 수원공장 현장조사 결과보고」.

원이 일정하게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 공간은 공연장, 전시실, 창작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전시공간이 부족한 수원 지역의 시각예술 활동이 활성화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 경제 시설로는 수원 공장의 넓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형 의류 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공간과 어우러진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그것만으로도 명소가 되어 수원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이어서 비행기 소음이 심각한 곳으로, 공간 조성시 소음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소유주인 SK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군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비행장 인근 지역이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군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문화+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건물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즉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기업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공군의 협력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V. 맺음말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산업사의 중요한 역사 현장이다. 그런데 SK그룹이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쇼핑몰 조성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는 또 하나의 한국근대산업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를 근대 산업유산으로 보존하면서 SK그룹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일대는 공군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문화+경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조성하는 일은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SK



가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도 건립할 수 있어 국가, 기업,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짧은 시기에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 유산에 대한 무관심과 저평가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 유산은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일은 국가가 시급히 나서야 할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경직물 수원 공장을 ‘문화+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은 한국 경제사 현장과 산업 유산을 보존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해야 한다. 수원시가 선경직물 평동 공장에 선경 창업자의 기념관 건립에 난색을 표한 것은 한국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 생각된다.

SK그룹 입장에서는 SK그룹의 발상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이곳을 문화와 결합한 쇼핑몰로 조성한다면 기업의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의 발상지 중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은 아직 한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선경직물 수원공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그 자체만으로 한국 경제 및 산업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SK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서 수원(西水原) 지역이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 복합문화과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곳이다

SK그룹은 1953년 선경직물 창업일을 그룹 창업일로 여기고 있다. 2013년은 SK창업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SK가 창업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선경그룹 홍보실, 1993, 『선경40년사』, 선경그룹.
- 강진갑 외, 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경기 문화재단
- SK기업문화실, 2006, 『패기와 지성의 여정 - SK50년』, SK.
- 김흥기, 2007, 「독일산업기술 문화재로서의 폐광산 재생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3권 12호통권 230호).
- 김미림, 2010,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87쪽.
- 강진갑, 2012, 「한국 산업사 유산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문화·산업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자」 『수원사랑』 2012년 여름호, 수원문화원.
- 「SK모태 수원 직물공장 50년 역사 마감」, 『연합뉴스』 2003년 9월 8일자.
- 「수원 평동 SK직물공장 대형쇼핑몰로 개발」, 『이데일리』 2007년 9월 20일자.
- 「SK그룹의 발원지 "수원 평동공장,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아시아경제』 2008년 3월 12일자.

국문요약

수원 평동에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이 있다. 수원공장은 2003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1959년 건립된 본관 건물, 1960년과 1964년 건립된 공장 건물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들이 보존되어 남아 있다. 공장에는 건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주가 사용한 도요타 세단 승용차와 지프차, 금고를 포함한 각종 집기류, 건축 도면 등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역사 상징물이자,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산업유산이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문화+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경제’ 복합 공간은 문화 공간과 산업경제 시설을 일정한 공간에 함께 조성하는 개념이다. 동일한 공간에 조성된 문화 공간과 산업경제 시설이 상호 융합하여 문화공간과 산업시설이 상생하게 하는 방안이다.

수원공장 일대는 공군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 복합문화공간과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주제어 : 선경직물 수원공장, 근대문화유산, ‘문화 + 경제’ 복합 공간, 한국경제 발전, 쇼핑몰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the Sunkyoung Textile Suwon Factory, Industrial Heritage—focused on the development plan of Economic and Cultural complex

Kang, Jin Kab

There is the Sunkyoung Textile Factory, beginning of SK Group, in Pyeongdong, Suwon. Although the Sunkyoung Textile Suwon Factory has been closed down since 2003, many buildings, including main building, founded in 1958, and two factory buildings, founded in 1960 and 1964, are still preserved. Not only buildings remain but also various sort of things, including a blueprint, Toyota sedan, jeep, the vault, and so on, founder used, are well-preserved. The Sunkyoung Textile Suwon Factory is important historical symbol of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also industrial heritage that the government has to preserve.

The Sunkyoung textile factory has to be registered as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to be changed to ‘Economic and Cultural complex’. ‘Economic and Cultural complex’ is a concept that cultural space and industrial economic facilities are created in the same area all together. It is the win-win way to both of cultural space and industrial facilities if cultural space and industrial facilities intergraft.

The area around the Suwon Factory is that a local resident here suffer from noise, caused by air force airfield. Therefore, the area has not developed as much as other part of Suwon. If ‘Economic and



Cultural complex' is founded in this area, it will lead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so the local resident will enjoy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Key word : the Sunkyoung Textile Suwon Factory, Modern Cultural Heritage, Economic and Cultural complex,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hopping mall

도시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활용방안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중심으로 -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

정다미

- I. 머리말
- II. 도시문화공간의 장소성
- III. 영통동과 도시장소성
- IV. 수원시 영통동 : 도시장소성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산업도시’ 대신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경제개발을 추구했던 기존 도시의 틀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문화와 경제를 결합시키는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개념을 감상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 정체성 확립, 도시재생,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구축,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문화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문화를 도시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문화마케팅이나 컬처노믹스 전략을 활용한 ‘문화도시’나 ‘창조도시’ 등의 개념을 양상시켰다.¹⁾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들 간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1) 안영규(2008),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활성화 성공사례」, 『문화산업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문화산업학회, pp.24-25.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개별적인 특색이 드러나는 고유의 콘텐츠 보유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 국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의존, 장소에 대한 이해부족, 성급하게 이루어진 개발, 보여주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개발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이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장소성의 부재에 있다고 보았다.

II. 도시문화공간의 장소성

장소라는 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리학을 중심으로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간성 상실과 장소성 상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장소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와 그곳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의해 인지되는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의 결합임과 동시에 환경적, 인적, 문화적, 정서·상징적, 삶의 질·경영적 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장소의 요소 및 특징 〉²⁾

요소	성격	세부항목
환경적 요소	공간으로서의 장소	자연환경, 수리적 위치, 교통체계, 역사유적 등
인적 요소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 형성 /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생활양식, 역사, 문화, 인적자본 등
문화적 요소	유사한 가치, 이념 및 목적 공유 / 장소에 대한 일체감	국제적 문화자원, 운동경기 등
정서, 상징적 요소	장소에 대한 느낌과 정체감 부여를 통해 생성	장소감,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이미지 등
삶의 질, 경영적 요소	최대의 만족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	생활환경, 교육, 복지, 휴식공간, 문화여건 등

2) 최강림(2008), 『신도시개발과 장소만들기』, (주)한국학술정보, p.2/백선혜(2005),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주)한국학술정보, pp.55-56 재구성.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통해 통합적 장소요소로 ‘사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콘텐츠)’를 도출할 수 있다.

〈 통합적 장소구성요소 〉

렐프(Relph)의 장소구성요소	루커만(Lukermann)의 장소구성요소	투안(Tuan)의 장소구성요소	장소경쟁력 측면에서의 장소구성요소
의미	의미	이미지 유지 / 재창조 / 기억 등	인적 요소 / 정서, 상징적 요소
물리적 환경	위치 / 자연과 문화의 통합 / 공간적 상호연관성 / 국지성	기념물 등	환경적 요소
인간 활동	형성성	행렬 / 축제 등	문화적 요소 / 삶의 질, 경영적 요소



통합적 장소구성요소	사람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콘텐츠)
-------------------	-------------------------------

여기서 ‘사람’은 장소를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써 정서적·상징적 특징을 지니며, ‘하드웨어’는 공간이라는 큰 틀의 물리적인 실체 뿐 아니라 공간을 특정 짓는 기념탑 등의 실제대상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환경적 요소를 지칭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장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한 개인적인 행동과 경험 뿐 아니라 축제와 행사 등의 콘텐츠를 말하며, 이러한 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는 그만의 성격인 장소성(場所性, sense of place)³⁾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소성은 고유한 특성이며, 어떤 공간에 장소성이 구현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장소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장소성의 형성과정〉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간이 가진 가능태를 현실태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3) 이석환·황기원(1997)은 장소감, 장소성, 장소의 혼을 분리시켰으나 많은 연구가 장소감과 장소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알린다. 본고에서는 장소성이 장소감과 장소정체성을 바탕으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장소성을 바라보았다. 따라서 장소감, 장소정체성, 장소성의 개념을 분리 혹은 통합적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했음을 알리는 바이다.

4) 최강립(2008), 『신도시개발과 장소만들기』, (주)한국학술정보, p.33.

〈 장소성 형성과정 〉



그리고 도시 내에서 이러한 장소성은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는 그 도시답다’라는 ‘동일성’과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별성’으로 구분된다.⁵⁾ 따라서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와는 차별됨과 동시에 그 도시 내에서는 동일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형성된다.

도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지속성이 증가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을 그 무언가가 필요하며,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천연자원,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등과 같은 기초적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현재 혹은 미래를 바라볼 때 지속성이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다.⁶⁾

이러한 도시정체성을 토대로 오늘날 도시의 장소성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현되며 ‘기존 환경이나 대상을 이용하는 활동을 통한 장소성 구현’,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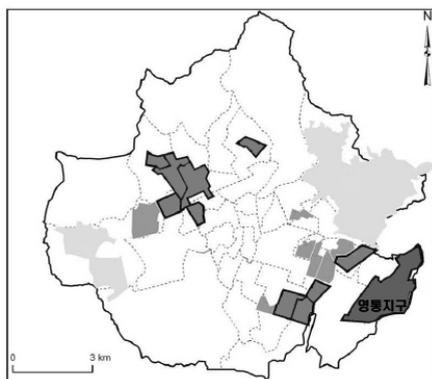
5) 계기석 외(2001),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Vol. 229,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pp.3-4.

6) 계기석 외(2001), p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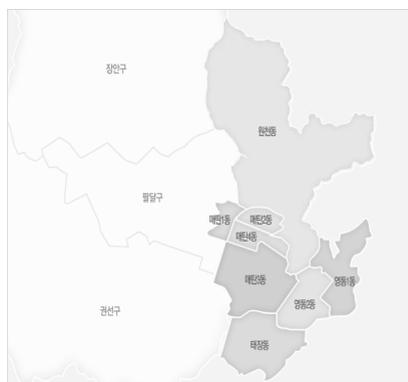
환경과 대상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통한 장소성 구현’,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장소성 구현’, ‘의도적인 계획과 설치를 통한 장소성 구현’이 그것이다.⁷⁾

Ⅲ. 영통동과 도시장소성

영통동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수원시 동남권 성장의 일환으로 1997년에 개발된 신시가지이다. 그러나 수원시청이 동수원에 입지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화성이 있는 수원의 중심은 상징적인 의미의 중심으로 유지되고 영통동이 속해있는 동수원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 그 후 200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수원의 북서권역에 해당하는 화서, 천천, 정자지구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⁹⁾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보면 문화관련사업 및 문화를 통한 장소성 형성은 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성이 속해있는 팔달구를 제외한 생활권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 수원시 택지개발지구 위치도¹⁰⁾



영통동의 위치¹¹⁾

7) 홍경구(2009),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5권 제1호 (통권 243호) 2009. 1, 대한건축학회, p.257.

8) 이양주(2000), 「수원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공간」, 『국토』 Vol. 229, 국토연구원, p.72.

9) 이진원·김세용(2010), p.10.

수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 화성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수원의 도시 이미 지 역시 화성에서 시작한다.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시의 문화산업은 화성을 그 중심에 두고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개발이 덜 되었던 화성의 소재지인 팔달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 곳곳에는 수원의 상징물인 화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성곽을 모티브로 한 건축 디자인과 장식물들이 있지만, 그 곳이 수원의 일부를 알려주는 것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수원시 곳곳에 개발된 정자지구, 광고지구, 영통지구 등의 개발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장소적 특성(장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통동도 그 결과물의 하나로 1993년 말 토지수용 당시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살던 마을의 주민들이 농토 및 택지 등을 팔고 마을을 떠나면서 새롭게 형성된 아파트단지에는 교통의 편리함을 이점으로 외부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개발이전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서울	비율	경기도	비율	인접행 정동	비율	타행정 동	비율	총전입
정자1	581	4.0	4,600	31.6	5,845	40.1	3,541	24.3	14,567
정자2	32	0.6	981	18.8	2,066	39.7	2,127	40.9	5,206
화서2	136	2.3	1,429	23.8	3,187	53.0	1,260	20.9	6,012
울전	524	10.5	2,050	41.0	1,164	23.3	1,256	25.2	4,994
서둔	12	0.3	589	16.2	1,810	49.8	1,220	33.7	3,631
조원	293	4.2	1,900	27.1	2,221	31.7	2,586	37.0	7,000
곡선	213	1.7	2,465	19.5	5,754	45.5	4,208	33.3	12,640
매탄1	45	1.6	415	14.8	1,114	39.7	1,232	43.9	2,806
매탄3	38	0.4	1,465	17.3	4,371	51.5	2,608	30.8	8,482
원천	20	0.8	425	17.3	1,320	53.8	688	28.1	2,453
영통	1,863	11.9	4,995	32.0	4,614	29.6	4,123	26.5	15,595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 재구성

2001년 수원시 택지개발대상 행정동 전입비율¹²⁾

개발전의 문화는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농촌공동체에서 형성된 마을의 축

- 10) 이권원-김세용(2010),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1996~2006년의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 p.10 재구성.
- 11) 영통구청홈페이지 <https://yt.suwon.go.kr>
- 12) 이권원-김세용(2010),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1996~2006년의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 p.13 재구성.

제 및 당산제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 기껏해야 아파트단지와 도로명 등에 남아있는 옛 마을의 명칭과 ‘영통 청명 단오제’만이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발 후 영통에 새롭게 생겨난 도시문화공간 또한 공원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명칭과 장소와의 비연계성, 이용대상에 따른 시설물 및 콘텐츠의 부족, 동일한 시설물의 무분별한 배치로 인한 차별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통동의 장소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를 양쪽으로 나누어 중앙을 가로지르는 12차선 도로와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상권 그리고 많은 공원들로 대변되는 ‘하드웨어’와 ‘영통청명단오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축제와 행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 장소구성요소인 ‘사람’은 2004년 실시된 ‘전국 272개 시·군·구별 평균연령 조사자료’에서 평균연령 29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선정¹³⁾ 된 만큼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장소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영통동의 장소성을 정리하면 <영통동의 장소성 분석>과 같다.

< 영통동의 장소성 분석 >

장소구성 요소	성 격
하드웨어	1. 도로 : 12차선 도로가 아파트 단지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접근성 및 활동성이 높다. 2. 상업공간 : 아파트 단지 중앙에 밀집하여 특이한 구조이나 유해시설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이미지 개선을 필요로 한다. 3. 문화공간 : 문화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잠재적 문화공간은 대부분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원 외 광장, 특화된 거리 등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
소프트웨어	1. 축제 등 지역행사 : ‘영통 청명단오제’가 유일하며 관련콘텐츠의 미형성으로 연관성 및 지속성이 부재하다. 2. 기타문화행사 : 대부분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람	1. 거주민의 특성이 고려되어 현재의 특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영통동의 인구현황에 기초할 때 10-20대, 30-45세의 인구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3. 평균연령 29세로 전국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도시이다. (2004년 기준) 4. 0-19세의 인구가 많아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3) YTN 경제, 「평균연령 가장 낮은 곳, 수원 영통」, 2004년 9월 25일자.

IV. 수원시 영통동 : 도시장소성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앞서 살펴본 도시장소성 구현 방법의 네 가지 중 세 가지 방법인 ‘기존 환경이나 대상을 이용하는 활동을 통한 장소성 구현’, ‘기존 환경과 대상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통한 장소성 구현’, ‘의도적인 계획과 설치를 통한 장소성 구현’을 기준으로 하여 영통동의 장소성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통동은 새로운 도시문화공간을 생성하기에는 이미 공간의 활용이 포화상태이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화공간의 유형이 문화시설이 아닌 잠재적인 공간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문화시설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영통의 대표적인 잠재적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도시문화공간을 통한 도시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람 즉, 거주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앞서 분석한 영통동의 장소성을 토대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기존 환경이나 대상을 이용하는 활동을 통한 장소성 구현 : 그린웨이 (Green way)

기존 환경이나 대상을 이용하는 활동을 통한 장소성 구현은 물리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에 형성된 장소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 적용대상으로 영통동의 대표적인 잠재적 문화공간인 공원을 선택하여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연결고리인 그린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린웨이는 일반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나 호수, 하천을 따라 난 산책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린웨이의 의미를 녹지공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환경친화적이며, 역사와 문화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공간들의 연결¹⁴⁾상태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범주를 넓혔다.

그린웨이는 영통동의 근린공원 7개를 그 대상으로 하며, 7개의 근린공원을 기존에 공원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바탕으로 역사주제공원과 자연주제공원으로 구분하였다.

14) 김기호·문국현(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 pp.24-27.

첫 번째로 7개의 근린공원 중 황골공원, 청명공원, 살구골공원, 벽적공원을 역사주제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황골, 청명, 살구골, 벽적이라는 공원의 이름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옛 마을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황골 공원이 있는 황골마을은 예전에는 황골 또는 황곡이라 불리었으며, 마을 지형이 큰 봉황이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명공원이 있는 청명마을은 청명산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살구골공원이 있는 살구골은 신나무실 동쪽 구석에 살구나무가 많았던 골짜기였던 곳으로 살구나무골 또는 살구골이라 불리었던 마을이다. 벽적공원이 있는 벽적골은 신나무실 남쪽에 있었던 골짜기로 여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가며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간혹 현재의 벽적골에서는 다량의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한다.¹⁵⁾ 네 개의 공원들은 개발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의 이름이 적용된 단지 옆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옛 마을의 특색이나 지명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마을의 이름을 살린 특색있는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주제공원으로 영통중앙공원, 영통사공원, 반달공원이 그에 해당한다. 영통중앙공원은 영통동과 원천동의 경계에 위치하는 영흥공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가지고 있으며, 공원 내 자연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원 옆에 있는 영통도서관과 연계하여 자연학습장을 통한 교육 및 체험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영통사공원은 중앙의 12차선 도로변에 있는 영통사 앞에 마련되어 있어 휴식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사찰을 중심으로 사색과 휴식, 봉사 등의 체험콘텐츠 및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조형분수를 재점검하여 분수 앞 미니음악회 등의 공연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반달공원은 상가밀집구역 뒤편에 조성된 공원으로 여가를 주제로 한 주민 소통의 문화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번영회를 통한 푸드페스티벌 및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동물사랑축제 등 보다 규모 있고 활발한 도시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허홍범 외(2006), pp.275-279.



['그린웨이(Green way)' 대상 공원들의 모습]



황골공원 내 원형 광장



청명공원 내 야외공연장



살구골공원 내 공연장



벽적공원 내 원형광장



영통중앙공원 내 자연학습장



영통사공원 내 조형분수



반달공원 내 원형광장 및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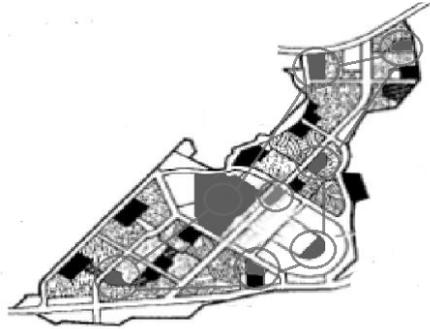


반달공원 내 산책로

마지막으로 그린웨이의 확대 방안으로 장소성 구현 유형 중 ‘의도적인 계획과 설치를 통한 장소성 구현’의 방법을 적용하여 영통동 내 미니중앙광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통은 광장 및 특화된 거리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흩어져 있는 영통의 이목들을 집중시킬 장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통동을 가로지르는 12차선도로 중앙에 광화문광장과 같은 미니중앙광장을 설치하여 영통동의 상징 뿐 아니라 상권으로 인해 삭막해진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영통동의 장소성을 보다 확실히 해주어 거주자는 물론 외부인과의 소통의 역할을 해주는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기대할 수 있다.

〈 영통동 도시문화공간 ‘그린웨이(Green way)’ 조성방안 〉

분류	공원명	주제	도시문화공간 활용방안	보유시설
역사	항공공원	봉황	전시콘텐츠 : 상징물, 벽화 공연콘텐츠 : 소규모 음악회 체험콘텐츠 : 바자회, 농구대회 등	원형광장, 농구장 등
	청명공원	숲	공연콘텐츠 : 숲속 작은음악회, 강연 등 체험콘텐츠 : 산림치료, 뒷산걷기 등	공연장, 산책로 등
	살구골공원	살구 나무	공연콘텐츠 : 소규모 음악회 체험콘텐츠 : 도시 속 과수체험 등	공연장 등
	벽적공원	벽돌	전시콘텐츠 : 벽돌 및 옹기를 사용한 조형물 및 작품전시 체험콘텐츠 : 족구대회 등	족구장 등
자연	영통 중앙공원	자연	체험콘텐츠: 자연학습장, 등산로 등	자연학습장, 등산로 등
	영통사공원	휴식	공연콘텐츠 : 분수대 앞 미니음악회 체험콘텐츠 : 사찰과 연계한 사색프로그램 등	분수대 등
	반달공원	여가	공연콘텐츠 : 소규모 음악회 체험콘텐츠 : 푸드페스티벌, 동물사랑축제 등	분수대, 공연장 등
사람	미니 중앙광장	소통	전시콘텐츠 : 영통의 상징물 조성 체험콘텐츠 : 분수대, 화단 등	분수대, 화단, 상징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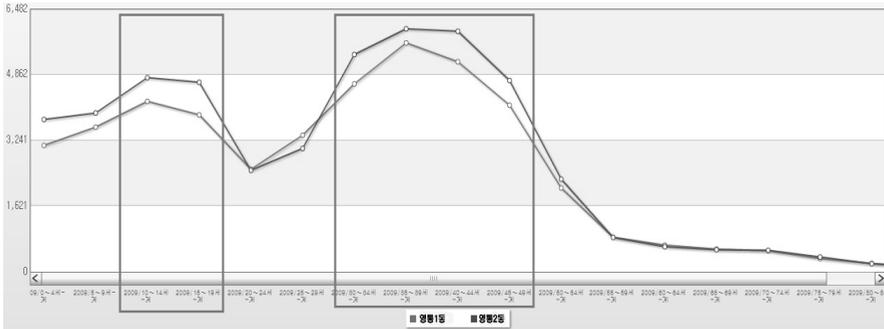


영통동 도시문화공간 ‘그린웨이(Green way)’ 조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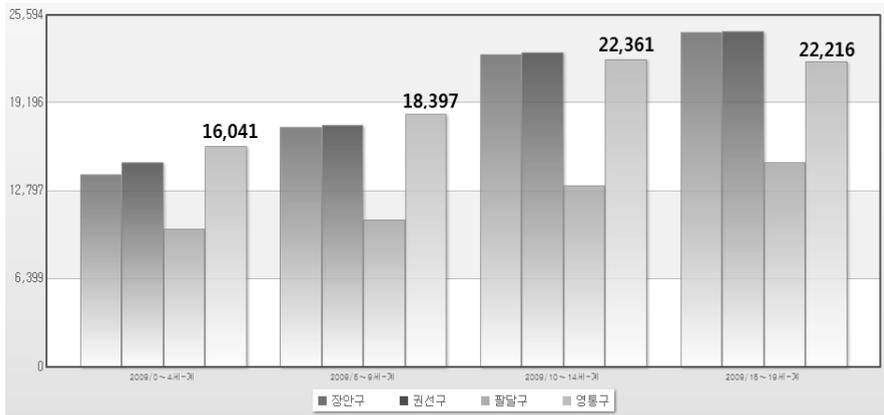
영통동의 ‘그린웨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하나로 연결할 뿐 아니라 7개의 근린공원이 비슷한 형태가 아닌 각기 다른 장소성을 지니므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가능성을 지니며 주민의 참여증대로 이어져 장소의 지속가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앙대로에 조성되는 미니중앙광장은 새롭게 개통되는 영통역, 청명역 등과 함께 영통의 교통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거주민은 물론 외부인에게 영통동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2. 기존 환경과 대상의 물리적 환경변화를 통한 장소성 구현 : 에듀존 (Edu-zone)

영통동은 연령대별 인구현황으로 볼 때 10-20대, 30-45세의 인구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통동 연령별 인구현황, 2009년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통동의 0-19세 인구비중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시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도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30-45세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녀세대인 10-20대가 영통동을 이루는 주요세대로 영통동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콘텐츠와 그에 상응하는 교육관련 콘텐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교육에 대한 열의는 수원시내 다른 구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통동 연령별 인구현황, 2009년 기준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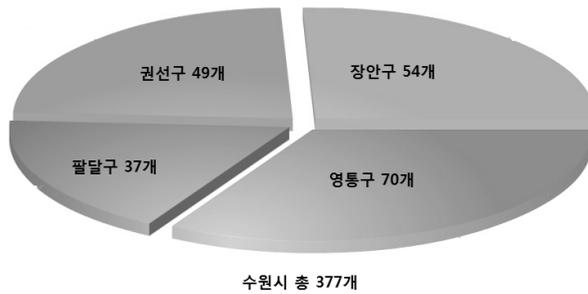


5~19세 구별 연령별 인구현황¹⁷⁾

실제로 ‘수원시 학교총개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시 총377개(초,중,고 등)의 학교 중 20%이상이 영통구에 있으며, 특히 영통동 내에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IT산업 특성화교육학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인접해있으며, 중심 상가밀집구역에는 건물들이 학원 간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높은 교육열을 알 수 있다.

16) 수원시 통계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연령별(5세계급) 및 성별 인구(구동별) 재구성.

17) 수원시 통계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연령별(5세계급) 및 성별 인구(구동별) 재구성.



수원시 학교총개황, 2010년 기준¹⁸⁾

위와 같은 현황을 통해 영통동 내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이 보다 많이 필요하며, 놀이와 휴식은 물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육콘텐츠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놀이공간의 창출에 앞서 기존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되 물리적인 환경변화를 통한 장소성 구현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교육 공간인 에듀존(Edu-zone)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영통동에는 14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이용대상에 대한 고려는 물론 공원 내 콘텐츠 부족으로 동네 놀이터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에듀존(Edu-zone)으로 지정하여 기존 놀이터는 물론 다른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과 차별화되는 장소성을 형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놀이 및 교육 공간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에듀존(Edu-zone)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이다. 영통동에 조성된 기존의 어린이공원은 다른 공원(근린공원 또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디자인의 입구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판 역시 공원명을 제외하고는 이용안내문을 나열한 형식이어서 장소적 구분과 이용대상이 명확치 않다. 따라서 동일한 표시와 표지판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은 주변의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그 목적성을 뚜렷이 하며, 이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장소의 정확한 인지와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18) 수원시 통계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학교총개황 재구성.



영통동 수정 어린이공원 입구



영통동 벽적공원 입구



영통동 미리내 어린이공원 표지판



영통동 으뜸 어린이공원 표지판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명칭과 내부에 구성되어있는 콘텐츠와의 연관성이다. 영통동에는 17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놀이시설 이외에는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의 어린이공원도 3년전 까지만 해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2009년 제87회 어린이날을 맞아 노후하고 천편일률적이었던 동네 어린이공원을 작은 규모지만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특히 과학, 자연, 이야기, 상상 등의 큰 주제 속에서 그에 맞는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생성하여 그곳만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 강동구 변2동에 있는 ‘별말어린이공원’을 들 수 있다. ‘별말’은 ‘별판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별말어린이공원’에는 11m 높이의 자이언트 나무놀이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자연의 소리, 숨은 동물그림, 통나무 건너기 등의 체험콘텐츠는 물론 주변에 버섯쉼터,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하여 자연을 주제로 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영통동의 보리수 어린이공원



서울시 별말 상상어린이공원

이처럼 영통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들도 에듀존(Edu-zone)이라는 큰 주제아래 놀이와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인 어린이 문화공간이라는 통합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개별적 콘텐츠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 형성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의도적인 계획과 설치를 통한 장소성 구현 : 어린이도시(Child city)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계획과 설치를 통한 장소성 구현은 현재의 시점에서 장소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새로 도출된 장소의 특성 즉,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계획하고 물리적인 실체 혹은 콘텐츠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장소성 구현 방법으로 어린이도시(Child city)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환경과 대상의 물리적인 환경변화를 통한 장소성 구현’ 방법인 에듀존(Edu-zone)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Green way’와 ‘Edu-zone’이 기존에 형성되었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유지, 변형의 방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린이도시(Child city)는 도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통동은 중앙에 상업밀집구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형상이 주거지역과 동떨어짐은 물론 유흥시설과 사립교육시설이 한데 모여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과 도시사인물들이 영통동의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2007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공공디자인사업도 영통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시이미지를 확립하는 일은 시급하게 보인다. 아파트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외벽도 요철로 되어있어¹⁹⁾ 따뜻한 주거공간의 이미지,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미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통동의 중심에 위치한 상가밀집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거리 시설물 및 조각상 등의 설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도시’라는 장소성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특정한 테마를 선정, 거리를 조성하여 그만의 장소성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 그 예로 ‘안산시 최용신 거리’와 ‘부산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등이 있다. ‘안산시 최용신 거리’는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으로 가는 매화길과 샘골길 사이에 조성되어 있으며, 최용신의 안산에서의 삶을 이야기로 표현한 만남, 이쁨, 향함, 안김 등 네 가지의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부산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부산 중구 국민은행 중앙동지점부터 40계단까지 이어진 길을 말하며,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의 판자촌과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파는 장터가 있었던 곳에 부산항을 주제로 한 바닷길과 거리 곳곳에 옛 생활상을 보여주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조성하였다.²¹⁾



안산시 최용신거리 조형물²²⁾



부산광역시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²³⁾

하지만 영통동은 과거의 흔적이 아파트 단지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규모

19) 강진갑(2008)

20) 윤유석(2010), 「허구화된 한 여인의 역사적 복원, 안산 최용신 거리」, 경인일보, 2010.08.11.

21) doopedia 두산백과, 검색어 :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 참고.

22) 연합뉴스 2010.08.06.

23) doopedia 두산백과

아파트 단지 중앙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특화된 거리 조성은 이미지 중복은 물론, 한 가지 이미지를 특정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한 거리를 조성이 아닌 중앙에 위치한 상업밀집구역에 다음의 예와 같은 조형물 및 이미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Mattel México의 옥외광고²⁴⁾



레고의 옥외광고²⁵⁾

첫 번째로, 옥외 조형물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Mattel México의 옥외광고는 초대형 크기의 어린이 사진을 옥교에 설치하여 아이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감을 표현한 장난감 회사의 옥외광고 설치물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조형물 또는 조각상 등을 스토리를 가지고 상업밀집구역에 설치하면 어린이를 위한 도시이미지는 물론 유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레고의 옥외광고는 도로와 이미지를 연결시켜 마치 인도에서 고래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상상을 표현한 옥외광고 설치물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 도시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설치물들을 버스 정류장 옆면 등에 조성함으로써 상업밀집구역의 이미지를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멕시코의 완구회사인 Mattel México의 Hot Wheels 제품 옥외 광고 설치물이다.
출처:<http://mania.jungle.co.kr/ucc/oneshow/view.asp?idx=56&searchtype=&searchtext=&cat=&sorttype=regdate&showcount=16&page=3&reportname>

25) 완구회사인 레고사의 옥외 광고 설치물이다.
출처:<http://www.ad.co.kr/forum/text/show.do?ukey=152379>

V. 맺음말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롭게, 그렇게 빠른 발전과 변화를 꿈꿨던 때가 있었다. 그러한 꿈속에서 도시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무감각하고 무지한 의식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에 담겨져 있던 시간의 흐름과 그것의 증거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애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발전의 목표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위로해본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해외여행의 자유화는 도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역사도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장소에 담겨져 있던 시간의 흔적과 삶의 흔적,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장소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보면서 우리 도시 속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시활성화를 다시금 꿈꾸게 되었고, 그러한 꿈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오늘날의 도시는 역사적 유산 및 유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문화적인 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역사적 산물들을 바탕으로 앞 다투어 문화관련 관광 상품과 그와 연계된 콘텐츠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연결되면서 도시들은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급급하였고, 도시문화공간을 통한 도시활성화의 지속 가능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장소성의 결여라 생각하여,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문화공간 개발에 있어서 장소성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장소성이라 한다. 장소성은 기존의 환경이나 대상을 유지하거나 변형시키면서 또는 의도적인 계획이나 설치를 통해 구현된다.

본고의 공간적 범위라 할 수 있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은 이러한 장소성 구현이 모두 적용 가능한 장소이다. 영통동은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급속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지만, 기록된 개발 이전의 역사적 흔적과 자연 환경적 특징을 기반으로 또는 현재 그 장소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거주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장소성의 형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영통동은 이미 꾸준한 개발로 인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형성할 잉여공

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된 영통동의 문화공간을 토대로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고, 영통동의 대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문화공간의 형성과 인구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제안하였다.

최근 도시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고유 자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도시들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도시문화공간이 개발될 거라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개발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장소성의 고려가 필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그것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소성이 개별 도시에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특성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사례인 영통동의 장소성이 반드시 타 도시의 장소성 형성과정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문화공간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소성이 기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보여준 장소성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적용 가능성은 차후 도시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문화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또한 화성관련 문화콘텐츠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수원지역의 문화콘텐츠 연구에 있어 기존의 주요 연구 대상과 달리 주거밀집지역의 문화공간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김기호·문국현,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 2006.
- 백선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주)한국학술정보, 2005.
- 최강림, 『신도시개발과 장소만들기』, (주)한국학술정보, 2008.
- 허홍범 외,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 계기석 외,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Vol. 2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 안영규,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활성화 성공사례」, 『문화산업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08.
- 이건원·김세용,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1996~2006년의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제45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997년 10월호(통권9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 홍경구,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약전 골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5권 제1호(통권 243호), 대한건축학회, 2009.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강진갑, 「수원시 영통동 ‘성냥갑’ 아파트에 갇혀버린 실개천… 황금들녘」, 2008. 09. 19.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윤유석, 「허구화된 한 여인의 역사적 복원, 안산 최용신 거리」, 2010. 08. 11.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영통구청홈페이지 <https://yt.suwon.go.kr>
- 수원시 통계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인터넷사전 www.doopedia.co.kr
- 디자인 정글 <http://mania.jungle.co.kr>
- 애드와플 <http://www.ad.co.kr/>

국문요약

최근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도시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및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은 각 도시의 고유한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보다는 성공한 도시들의 문화공간의 형태와 콘텐츠들을 벤치마킹하는데 급급하여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기본 개념이 거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인을 통한 도시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를 고려한 도시문화공간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의 역사·문화·자연적 자원을 통한 장소성 형성은 물론 현재적 시점에서 그 장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장소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정리 및 요소분석 그리고 장소성 구현 방식을 기준으로 본고의 공간적 범위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장소성 도출 및 도출된 장소성을 기반으로 도시문화공간의 적용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장소성 도출 및 활용 방안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문화공간을 개발함에 있어서 장소성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도시문화공간의 개발에 있어서 장소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문화공간 및 관련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주제어 : 장소, 장소성, 도시활성화, 도시문화공간, 수원시, 영통동

Abstract

City Cultural Space's the placeness and the
utilization

- A case study of Yeongtong dong -

Jung, Da Mi

Recently, as the view of the city is changed an economic perspective to cultural outlook, the contents using the city's history, cultural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But, most of the cities are depressing the substantiality of the activation of the city in a rush to benchmark the cultural contents of the cities succeed, rather than the systematic research and analysis about the resources, which each city is characteristic.

So, this study assigns the cause of the problem of this phenomenon to lack of placeness, and suggests the placeness' importance, necessity and applicability that 'the city cultural space contents' is developed for the activation of the city.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basic concept of the city is staring from the residence, the city cultural space is developed for the residents than the outsider or visitors.

To do that, the placeness is formed through not only the city's history, 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formed as time passes but also the characteristic of the dwellers at this point.

After analyzing the concept and the elements of the place and the placeness, this study draws Yeongtong dong's placeness by the



placeness' constructing and suggests its utilization.

This is only an instance for suggesting the placeness' need, importance, and using possibility in making the development of the city cultural space.

Bu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s used to develop the city cultural space and related contents.

Key words : place, placeness, activation of the city, city cultural space,
Suwon, Yeongtong dong

수원시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재구성 방안 연구

신세계상업사박물관장

배봉균

- I. 서론
- II. 수원시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및 과제
- III. 문화예술 인식의 변화
- IV.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 V. 문화예술 공간의 재구성
- VI. 결론

I. 서론

2천년 대에 들어오면서 주5일제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 의식 고취 및 현장체험 학습을 중시하는 현행 교육제도와 맞물려 문화체험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고, 문화계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과 행사가 예전에 비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국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려는 행동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교육 기관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창의활동 강화에 따른 체험학습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도 각종 문화시설을 찾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

각 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

업도 적극적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회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정부의 문화공간의 증결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수원시도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문화도시 및 인문학도시로의 선언과 함께 '사람 향기 나는 문화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¹⁾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과 재단 설립 및 문화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계획 중이다.²⁾

이에 본고에서는 1장에서 수원시가 현재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의 현황과 시설별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및 신설되는 문화기반시설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적, 운영적, 공간적 변화를 주제별로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틀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문화기반시설이 그 동안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과 향후 건립 예정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적정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축의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가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축을 통해 수원 시민의 문화향유도를 높일 수 있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수원시는 '문화도시' 로서의 도약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진단과 함께 수원시의 향후 문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문화도시 TF팀' 을 발족하였다. 아울러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유형별로 연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원발전연구원, 「문화도시수원 문화발전계획 문화도시 TF보고서」, 2011
 (2) 수원시의회, 「수원시 예술관련 공간의 활용 및 신규조성방안연구」, 2011
 (3) 수원발전연구원, 「수원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1
 (4)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수원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2012
 (5) 아주대산학협력단,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종합 건립계획」, 2012.11월 예정

2)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는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공포하였고, 2012년에는 수원문화재단을 출범하였다. 문화기반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체험관 등이 연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그 현황은 4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II. 수원시 문화시설의 현황 및 과제

수원시는 경기도청이 소재한 관계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수원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조항에 보이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으로 분류된다.³⁾ 본고에서는 수원시가 직영하는 문화시설 중에서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예정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원시에 건립되었으면 하는 문화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및 운영 주체(2012년 10월 현재)

(1) 박물관

① 박물관 사업소

- 수원박물관(2008, 수원역사박물관, 사운이종학사료관, 한국서예박물관)
- 화성박물관(2008)

(2) 미술관⁴⁾

① 수원미술전시관(1999) : 수원미술협의회 위탁관리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4) 수원시에는 현재 공사립을 막론하고 등록 미술관은 없는 상태이고, 수원미술전시관이 미술관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 어린이미술체험관(동수원 분관, 2008)
-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북수원 분관, 2011)

② 갤러리

- 장안구민회관 노송 갤러리 : 수원시시설공단 위탁관리
- 가족여성회관 해피 갤러리 : 수원 여성단체 협의회 위탁관리
- 청소년문화센터 전시실 : 수원 청소년육성재단 위탁관리

(3) 공연장

- ① 수원시민회관(1970) : 수원문화원 위탁관리
- ② 제1, 2 야외음악당(1995, 2004) : 수원문화재단 위탁관리
- ③ 청소년 문화센터(1992, 온누리 아트홀/은하수홀) : 수원 청소년육성재단 위탁관리
- ④ 장안구민회관 한누리 아트홀(2006) : 수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 ⑤ 수원 월드컵광장 상설무대(2006) : 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 도서관

- ① 도서관 사업소
 - 팔달구 : 중앙도서관(1980), 선경도서관(1995)
 - 권선구 :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2006), 지혜샘 도서관(2005), 희망샘 도서관(2006)
 - 장안구 :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2006), 슬기샘 도서관(2005), 햇살도서관(2006)
 - 영통구 : 영통도서관(1999), 한아름 도서관(2000), 바른샘 도서관(2005), 태장마루 도서관(2011)
- ② 주민자치센터 : 새마을 문고(47개)

2. 문화기반시설별 과제

(1) 박물관

- ① 신설박물관 활용 문제 : 광고박물관
 - 수원역사박물관 내 기증 유물 이관에 따른 기증 전문박물관으로 운영

- ② 수원역사박물관 내 서예박물관과의 정체성 논란
 - 기존 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될 광고박물관의 전시유물 성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서예박물관 별도 독립 필요
- ③ 기존 유물 이전에 따른 수원역사박물관 공간 재구성 및 새로운 전시체계 수립
 - 계단식 강의장 신설 및 기획전시실 확대
 - 수원 역사뿐만 아니라 수원부 시절의 오산, 화성 역사도 함께 언급
- ④ 박물관 수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역할 재조정
 - 박물관 내 동일 업무 인력의 통폐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전문 박물관장제 도입 필요(직제 변경이 요구됨)
- ⑤ 수원역사박물관 내 3천평 부지 활용 계획 수립
 - 수원 시사 관리에 따른 [공문서 기록관] 건립 필요
 - 박물관의 기능 중 교육 기능 강화에 따른 [교육관] 확대 필요

(2) 미술관

- ① 수원시에는 2012년 현재 등록 미술관은 없으며, 수원미술전시관이 이를 대행하고 있음
- ② 수원시미술전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 큐레이터가 없고, 기획전시보다는 대관 용도로만 이용
- ③ 수원미술전시관 운영 현황
 - 소장품은 없지만, 일반 미술관 역할과 같이 기획전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수장고 공간이 없어 화성박물관 수장고를 임시로 빌려 쓰고 있음
 - 기획전 1년에 2회 개최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는 연 1회, 미협 주관 기획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대관 위주로 운영
 - 수원미술전시관의 분관 형태로 어린이미술체험관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 및 인력 문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미흡
 - 2013년 7월에 수원문화재단으로 위탁이 이관될 예정

(3) 공연장

① 대관 위주의 공연장 운영⁵⁾

- 수원시민회관 : 순수예술공연보다는 민간단체의 위생교육 및 어린이집 학예회 등 대관 위주
- 한누리 아트홀 : 어린이 뮤지컬 및 대관 위주(73%)
- 제2야외음악당 : 장안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51%)가 주류를 이룸

② 수원시 총 공연장 좌석수는 3,336석으로 고양시 아람누리(3,636), 성남아트센터(3,176) 등 1개 공연장 좌석 수에 불과

③ 인구 천 명당 객석수도 수원의 경우 3석으로 전국 평균 3.2석에도 못 미침

④ 대규모 음악회를 공연할 수 있는 700석 이상 공연장은 1곳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수원시 직영 시설이 아닌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임

⑤ 무대 규모 및 시설 낙후에 따른 대규모 공연 및 질 좋은 공연은 기대하기 어려움

⑥ 무대 깊이 및 폭 등이 넓지 않은 무대시스템으로 다양한 장르 공연에는 무리가 따름

⑦ 오케스트라 비트가 있는 온누리홀 경우도 면적이 작아 50인 이상 들어갈 수 없음

(4) 도서관

①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 운영 발달로 도서관 문화 인식이 부족하고 왜곡됨

- 공부방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필요
- 차후 건립되는 도서관의 경우도 열람실 위주이며, 서고 및 자료실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게 공간 구성이 이루어짐
- 서고 부족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서가를 접할 수 없음 : 시민들은 서고 중 일부만 보고 있으며 그것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 전부라고 인식

② 도서관 증설에 따른 전문 사서 인원 부족 및 사서의 기본 역할이 미흡함

-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서고에 있는 도서는 검색 도서로 분류되어, 이용자

5) 수원시의회, 『수원시 예술관련 공간의 활용 및 신규 조성방안 연구』, 121~125쪽, 2012

들이 검색 도서 대여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 서고로 직접 가서 대여하고 있어 전문인력 운영에 미흡함

- ③ 서고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으로 서고 증축 문제가 있음
 - 장차 늘어날 도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고 하중을 고려한 설계 반영
-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장려 프로그램 개발 저조하고 참여도가 떨어짐
 - 중고생은 학업 때문에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인원이 적음
- ⑤ 새마을문고의 이원적 운영에 따라 도서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 운영 주체 : 새마을운동 협의회
 - 운영 방식 : 새마을운동 협의회 소속 자원 봉사자
 - 운영 시간 : 하루 2~3시간 정도
 - 운영 예산 :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책정 후 동사무소별 일괄 균등 분배
 - 도서관사업소와 협의 부족
 - 이원적인 운영으로 전문성 결여 및 체계적인 예산 집행 어려움

Ⅲ. 문화예술 인식의 변화

1. 사회적 변화

기존에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은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추상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직접 참여보다는 관람 위주의 방식이었다. 문화예술이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지만 어딘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벽이 있어, 감히 내가 문화예술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즉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가들의 고유영역으로 생각하여, 문화예술가들이 대중을 소외시킨 점도 있지만 대중 스스로가 문화예술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컸었다.⁶⁾

6) 김승현, 『문화, 경연을 만나다』, 23쪽, 김영사, 2009

즉, 상당수 시민들은 아직도 문화가 낯설거나 어려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삶의 질 개선 및 자기 정체성 확립 등의 여건 변화로 더 이상 문화는 전문가 영역이 아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도 문화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나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등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은 예전에 비해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를 체험하거나 향유하는 관람객의 숫자나 기회는 예전에 비해 상당수 증가했으며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벽과 경계심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시민들은 문화 소비자에 머무르는 대신에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참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⁷⁾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변화

공립 문화기반시설은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문화 기관으로, 1995년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부각·지방문화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등의 목적을 갖고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적극적이었다.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314개이며 이 중 박물관은 282개, 미술관은 32개이다. 282개 공립박물관 중 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공립박물관은 274개로, 전체 공

7) 김승현, 앞의 책, 24쪽, 2009

립박물관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 구성과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지치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출현이 주요 요인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부각,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목적을 갖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외방객에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진면목을 알게 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이다.

[공립박물관 현황, 2010년⁸⁾]

60년대이전	60년대	70	80	90	2000년 이후	계
1	0	2	5	22	252	282

수원은 현재 100만이 넘는 수부도시이며, 역사적으로도 수원화성을 비롯하여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수원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수원박물관과 화성박물관을 개관하였고, 수원화성 문화제를 비롯하여 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도서관 건립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향유하는 관람객의 숫자나 기회는 예전에 비해 분명히 늘어났지만, 수원시의 인구대비로 보면 그리 많지가 않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수원시의 문화행정은 관 위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공감 및 참여도 결여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0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조사한 경기도 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수원시의 문화 균형도는 우수형으로 평가되었으나⁹⁾ 수원시가 보유한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향유도는 높지 않다.¹⁰⁾

이제 수원은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화도시 수원’과 ‘인문학도시’ 표방하였다.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형 이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수원은 문화조례를 제정에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1

9) 수원발전연구센터, 『수원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43쪽, 2011

10) 수원발전연구센터, 앞의 책, 59쪽, 2011

따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각종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자발적인 주민참여문화가 각 지역마다 조성되어야 한다.

3. 운영적 변화

21세기 들어 문화기반시설 건립이 지방에서 본격화되었지만, 하나의 유행처럼 건립이 추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지방재정 자립도는 고려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여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건립과정과 개관 후 운영 및 인력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신축 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건축 및 내부 전시공사에 상당수 예산이 배정되어 반면 문화기반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예산 책정에는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신축 문화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작업이 진행된다. 물론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되기는 하지만 시간적·인적 구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만다. 문화기반시설 계획부터 개관까지는 해당 부서 공무원과 외부 시공업체가 맡아서 진행함으로써 전문성 부재 및 시공업체와의 결탁 등 부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문화기반시설을 이끌어갈 관장과 전문인력들은 개관 직전에 임용되기 때문에 향후 본인들이 운영해야 할 문화기반시설의 선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만, 적어도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관 건립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에는 전문가들의 영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건립과정도 문제지만 개관 이후는 더욱 심각하다. 하나의 문화기반시설을 개관할 때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다가도, 개관 이후의 예산을 보면 시설 운영 및 인건비에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을 신축할 때는 지방 재정 자립도나 향후 운영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수십억·수백억원을 집행하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문화기반시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최소한으로 책정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물관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자. 박물관은 크게 유물 수집 및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영입하여야 하나, 상당수 시립박물관의 경우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관장 이하 1~2명의 학예 연구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도 인원으로는 박물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연구 및 유물 구입 예산 등이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관람객은 똑 같은 유물을 관람하게 되고, 박물관 특성에 맞는 기획전 개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관람객이 박물관을 외면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박물관은 지속적인 유물 구입을 통해 망실 내지 훼손되는 유물을 보존,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전시를 하게 된다. 박물관 운영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박물관의 순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악순환이 계속되어 어느덧 박물관은 죽어가게 된다.

문화기반시설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향후 공공문화시설이 지역문화의 중심이며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인적 구조 개선과 재정 안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공간적 변화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 구성과 인적 운영을 하였다. 박물관의 주요 공간은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교육실, 강당, 영상실 등으로 구성된다. 미술관의 경우도 박물관과 대동소이하다. 도서관은 열람실, 자료실, 서고 등으로 구성되었고 공연장은 공연실 위주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계층 수요 및 문화 매니아 양성, 해당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등을 이유로 여러 장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및 신축되는 문화기반시설의 공간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박물관에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해당 전시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도서를 비치한 도서관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공연장에서도 공연실은 물론 갤러리 공간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구민회관)의 경우에도 공연장 및 전시실 공간을 복합 구성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시민들의 문화인식 및 행동적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공간적

변화에 정책적인 배려 및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살려 박물관의 경우에는 소장 도서 및 전공 도서, 수원시사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미술관 및 공연장은 문화 매니아들을 위한 연습실 및 모임 공간, 도서관은 간단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실 공간을 마련하면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문화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

IV.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박물관

(1) 박물관의 환경변화

- ① 박물관은 더 이상 여가의 대상이 아닌, 자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② 박물관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전략적 교육이 대두됨
- ③ 박물관은 여가산업, 실버산업과의 경쟁 속에서 박물관의 적극적인 운영전략 및 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④ 급속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신세대 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⑤ 국민의 문화적 수요 증대에 따른 박물관 양적 증가에 비해 박물관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박물관의 부정적 경험 제공
- ⑥ 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미비 등에 따른 박물관 전시보완 소홀 및 시설의 낙후성이 우려됨
- ⑦ 신뢰도 및 정확성 있는 관람객 지표 개발 소홀로 인한 관람객의 욕구, 동기, 기대감, 만족 및 불만족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시가 기획됨
- ⑧ 박물관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교육기관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박물관 관람의 내실화 및 차세대 관람객의 확충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2) 박물관 운영방안

① 경영

- 대표 박물관 선정을 통한 박물관 업무 총괄 및 중앙 박물관 기능 부여
- 박물관 운영 위원회 활성화 및 통합 운영
- 학예 연구원 중심의 박물관 운영
- 기간별, 주제별 박물관 교육 성과를 종합한 박물관 문화교육제 개최
- 박물관 관람객 조사 정례화 및 관람객 개발
- 박물관 샵 및 카페테리아 활성화
- 박물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 합리화 계획 수립

② 전시

- 박물관 관람객 성향 분석 및 전시 관람 형태 분석 및 조사를 통한 전시실 개선
 - Ex)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 전시실'
- 낙후된 전시시설 개선을 통한 체험형 박물관 면모 제공
- 수원 소재 박물관 및 골동상가, 유물 소장가와의 교류 확대
-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대학 및 개인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 기획
- 타 지역 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교차 전시
- 최신 연구성과가 반영된 전시주제 선정 및 전시유형 변화 반영

③ 유물 관리 및 수집

- 대표적 문화재 알리기(소장품 특화작업)
-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 통합에 따른 효율화 기대
- 소장 유물 목록 공유(도서관 등) 및 열람 시스템 구축

④ 교육

- 박물관과 공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교교육과 방과 후 교육 담당
-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교육 활성화
- 주말 가족단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박물관 내 주제별 동호회원 육성 및 활동 공간 마련

⑤ 홍보 및 서비스

- 대중 서비스 접수 지표화

- 박물관 홈페이지 활성화 : 박물관 정보화의 확대
- 대상별, 계층별 마케팅 계획 수립 및 대외교류 강화
- 관람객 서비스 개선 및 온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2. 미술관

- ① 미술시장 활성화 : 아트 페어 개최
 - 미술작품의 거래 확산 및 시민들의 미술 문화 보급
- ② 거점별 레지던시 활용
 - 아마추어 동아리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문화 보급
- ③ 아름다운 공공기관 만들기 사업
 - 현재 미협에서 수원시청, 수원문화재단 내 전시된 예술 작품 관리
 - 공공기관 내 예술 작품 확대 적용
- ④ 미술관 전반을 관장하는 미술관팀 신설
 - 큐레이터 중심의 운영 방식 적용
- ⑤ 단계별,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힐링캠프 : 장애우 및 다문화 가정, 결손가정 등 문화 소외 계층
 - 미술문화학교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매니아 양성
 - 공교육과의 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 전문가와 매니아와의 만남 : 초급, 중급, 상급 과정 운영

3. 공연장

(1) 공연장의 환경 변화

- ① 공연장 구성의 다변화로 인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 활동을 소화할 수 있음
 - 공연 위주의 시설 외에도 갤러리 등 복합 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대시설 및 서비스공간과의 결합
- ② 공간의 대형화 및 전문화된 무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 좋은 공연문화를 제공함

- 오페라와 같은 대형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본 여건 마련
- ③ 공연 내실화를 위해 운영주체 및 공연기획 등 전문가가 공연 기획을 주도해야 함
 - 대관 위주의 공연 기획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공연 기획으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및 장르별 전문화 도입

(2) 공연 전문 인력 운영 및 공연 기획

- ① 전문가에 대한 고려
 - 공간 특성에 맞는 각 장르 전문가들의 활동 메카로 만들어야 함
 - 예술시설간 네트워크 강화 : 각 영역간 의사소통 강화 및 전문가들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연 기획자 채용 및 그에 따른 전문적 계획 수립
- ② 아마추어와 전문가(수원 예술단)을 활용한 공연기획
 - 주제는 같지만 표현하는 양상이 다른 공연 : 4개 정도 레퍼토리 공연 기획
 - 지역간 연계하여 순회공연
- ③ 기획공연과 대관 비율 산정 필요

(3) 기존 공연장 활용 방안

- ① 수원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방안
 -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발표공간으로 활용
- ② 공연장별 특성화 운영
 - 제1야외음악당 : 클래식 전문공연장, 고급공연과 대형공연 전문
 - 제2야외음악당 :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시민 발표의 장, 고정좌석 마련
 - 온누리, 한누리, 수원시민회관 : 연습+발표공간

4. 도서관

- ① 사서의 기본 역할 수행에 따른 올바른 도서관 문화 정착이 필요함
 - 참고 서비스(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 도서 인구 레벨 업 작업
- ②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대치 상승으로 인한 도서관 역할을 재구

성해야 함

- 북 아트 프로그램 시행 : 기초 심화 자원봉사 등 체계적인 교육 방식 운영
 - 도서 치료 : 소외계층 대상
 - 도서관과 함께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융합
 -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노년층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주제에 맞는 작은 전시 개최
 -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③ 새마을 문고 운영 개선을 통한 도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야 함
- 새마을 문고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조직 및 예산 통합 필요
 - 새마을 문고에 대한 도서 행정 및 예산은 도서관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관리는 주민자치센터가 주관
- ④ 도서관 DB 프로그램의 공유 및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서관 DB는 세계적으로 공유됨
 - 도서관사업소 이외에 소속되는 도서관 업무도 반드시 도서관사업소와 협의 필요
 - 전문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도서 운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문화기관별로 소장한 자료 정보를 공유
 - 수원시 역사관리 및 정보 DB 작업

V. 문화예술 공간의 재구성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절에는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수적 증가와 대형화를 꾀한 적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필요와 요구가 무시된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외면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재정 악화에도 일조를 하여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낙인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수원시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인식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

당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원시의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기반시설간의 기본 원칙이 수립되어 지켜져야 한다.

1. 수원시 문화정책과 문화기반시설간의 기본 원칙

(1) 문화 매니아 양성

- ① 문화 예술 소비자의 변화로 인한 문화 전문가와 문화 매니아와의 커뮤니티 형성 및 역할 분담이 요구됨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 경영과 문화산업적 문화예술(대중 소비예술) 과의 연계가 필요함
- ②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 개발을 통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해체된 지역공동체의 부활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을 공고히 해야 함
- ③ 지식 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인적 자원이 문화생산에의 참여자로서 창의성 계발 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④ 국민의 여가생활 변화 및 새로운 문화복지대상 출현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및 자아실현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제도 및 활동 영역을 만들어 주어야 함

(2) 문화예술 공간 조성

- ① 문화예술과 지역,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 획일적인 지역 안배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확충보다는 문화예술기관의 공간적,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맞는 곳에 배치해야 함
 - 수원천을 따라 명소 만들기, 수원화성을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등
 - 단 지역민의 편의 및 교통 등의 요소가 중요한 도서관은 제외
- ② 전문박물관 건립 및 문화 예술 멀티관의 조성이 필요함
 - 문화예술 장르별로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지방 정부 재정 및 인력 수급, 운영 등의 문제로 어려움
 - 수원의 문화예술을 한곳에 모아 주제별 전시관을 구성하여 수원의 문화 예술 역량을 보여주고, 문화예술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표출
 - 신축하는 공연장은 공연시설과 함께 수원의 문화예술 전반을 보여주는 멀티 공간으로 구성하여 문화예술 장르별(미술, 음악, 문학, 서예 등) 공간 마련
- ③ 문화예술공간 건립 일정의 현실화가 요구됨

- 공간 조성의 목적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및 전문인력 확충 후 건축 등 하드웨어 조성 일정 수립 필요
- ④ 공간 면적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공간 배분의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차후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자립도 문제
 - 해당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 및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통합적 운영

- ① 운영 주체자와 기반 시설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 되어야 함
 - 문화예술 전문가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문화예술 향유도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유도
 - 시민들이 문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시스템 구축 및 활동 공간 마련
- ② 문화예술 멤버십을 구성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인의 자세가 요구됨
 - 문화예술계의 외연 확대 및 동질감 유지
 - 문화예술 종사자 및 문화 시민들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예술계의 본질적 활동 보장
- ③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인적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건립 목적에 맞는 유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제고 및 수익 창출
 - 동일 업무인력의 통합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최소 인력 구성
- ④ 문화예술 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해 수원시 전역의 문화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산된 문화정보로 인한 문화향유자의 참여도 저하
 - 수원시의 올바른 문화 역량 인식 및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2. 문화기반시설 건립 계획

수원시는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지역간 문화공간 균형 및 택지 개발 조성에 따른 개발사의 문화기반시설 기부 채납 등에 따라 예전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와 다양한 주제의 문화시설을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개발사간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MOU가 체결되면서 광고박물관 및 수원미술관, 수원 SK 아트리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2012년 8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원 화성이 위치한 구도심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삼는 발전전략으로 행궁광장 북쪽 사유지에 미술관, 신평동에 나혜석 기념관, 수원천변에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물체험관, 장안동 일원에 발효 토속음식을 체험하는 전통식생활문화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였다.¹¹⁾

2012년 10월 현재 수원시에서 건립되었거나 건립 계획이 확정된 문화기반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박물관 : 광고박물관, 효예절관
- ② 미술관 : 수원미술관, 나혜석 기념관
- ③ 공연장 : 문화복합예술공간(SK아트리움)
- ④ 도서관 : 조원동, 광고지구, 호매실지구, 우만동, 천천동, 세류동
- ⑤ 체험관 : 기후변화홍보관, 물체험관, 음식문화체험관

이 외에도 서울대 농대 부지, 농촌진흥청, 연초제조창, SK 수원공장 등 문화기반시설로서 개발될 부지가 있어 수원시의 문화기반시설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국립지도박물관 및 공립(경기 문화의 전당, 경기도평생교육관 도서관, 경기도 교육청 도서관), 대학(경기대박물관, 아주대박물관)의 문화기반시설을 합하면 수원시의 문화기반시설은 1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시·군에 비해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결코 수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¹²⁾

11) 2012.8.9일자 수원신문 인터넷판.

12) 다만 타 시도에 비해 사립으로 운영되는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문제는 수원시가 문화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사립 문화기반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 문화공간의 재편성

수원시의 문화공간 구성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직선형 인문학 축과 도서관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환형 생활밀착형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선형 인문학 축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거리 조성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문학거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화성행궁에서 수원화성박물관, 연무대, 수원박물관, 광고 역사공원 내 광고역사박물관을 잇는 약 3km 구간이다.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및 신설 문화기반시설이 들어설 위치를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되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도서관과 공연장 및 체험관은 행정구역상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및 신설되는 수원시 문화기반시설의 행정구역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행정구역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는 계획 중인 문화기반시설]

구분/행정구역	박물관	미술관/갤러리	공연장	도서관	체험관	총 계
권 선 구	0	0	0	2(3)	(1)	6
영 통 구	1(1)	1(1)	2	2(2)	0	10
장 안 구	0	2	2(1)	2(1)		8
팔 달 구	1	2(2)	2	2	(2)	11

상기 [표1]을 보면 권선구는 수원의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기존의 도서관 시설을 제외하면 다른 문화기반시설은 현재 전무하다. 이와 같이 지역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문화기반시설간의 정체성 독립 및 주제의 중복성, 운영상의 효율성, 중복 투자 개선 등에 인한 문화기반 시설별 통폐합 및 공간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수원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성 및 통폐합과 함께 신설 필요성이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원의 문화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박물관

① 광고박물관

수원박물관이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세 개의 주제관(수원역사관/사운이중학사료관, 서예박물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동안 유물 성격상 서로 연계

성이 부족하여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었다. 때마침 광고택지구 구 개발에 따라 경기개발공사에서 광고지구에 문화시설을 기부 채납하게 되어 광고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광고박물관은 초기에 광고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변천사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기증 유물의 성격을 살리기 위한 기증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신설된 광고박물관에 근당 양택동(서예), 사운 이종학(일제 침략 및 지도), 소정 민관식(한국 정치/교육/체육) 등의 기증 유물을 위주로 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증 유물 중에서 이종학 및 민관식 선생의 유물은 한국 근현대사를 알려주는 유물로 전시실 주제 전개상 무리가 없지만, 서예 관련 유물이 함께 전시되면 전시 주제가 동떨어져 기존의 수원박물관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기증 유물 중 근당 양택동 선생이 기증한 서예 관련 유물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한국 서예사를 조명하도록 해야 한다.

- 광고박물관은 사운 이종학 선생 및 소정 민관식 선생의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전문박물관으로 구성
- 이종학 선생의 기증유물은 일제침략 및 한국 지도의 변천사, 민관식 선생의 기증유물은 한국 정치와 교육 및 체육사실로 구성

② 효예절관

효예절관은 신축보다는 기존 화성홍보관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에 지지대고개에 위치한 효행기념관이 수원화성과의 연계성 부족 및 교통 불편으로 철수하고 현재 수원미술전시관의 분관인 수원어린이미술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화성과 인접한 공간에 효예절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화성홍보관의 경우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라 전시주제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화성홍보관에는 수원문화재단이 입주해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건물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홍보관의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 화성홍보관 내의 수원문화재단은 신축 수원미술관으로 이전하여 조직을 한 건물에 통합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있던 공간을 효예절관으로 구성

- 효예절관은 정조의 효사상과 연계한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효문화체험 및 교육에 중점을 둬으로써 효원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함
- 화성홍보관에는 화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관계로 화성홍보관 내용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편하여 화성의 세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

③ 서예박물관

수원박물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서예박물관은 수원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기존 유물을 집중적으로 전시할 광고박물관으로의 이전 계획이 잡혀있다. 서예유물이 광고박물관과 성격이 맞지 않음은 앞서 광고박물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마침 수원미술관이 건립되어 수원미술전시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미술전시관은 현재도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전시시설 면에서 서예 유물을 전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수장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이는 서예박물관으로의 리뉴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서예박물관을 수원미술전시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역 미술인들과 수원 박물관 및 기증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예박물관의 독립은 기존 문화시설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서예 본연의 정체성을 찾게 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예박물관의 성격은 서예가 우리나라 회화 중에서 추상화에 해당되고 전문 인력도 일반 박물관의 큐레이터와는 다르며, 오히려 미술관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정식 박물관(미술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전통문화 교육에 일조를 담당함

(2) 미술관

① 나혜석 기념관

수원이 낳은 최초의 여성 화가이며, 시대를 앞서간 나혜석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나혜석 생가터(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51번지 일원)에 기념관을 45

역의 예산을 들여 2013년에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나혜석 기념관 건립기본계획」 수립(2012.2) 및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나혜석기념관 건립에 몇 가지 난제와 중복투자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나혜석기념관에 전시할 그림과 관련 유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나혜석이 그린 작품은 수원시에서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유물 일부가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상당수 유물은 구입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로 나혜석기념관과 수원미술 관과의 성격 및 위치 문제이다. 나혜석기념관의 건립계획이 논의될 시점에는 수원에 미술관 건립이 거론되기 전이다. 수원미술관 건립은 2012년 7월 9일에 수원시와 현대산업 개발과의 협약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수원에 미술관이 건립됨에 따라 나혜석기념관 건립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나혜석은 수원이 자랑할 만한 인물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나혜석기념관 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 다만 나혜석기념관에 전시할 유물 확보의 어려움과 수원미술관과의 위치 및 성격 중복에 따른 관람객 분산 및 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독립된 공간보다는 수원미술관 내에 [나혜석실]을 구성하는 것이 수원미술관의 위상 및 나혜석 정신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³⁾ 정부에서도 나혜석기념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수원시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수원미술관 건립계획에 [나혜석실]을 상설로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었으면 한다.

- 개관 이전까지는 유물 수집 및 전시체계 수립 등 전문적인 큐레이터 역할이 필요한 관계로 박물관사업소의 전문인력 투입 필요
- 부지는 예정대로 매입하고, 부지 활용은 전문기획단을 구성하여 추후에 논의토록 함

② 수원미술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과의 협약으로 시는 현재 화성행궁 광장 북측 4800㎡의 부지를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3월 까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규모에 300억 원을 투입해 미술관

13)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서양화가인 [천경자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작품을 상설로 전시 하고 있다.

을 건립할 계획이다.

미술관 건립은 수원시민의 문화적 혜택과 역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수원미술관 건립으로 수원시는 문화진흥법상의 대표적인 3대 문화시설인 박물관, 도서관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수원미술관의 위치가 팔달구청이 들어설 부지에 건립되면 수원화성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벨트 형성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집객 효과,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등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현재 팔달구청 건립이 구체화된 현 시점에서 부지 상호 교환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한 바이다.

미술관 건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술관의 방향 설정 및 운영방안으로, 미술관 건립과정 및 개관 후의 운영방안 중 특기할 만한 사항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 미술관 성격은 수원화성의 성격을 가미한 진경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전통예술실, 현대 회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대미술실, 수원이 사랑하는 화가 및 미술평론가인 나혜석과 오주석실로 구성
- 수원 미술행정 및 기획,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원천 갤러리, 미술체험관 등은 분관 형태로 운영
- 전문 관장 영입을 통한 미술행정 및 기획의 전문화를 꾀함
- 미술관 건립 위원회 설치를 통한 원활한 운영체계 마련 및 일정 관리
- 건축 및 콘텐츠 부문을 총괄하는 아트 디렉터제 운영
- 미술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술작품 구입예산 반영
-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동아리 활성화와 미술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기공간 확충
-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하며, 소관업무는 박물관사업소 내에 미술관 부서

14) 경기도가 신갈에 경기도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벨트로 묶어 관람객 집객 및 다양한 문화 장르 소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를 신설하여 수원시가 직영토록 함

③ 수원천 갤러리

수원천을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수원천 갤러리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전시와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갤러리 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신축하기 보다는 수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보존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한다.¹⁵⁾ 수원천 갤러리는 수원천이 시작하는 광교산에서 세류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곳곳에 설치된 수변무대와 함께 수원천의 생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한다.

(3) 공연장

① 수원 SK 아트리움

수원시는 SK와의 협약을 통해 장안구 정자동 600의 1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4,885㎡의 수원SK 아트리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SK 아트리움 기본구상에 의하면 9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크기의 소공연장 등과 공연연습실, 오케스트라 비트, 분장실, 의상실, 무대지원시설, 안내실, 강독실, 시립합창단 및 시립교향악단 전용공간(연습실, 사무실, 악기실, 휴게실, 지휘자실 등), 음향관련실,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 공연장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제외하고는 없는 수원에 오페라 등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의 건립은 야외음악당 및 대관 공연 밖에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연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구상된 SK 아트리움 공간 구성은 전문 대규모 공연장으로서의 손색이 없으며 다양한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SK 아트리움의 공간 개념은 복합문화공간(커뮤니티공간+공연공간+전시공간+자료공간+휴게공간+교육공간+전문가공간)으로 구성

15)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의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작업을 하였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회 46』, 2011),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2년 6월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서울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하여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연극무대, 갤러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원 SK아트리움이 기부 체납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건립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기부체납시설 건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받아야 함
- 공연장으로서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시설을 인수할 경우 운영 및 예산 문제 발생할 우려가 많음
- 공연장 건축 설계 시 무대 깊이, 폭 등이 반영되어 다양한 장르 공연을 하게 함
- 공공 예술 교습소 역할 부여
- 운영계획의 철저한 사전 수립
- 전문인력의 적합한 배치
- 교육프로그램의 확충
-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레퍼토리 시스템의 도입
- 지역 예술인 쿼터제 시행

② 수원화성 야외무대 공연장

수원화성행궁의 야외광장에 반지하 형태의 야외무대 공연장을 설치하여 무예 24기 실연 공연 및 다양한 전통 공연을 보여주도록 한다. 야외무대 공연장은 야간에도 개장하여 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수원화성행궁 및 공방거리, 전통 재래시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도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호 연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4)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소장 도서 3000권 이상인 경우를 뜻하며, 동네도서관(작은 도서관)은 33㎡6석1000권 이상인 규모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서관의 개수가 주요 국가 평균인 인구 5만 명당 1개로, 수원시의 도서관은 20여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존 도서관 위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① 지역 안배 및 규모를 고려한 공공 도서관 신축

- 신축 확정 도서관 : 세류동, 우만동, 천천동, 광고지구, 호매실지구, 조원동
- 도서관 외의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해당 주제에 맞는 전문 도서를 비치하여 시민들의 정보제공 및 생활문화 거점으로 편의를 제공함

② 작은 도서관 운영

- 신설 전철역, 병원, 복지 시설 등에 설치하여 인문학 도시로의 면모를 보여줌

(5) 체험관

① 기후변화홍보관(권선구청 인근)

- 과학관 형식의 전시관

② 물체험관(수원화성 내 수원천 인근)

- 과학관 형식의 전시관

③ 음식문화체험관(노송지대 인근)

- 박물관 형식의 전시관

④ 조직 및 운영주체

- 기후변화홍보관과 물체험관은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
- 음식문화체험관은 화성 인근에 신축하여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
- 전시관 건립 시 공간 구성, 전시주제 및 전시매체 선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시관 운영주체 인력의 참여

⑤ 운영 기본원칙

- 유료 관람정책 : 입장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한 재정 내실화
- 초·중·고 통합 교과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관람객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단체 관람 안내 및 교육 시행
- 기후변화홍보관 및 물체험관은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동종 전시관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우수 기획전 교체 전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모색
- 음식문화체험관은 슬로우푸드와 궁중음식으로 대별하여 수원화성을 찾

는 관광객에게 한국 음식문화의 진수를 알게 함

(6) 구민회관

수원시의 구민회관은 장안구민회관이 유일하다. 장안구민회관은 공연장과 갤러리를 겸하고 있어 장안구민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팔달구는 비록 구민회관은 없지만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예술 기관과 수원시민회관 등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민회관 건립은 필요치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권선구 및 영통구에 구민회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형평성 안배를 고려하고, 해당공간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문화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구민회관 운영은 해당 지역 문화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문화 발전 계획, 대관 공연 심의 등을 담당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성 및 통폐합과 함께 신설 필요성이 있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수원의 문화축을 재편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직선형 문화축 : 인문학 거리축과 함께 수원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 및 문화예술축
- ② 동심원 문화축 : 수원화성행궁을 중심으로 한 수원화성문화축과 도서관 및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축

이와 같이 재편을 하더라도 여전히 권선구는 여타 구에 비해 문화예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나 권선구에는 향후 개발될 여지가 있는 서울대 농대부지와 농촌진흥청 및 SK 선정직물 부지가 있다. 따라서 권선구가 현재 문화예술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여 지역 안배 차원에서 문화예술 시설을 성급하게 건립할 필요는 없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신축 및 통폐합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수원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존 관리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유물, 유

적 등에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근대화와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할 만한 건물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화유산 보호이다. 더구나 이들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여 지역민이 함께 호흡하고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시민들의 문화향유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의 과제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신축 중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대안과 문화축의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문화도시 수원'을 지향하는 수원시의 문화 발전과 위상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수원시의 문화 행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예술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와 시민, 문화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수원시는 관 주도 시혜적 문화 복지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 보장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 산업 인구의 유도를 통해 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공간구성 파악 및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은 문화도시로의 인식 및 체감이 확대되어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문화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수원시가 표방한 '문화도시 수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가 행정적으로 문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을 마련한다고 해서 시민의 참여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의 역할을 하는 시민들은 '문화도시 수원'의



주체자로서 문화교양 시민으로의 성장 및 문화 전도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 함양 및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소문화운동 전개와 문화 나눔을 통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창출의 기회로 삼아, 하나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 민간의 이러한 활동은 더 나아가 국내외의 민간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를 전파 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세계문화에 동참하여 글로벌 문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고유성은 세계적인 문화로 발돋움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역은 더 이상 문화의 변두리가 아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전문가는 분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기획 및 공연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확산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의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와 내재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도시 수원'은 문화예술의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수원시와 시민 및 문화예술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참고문헌

- 수원발전연구센터, 『문화도시수원 문화발전계획 문화도시 TF보고서』, 2011
수원시의회, 『수원시 예술관련 공간의 활용 및 신규조성방안연구』, 2011
수원발전연구센터, 『수원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1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수원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2012
아주대산학협력단,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종합 건립계획』, 2012.12
김승현, 『문화, 경영을 만나다』, 김영사, 2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1
수원신문 인터넷판 2012.8.9일자
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회 46』, 2011

국문요약

기존에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은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추상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직접 참여보다는 관람 위주의 방식이었으나, 21세기 들어 더 이상 문화 소비자에 머무르는 대신에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변화와 맞물려 지방단체에서도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부각·지방문화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구축문화사업을 통한 고부가치 창출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등의 목적을 갖고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적극적이다. 문화생산자로서의 국민들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구축과 공간 활용 면에서도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체험관 등을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은 유형별, 지역별 안배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도를 높이는데 시의 문화정책과 운영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정도 중요하지만 개관 이후의 효율적인 운영도 건립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을 개관할 때는 비사한 관심을 보이다가도, 개관 이후의 예산을 보면 시설 운영 및 인건비에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참여도를 해결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문화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해당 기관의 순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악순환이 계속되어 어느덧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죽어가게 된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문화기반시설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서민 경제 활성화 내지 예산 긴축이 필요할 때 문화기반시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항상 문화기반시설 등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되어야 하는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을 신축할 때는 지방 재정 자립도나 향후 운영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수십억·수백억 원을 집행하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문화기반시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최소한으로 책정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향후 공립 문화기반시설이 지역문화의 중심이며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인적 구조 개선과 재정 안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문화 공간의 재편성도 고려할 사항이다. 수원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문화기반시설간의 정체성 독립 및 주제의 중복성, 운영상의 효율성, 중복 투자 개선 등에 인한 문화기반 시설별 통폐합 및 공간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수원'은 문화예술의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수원시와 시민 및 문화예술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주제어 : 문화생산자,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축, 문화경영,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and Reorganization of Cultural & Arts Spaces in Suwon

Bae, Bong Kyun

In the past, the main way of approach to the culture and arts by common citizens was watching rather than direct participation, which was due to abstractedness and professionalism in culture and arts. But, recently, the citizens are expanding their roles from culture consumer into culture producers. For the purpose of highlighting the regional identity, activating regional culture, building up cultural contents, creating high value-added business or enhancing the pride in hometown, local governments are very active in establishing cultural infrastructure, keeping pace with the changes of the citizens as cultural producers. In the aspect of content development and space use, the changes are reshaping the education programs and activity programs at cultural infrastructure into consumer oriented.

Currently Suwon government, who is in its fifth period of local government by election and advocating 'a cultural city', is building or has plans to build new museums, art galleries, libraries, performance halls and experience centers. Allocation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be balanced in terms of the region and the type of facilities. At the same time, municipal authorities should prepare cultural policies and management plan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citizens to

use such facilities.

Efficient opera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is equally important as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ies. However, after the opening of facilities, city authorities would allocate only minimum budget for facilities operating or labor.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meet the cultural needs of citizens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by planning a variety of events and operating continuous program. If the facilities fail to fulfill their functions, due to the lack of operating budget and operating personnel, the citizens will keep themselves away from the cultural infrastructure and the facilities will lose the original functions.

In situations that require economic revitalization or budget austerity, city council may have to cut the budget related to cultural infrastructure because it does not bring economic profits. However, it should be reconsidered if the budget related to cultural infrastructure is to be cut preferentially.

Without worrying about the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or having future operating plan, some local governments carry out billions or tens of billions of finances in building new cultural facilities, while they assign the minimum finances for the budget required to perform the functions of cultural infrastructure. This should not be repeated.

Various content development, human resources improvement and financial stability should be preceded to make public cultural infrastructure the center of local culture as well as central institution that meet the cultural desires of residents.

Suw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the realignment of the arts and cultural spaces. Consolidation of facilities and reorganization of space is required, based on the principles such as preserving the identities of each facility,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voiding overlapping



investment, as well as considering regional equity issues.

Suwon government must maintain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its citizens or cultural and arts professionals to complete the 'cultural city Suwon', detecting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culture and arts.

Keyword : Culture Producers, Allocation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Axis of culture and art, Cultural management,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heritage

일반논문

•••

- 박승극의 생애와 소설 _우대식
 - 수원의 민요 _홍은상(석분)

박승극의 생애와 소설

시인

우대식

- I. 들어가는 말
- II. 진보주의 운동과 문학적 토대
- III. 극한의 리얼리즘 비평
- IV. 현실과 체험의 소설 그리고 민중들의 언어 세계
- V. 수필 다여집과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근대 이후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식민지 현실이라는 불우한 현실 조건 속에 불어 닥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복잡 미묘한 행로를 보이며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 할 길 없다. 더욱이 첨예한 축수로서 현실과 이상을 탐구해 왔던 문학은 다른 어떤 예술 보다 치열한 고투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KAPF(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탄생이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사회를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면, 카프의 파탄과 변절은 이데올로기와 문학이 전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신념이라면 문학은 신념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미묘한 심리적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카프의 대표적 인물인 임화의 행적을 보면 머릿속의 신념과 현실 속에서의 낭만적 태도가 어떻게 이율배반적

으로 작동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을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한 문인이 있었다. 신념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문학과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 괴리를 극복하고자 애쓴, 그리하여 리얼리즘 문학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신념의 문학인 박승극이 바로 그다. 박승극에 대한 고찰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얼룩진 우리 근대사에 대한 탐구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 형식이 가진 모순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II. 진보주의 운동과 문학적 토대

박승극은 1909년 12월 14일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에 출생하였다. 정문리는 한 때 총렬 정문(旌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박승극은 아버지 박홍양과 어머니 이인서 사이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 박홍양은 30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지었으며 정문2리 구장을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¹⁾ 일제하의 자작농으로 30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면 중농 이상의 축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박승극이 서울 유학 뿐 아니라 일본대학까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향촌에 자리 잡은 나름의 집안 배경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0년대 후반 제반 사회운동 및 문학운동이 휴지기에 접어들었을 때 향리의 과수원을 경영하며 칩거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농민의 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배경에는 바로 고향의 농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최초로 교육을 받았던 곳은 보신 강습소로 알려져 있다. 1923년 4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보신강습소 2학년에 입학했다가 여름 방학이 끝난 후 서울의 배재고보에 입학하기 위한 강습을 받기 위해 중퇴하고 1924년 서울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²⁾ 양감면 사창

1)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 운동』, 국학자료원, 70~71쪽, 2003. 조성운은 이 글에서 양감면 정문리 일대의 지역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한 전기를 작성하고 있다. 대체적인 일대기는 홍일선 시인이 작성한 아래 책을 참조로 하였다. 『박승극 문학전집』, 학민사, 445~456쪽, 2001.

2) 이동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가」, 『수원일보』, 2010.5.3.

리에 있던 보신강습소는 지역사회의 교육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뒷날 박승극이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 등장하는 최용신의 흔적을 더듬어 간 이야기가 수필 『다여집』에 실려 있거니와 낙후된 지역 사회의 교육운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학교가 설립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신강습소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신강습소 교우들이 학교 유지를 위한 의무금 사백원을 거두고 교사 개수에 착수하는 등의 사업에 부회장으로 적극 참여하게 된다.³⁾ 박승극은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서울의 배재고보 학생이나 유학생이라는 신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보신강습소에 찾으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9년 신흥학당을 열어 무산청년들을 교양하며 반도청년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4년 배재고보를 입학하고 1928년 수료할 때 까지 그의 행적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배재고보는 김기진, 김복진, 박영희, 이서구, 박팔양, 이백수, 나도향, 최승일 등 당대 일급의 문인들을 배출한 명문으로 특히 박팔양과는 동향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박승극은 『조선일보』 수원지국을 운영하며 수원지자 동맹 창립시부터 조사부장으로 적극 참여했거니와 박팔양 또한 조선전위기자동맹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박승극이 주도하여 1929년 5월 11일 카프 수원지부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박팔양이 「근대문학사조」에 대하여 강연하게 된 것도 수원이라는 지역적 연대성이 저변에 가로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팔양은 1927년에 이미 카프를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카프 활동을 할 필요도 의무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한 문예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928년 배재고보를 졸업한 박승극은 일본 동경의 일본대학에 입학하지만 한 학기 만에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다. 귀국 뒤 그의 행적으로 보아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대학 생활이 지극히 짧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와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에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중반에 들어서며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수원지역 청년 운동도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데 1928년 수원 청년회 부흥대회에서 신충, 권순중, 정광수, 공석정, 이용성 등과 같은 청년들이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비롯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박승

3) 「母校 維持를 爲한 交友들이 義務金」, 『동아일보』, 7면, 1931.4.26.

극이었다. 4) 박승극은 수원청년동맹, 신간회수원지회, 카프수원지부, 수진농민조합 등의 단체를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전력은 김남천으로 하여금 박승극의 평론에 대해 “정치가적 야심”(『조선일보』 1933.10.10)이라는 비난을 제공하게 된다. 박승극은 1928년 말 카프에 가입한 것과 카프 수원지부 설립을 계기로 문학 활동에 깊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수원군내에 히터져 있는 만흔 푸로레타리아 동인들은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수원 신간회 지회 관내에서 조선 푸로레타리아 예술동맹지부를 설립케 되엇는 바 먼저 규약 통과가 잇는 후연(後連)하야 집행위원의 선거와 제반사항을 죄기(左記)와 여(如)히 토의결정 하얏더라.

▲집행위원 = 서무부 박승극 교양부 공석정 조직조사부 권순중

▲토의사항 = 기관지 “무산자” 지지에 관한 건(件) 일(-), 문예강연 개최에 관한 건 일, 사무소에 관한 건 일, 맹원(盟員) 증모(增募)에 관한 건⁵⁾

카프 수원지부에서 발행한 잡지 『무산자』는 동경유학생 중심의 제삼전선파(第三戰線派)가 주동이 되어 만든 잡지이다. 김기진에 의해 발의된 문학 대중화론에 대해 임화를 위시한 제 삼전선파들은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다. 제삼전선파는 마르크시스트가 역사를 추진시키는 세력과 투쟁에서 자기세력의 퇴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최대의 오류이고 대중적 기만이라는 전제하에 극도로 재미없는 정세에 있어서 우리들의 연장으로서는 문학은 고개를 수그러야 한다는 김기진의 주장을 혁명적 원칙의 치명적 무장 해제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침을 놓고 있다. 즉 제삼전파의 『무산자』는 보다 선명한 이념의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카프 수원지부는 이념적으로 보다 선명한 동경지부를 선호했다. 카프 수원지부의 집행위원들은 이미 수원지역의 사회 운동에 깊이 침윤되어 있던 인물들이었고 박승극 역시 1928년 8월 22일 수원 신간회 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이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선명한 이념적 성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1929년 5월 11일 카프 수원지부 주최 문학강연은 박승극의 사회로 김기진의 개회사, 박팔양과 윤기정의 문학강연,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 시낭송 등이 있었으며 박영희, 유완희까지 카프의 핵심 맹원들이 총출동한 모양새를 띠고 있

4)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송실사학』 제 22집, 121~122쪽, 2009.

5) 「푸로예술동맹 수원지부 설립」, 『동아일보』, 5면, 1929.4.27.

다. 6) 카프 수원지부의 결성은 수원지역의 문화활동에 큰 촉매 구실을 하게 된다. 1929년 8월 24일 카프 수원지부의 주관으로 프롤레타리아 연극 「荷車」, 「순례」, 「梁上君子」 등을 수원극장에서 공연하려했으나 검열문제로 취소되었고 1930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화성학원에서 조선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 전람회에는 150여 점의 작품을 모아 60점만 출품되었으며 폐막일에 박승극, 공석정, 우성규 등이 일시 검속되었다 석방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이듬 해 제2회 프로미술전람회를 열려다가 금지되고 말았다.⁷⁾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중반까지 현재 지역의 개념으로 보면 수원·화성·오산·평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핵심에 박승극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 정치의식이 각종 사회 정치 단체를 해산한 후의 문화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론도 농민문학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소설 창작은 제 사회 정치운동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박승극의 사회운동에 대한 고찰은 박승극 문학연구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극한의 리얼리즘 비평론

문학인으로서 박승극은 평론과 소설로 활동하게 된다. 처음 발표한 것은 『조선지광』에 소설 「농민」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여러 편의 소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평론 부분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의 평론을 관통하는 것은 리얼리즘론이다. 1934년에서 1935년 사이 활발한 비평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즘 옹호가 주를 이룬다. 1934년 3월 16일 쓰고 1934년 6월 『문학창조』 제1

- 6) 「수원 문예 강연」, 『동아일보』, 5면, 1929.4.28. 이 기사는 카프 수원지부의 기념 강연회에 큰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수원 공회당에서 수원서는 처음되는 문예강연회를 개최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터이라는 바 當地서는 처음인 만큼 일반은 지금부터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더라”.
- 7) 박승극, 「예술동맹 해산에 제(際)하여」, 『신조선』 제 4호, 1935.8.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 해산기의 동향과 쟁점』, 태학사, 1990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박승극은 전국 각지로부터 모인 작품수 1백 50점 가운데 60점만 출품하게 되었고 ‘일본 프롤레타리아 미술가 동맹’에서 출품한 12점은 쥐어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로 기획된 전시회였다.

호에 발표한 「문학상 유산의 계승과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를 보면 문학의 유산에 대해 과거의 회고적 학구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의 유산을 정당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계승과 창조적 활동을 분리해 보지 말고 또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문제와도 관통해서 저 위대한 창조어로”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소비에트동맹과 현실이 같지 않다는데서 알시알비(日是日非)하고 아직 논쟁이 계속되어 부정적인 리얼리즘이니 신 리얼리즘이니 하는 새로운 리얼리즘이 끝나오고 또 그렇지 않다는 박론이 있거니와 이 새로운 창작 방법은 결코 거저먹기로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원칙으로 하여 성립된 소비에트 작가동맹의 신 규약을 읽어라⁸⁾

이러한 논의는 카프 내에서도 쟁점화 되었던 것으로 대표적인 논자로는 안함광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다. 카프시절 안함광은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을 주장하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과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다만 외래이론을 이식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관념론적 태도의 통폐를 상급까지 양기하지 못하였다”⁹⁾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현실이 소비에트의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박승극의 논의는 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박승극이 앞에서 말한 소비에트 규약은 그가 쓴 다른 글 「리얼리즘 소고」(『조선중앙일보』 1935.3.30)에 자세히 나와 있다. “소비에트 예술문학 급 문예비평의 기본적 방법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예술가로부터 현실의 발전에 있어서 진실하게 역사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은 사회××〈주의〉적 정신에 의한 노동민의 사상적 개조 급 교육의 임무와 일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소비에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는 박승극의 생각을 대변해준다. 또한 박승극이 문학활동 이전에 교육과 사상 활동에 힘쓴 배경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할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옹호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혁명적 리얼리즘이나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 혹은 또 다른 이름의

8) 박승극, 「조선문단의 회고와 비판」, 『신인문학』 제 4호, 1935.3.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 해산기의 동향과 쟁점』, 태학사, 1990에서 재인용.

9) 안함광, 「창작방법 문제 신이론 음미」, 『조선중앙일보』, 1934.6.17.

리얼리즘은 혼탁한 창작방법론일 뿐 다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박승극의 논의가 단지 사회주의 리얼리즘 일변도로 흐른 것은 아니다.

소시알리스틱 리얼리즘은 대중적인, 사회××(주의)적 히로이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정당하게 섭취하여서 융합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소시알리스틱 리얼리즘 이외에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따로 창작 방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¹¹⁾

이러한 부분은 사실 박승극 리얼리즘론의 탁견 가운데 하나이다. 안함광이나 한효 그리고 김두용 같은 논자들에 의해 논의된 창작 방법론의 문제는 해방 후 진보적인 논자들에 의해 고상한 리얼리즘론과 혁명적 낭만주의론이 불거져 나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박승극의 사회주의적 히로이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수용론은 사실 북한 초기 문학에 그대로 적용되는 면이 적지 않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혁명적 낭만성을, 그리고 전도가 양양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창조적 공감, 원대한 이상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의 리얼리스트한 반영을 더욱 심화시켜가고 있다.(중략)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의 예술적 진실은 혁명적 낭만성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예술의 혁신적 성격의 가장 중요한 모습의 하나인 것이다.¹²⁾

위에서 말하는 혁명적 낭만성은 레닌이 이미 지적했듯이 ‘제 사건의 자연스러운 경과를 앞지르는 꿈’ 즉 사회적 현실의 미래발전상을 선취하는 몽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카프 내의 많은 논자들이 당대 현실적 조건을 문제 삼아 연장으로 서의 문학은 고개를 수그러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박승극은 리얼리즘론을 끝까지 옹호하고 나아가 자신의 비평론에 걸맞는 소설을 썼다. “오�히려 이러한 정세하 일수록 정치의 우월성을 고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¹³⁾는 발언은 박승극의 리얼리즘론이 사회적 실천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박승극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것은 아니었다.¹⁴⁾ 박승극이 주장했던

10) 박승극, 「창작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조선중앙일보』, 1935.12.22.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 해산기의 창작방법 논쟁』, 태학사, 1990에서 재인용.

11) 위의 글.

12) 소련연방과학아카데미, 『미학의 기초Ⅲ』, 논장, 317쪽, 1994.

13) 박승극, 「문예와 정치 下」, 『동아일보』, 5면, 1934.6.9.

리얼리즘론은 당대의 불우한 현실을 넘어 꿈을 찾아가기 위한 강력한 문학적 도구였던 것이다.

또한 박승극 평론의 다른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농민문학에 대한 옹호이다. 동아일보에 4회에(1940.2.24~28) 걸쳐 연재된 「농민문학의 옹호」에서는 이기영의 『고향』을 농민문학의 전범으로 들고 있다. 이미 이기영의 『고향』에 대해서는 불후의 작이라고 고평하며 취재가 대중적이고 “예리하게 척결하고 정확하게 재단하므로 소설독자들은 부지불각중 공감하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⁵⁾ 이 글에서 박승극은 이기영을 늘 침묵의 그것이며 청한강직지사(淸寒剛直之士)라고 인물평을 하고 있다. 박승극과 이기영은 둘 다 외유내강의 면모를 공통점으로 하는 침묵 형의 인물들이었다.¹⁶⁾

박승극의 성장 배경은 물론 활동 무대 그리고 소설 작품에서도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소설가 이복명의 소설 『질소비료 공장』이 『조선일보』에 연재되다가(1932.5.29~5.31) 중단된 뒤 일본의 『문학평론』에 『초진』으로 개명되어 발표된 것을 읽은 후 “『초진(初陳)』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념이라는 것과는 그 거리를 멀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일생이 어떠한가 라는 것은 문길의 죽음에서도 넉넉히 표현되었다”¹⁷⁾고 평가하며 주제로나 기교로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점을 피력하고 있는데 바로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노동자가 만든 비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농민에게 수용되고 있는가가 밝혀졌으면 더 큰 의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박승극의 평가 속에서 박승극의 농촌 지향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짐작해 볼 수 있다.

14) 조남현, 「박승극의 실천·비평·소설」, 『한국문학』 제 25집, 73쪽, 2000.6.

15) 박승극, 「이기영 검토」, 『풍림』 제 6호, 1937.5. 임규찬·한기형 편,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에서 재인용.

16) 『박승극 문학전집1』, 학민사, 2001. 이 책 가운데 당시 함께 활동하던 김시중이 쓴 「내가 만난 박승극 형」을 보면 말수가 적은 과묵한 인간형으로 박승극을 기억하고 있다.

17) 박승극, 「이복명씨의 초진에 대하여」, 『조선중앙일보』, 1935.10.13. 임규찬·한기형 편,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에서 재인용.

IV. 현실과 체험의 소설 그리고 민중들의 언어세계

박승극은 자신의 비평론을 소설로 작품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작가이다. 조남현은 박승극의 소설이 주의자 소설의 모범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¹⁸⁾ 이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실천적인 사회주의자로서의 변모 과정이 그의 소설에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평범한 이야기」, 「술」 등의 작품이 농민문학의 범주에 들 것이며¹⁹⁾ 청년 동맹이나 수진 농조 활동으로 경험한 감옥 생활을 그리고 있는 소설은 「풍진」, 「그 여인」, 「추야」, 「백골」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특히 1939년 4월 『비판』에 발표된 「술」은 일제 말기 전시체제 속에서 수탈당하는 농민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마저도 핑개치는 홍국표라는 인물을 통하여 농민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철은 이 작품을 이기영의 「고향」에 버금가는, 1930대 말 우리 농민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⁰⁾ 일제 말기 홍국표는 화산면 협의회원으로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친일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또한 귀분이라는 남의 처를 첩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타낸 보험금에 만족을 느끼는 타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홍국표는 사회운동에 앞장 선 한남수의 움직임을 경찰에 내통해주고 야학활동을 하는 김정중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한다.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인간 군상들은 보험회사 주관 정상현, 살림간수 천을순, 지관 수암이, 의사, 중매자 여의 등으로 자본에 타락한 인물들이다. 몇 푼의 돈만 주어진다면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들로서 결과적으로 기층 농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홍국표는 화산면 협의회원으로 재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닷새 뒤엔 그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주재소 수석 순사부장(일본인) 순사, 면장, 면서기, 학교 교장(일본인), 훈도, 금융조합 이사(일본인), 그리고 송태의, 정상현, 천을순 기타 면내의 ‘유지’ 다수가 이에 참집하였다. 이날 마시려고 미리 빚어 넣었던 약주가 버젓이 나왔다. 홍국표는 더 위에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유지들도 오늘날에 사는 것을 무척 행복스럽게 여겼다.²¹⁾

18) 조남현, 앞의 논문, 77~86쪽, 2000.6.

19) 해방 후 발표한 「밥」, 「사랑」, 「길」, 「떡」 같은 작품도 농민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20) 전기철, 「박승극 소설고」, 『송의논총』 25집, 161쪽, 2001.

일제 말기 수탈당하는 농민들 속에서 위와 같은 홍국표의 행위는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등장하는 윤직원 영감이 당대 사회를 태평천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 역설이야말로 박승극이 인식한 당시 사회적 지평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밀주를 빚는 것도 법으로 금지 되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인물이 홍국표이다. 이러한 홍국표에 대한 풍자는 당대 부박한 현실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공모 대신(代診)시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²²⁾이라는 비판 속에 타락해가는 인간 군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소설 속에 경기도 지방 토박이말들이 대화를 통해서 생생히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²³⁾ 전기철의 지적과 같이 큰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박승극의 문학이 관념이 아닌 현실의 의미망 속에 놓여 있음은 물론 대화 하나하나 까지도 구체적 실천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풍진」과 같은 소설은 감옥 생활을 체험하면서 느낀 이념과 실천의 모순을 고발적으로 그리고 있다. 상섭, 철식, 로시야, 정수, 동성 등 열세 명의 인물들은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한 감방 안에 수감되어 동지의식이 있을 법하지만 파벌주의가 횡행하며 심지어 사식 차입을 통해 드러나는 계급적 차이까지 느끼게 만든다. 박승극은 철식이라는 늙은 운동가의 강인한 의지와 교육열을 통하여 헤게모니에 만 눈이 어두운 로시야 같은 인물을 비판한다. 적어도 강인한 내면과 자기희생적 태도가 없다면 오히려 인텔리겐치아가 부당한 권력에 집착하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로시야로 대표되는 인텔리겐치아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며 나아가 파벌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결국 로시야는 전향을 서약하고 다른 감옥으로 떠나고 함께 감옥살이를 하던 철식의 부인이 옥내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소설은 결말을 맺고 있다. 25 차례나 옥살이를 살았던 경험은 박승극에게 진보주의 운동 내부의 문제에 대해 반성적 시각을 제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게 했던 것이다. 그가 끝까지 이념을 고수했던 바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설 「항간사」는 김상원이라는 사기꾼으로 인하여 소작쟁의 사건이 발각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는 최상천의 장례 이야기를 짚막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1931년 11월 박승극은 수진농민조합의 소작쟁의 투쟁에 모

21) 「술」, 『박승극 문학전집1』, 학민사, 114쪽, 2001.

22) 박승극, 「생명보험」, 『다여집』, 금성서원, 92쪽, 1938.

23) 전기철, 앞의 글, 11쪽, 2001.

의하다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김영상, 남상환, 장주문, 이원섭과 함께 16개월 투옥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항간사」는 경험에 입각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백골」이라는 소설도 앞에 언급한 수진농민조합의 투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병보석으로 박승극보다 1개월 전에 출옥한 남상환의 집은 서정리였으며 박승극의 집과는 20여 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수시로 남상환을 위문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933년 4월 끝내 세상을 떠난 동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수필로 소설로 형상화 되었다. 장례식은 동지장으로 서정리 장날을 택해 성대히 치루어 졌으며 부락에서 떨어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것에 대한 증언이 『다여집』에는 「원고료와 묘표(墓)」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를 받은 박승극은 꼭 필요한데 쓰기로 결심한다.

동무의 묘표(墓標)

애처롭게 청춘을 마친 신뢰하던 동무의 한 사람인 남(南)의 무덤 앞에 묘표를 하나 세우고자 한 것이다. (중략) 8월 6일! 우리는 ‘故南相煥之墓’라고 쓴 크지 못한 화강석제의 묘표를 그의 묘 전에 세웠다. 그 돈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 크고 좋은 비석은 되지 못하나, 가난한 사람들만이 묻힌 서정리(西井里) 공동묘지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석물’이 된 것이다.²⁴⁾

이러한 내용이 소설로 형상화 되었을 때 죽은 동지 남상환은 상철이라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매장된 뒤 다시 묘지 터를 빼앗기고 화장된다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다. 박승극 자신으로 추리되는 작중인물 영식이 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화장을 하였느냐고 상철의 어머니에게 따지듯 묻자 오랫동안 머뭇거리던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최서방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실상은… 에서도 부탁이 있었지만 또 말썽이 될까봐서 그런 것이니 어찌 알지 마시오. 으흠. 섭섭이야 하겠지만 이왕 잘 못된 것을 어떻게 하오. 파내느니 안파내느니 시비가 되어 그전 조합때 일 모양으로 일이 커지면 공연히 고생들만 할까봐서.²⁵⁾

상철의 어머니가 상철의 시신을 다시 파내 화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철의 동지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짧은 한 마디에 숨어 있다. 현실적으로 보

24) 『박승극 문학전집2』, 학민사, 161쪽, 2011.

25) 『박승극 문학전집1』, 학민사, 320쪽, 2001.

면 수진농민조합의 일은 당시로서 수원 평택 일대의 큰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한 동지들의 고통은 가족들이 지켜보기에는 매우 딱한 일이었던 것이다. 수원군과 진위군 두 개 군의 연합으로 설치된 수진농민조합 사건은 결국 적색운동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의 투옥으로 끝을 맺었지만 석방된 후 박승극은 경성지방법원을 상대로 1일 1원 이상 5원 이내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²⁶⁾ 실제 남상환은 그로 인해 세상을 등졌으니 가족들은 또 다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했던 것이다. 소설의 내용만으로 보면 그 사건의 여파는 가족들에게 살아남은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박승극 소설 작품 가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 수원 지방의 입말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다. 염상섭의 소설 작품이 경아리 말 즉 서울 방언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박승극의 소설 속에는 당시의 경기남부의 방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농민과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 그의 입말 사용은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방언이란 언중들이 사용하는 말로 인접 지역과 서로 통섭하며 또는 고유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민중들의 언어가 방언이며 입말이라 할 수 있다. 박승극이 소설에서 방언을 생생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리얼리즘 더 나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향했던 그의 창작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 관심을 피지배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들의 고투와 의식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 지점에 놓여 있는 방언과 입말은 당시 경기남부의 사회적 지형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승극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의 고향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는 현재 오산·평택과 인접해 있는 까닭에 서울말과 함께 일부 충청남도 방언이 습합되어 있으며 독특한 정서를 자아낸다.

박승극의 소설에는 경기남부 방언의 특징으로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장모음 상승화 현상 등이 자주 나타나며 이러한 민중들의 입말과 대비적으로 지배계층의 언어는 일본어의 번역체 문투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 「사랑」은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정희라는 처녀의 의식화 과정이 남녀 간의 사랑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엮인 작품이다. 해방 전후의 혼란상 또한 눈여겨 볼 부분이기도 하다. 입말이나 방언의 쓰임이 가장 두드러진 소설이기도 하다.

“정만이라도 따라다니면서 한데 얼러 질겨했다.” (『박승극 문학전집1』 166쪽)

26) 「수진농민조합 무죄자 보상금 청구 소송」, 『동아일보』, 2면, 1933.6.4.

“복순이도 오래고, 상분, 상순, 그 외 수 삼 처녀들을 모아 김이 등기둥기나는 떡을 먹어가며 밤이 이식하도록 재미있게 놀았다.” (『박승극 문학전집1』 171쪽)

“옛날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사람이 우뚝기나 음흉하고 심뽏가 사나웠던지, 어느 해 흉년에 아마 느진 봄이였나 봐유.” (『박승극 문학전집1』 174쪽)

말줄 친 부분은 ㅅ, ㅆ, ㅈ 뒤에 ‘ㅡ’ 모음이 오는 경우 ‘ㅣ’ 모음화 하는 전설 모음화의 특성을 입말로 잘 보여준다. 전설 모음화는 발음의 편리성을 때문에 생기는 음운현상으로 전설 자음과 전설 모음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민중들이 쓰는 방언은 발음의 편리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단어에서는 정서적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이 등기둥기나는 떡을”에서 등기둥기 김이 난다는 표현은 생생한 실감을 우리에게 주는 재미있는 표현이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박승극의 소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벼’의 경우, ‘베’를 쓰는 경기·강원·충남북과 ‘나락’을 쓰는 전남북 경남북으로 뚜렷하게 갈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심해 뜯겨라, 송아지 베 뜯어먹을라” (『박승극 문학전집1』 166쪽)

반진고리의 화성방언으로 ‘반지끄룻’이나 ‘반지그룻’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 “반지그룻을 다가놓고 동생 정만의 뜯어진 바지를 정성껏 손질하는 참인데” (『박승극 문학전집1』 154쪽)에서와 같이 그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 방언 가운데 장모음 ‘ㅣ:’가 음절 앞에 오면 ‘ㅡ:’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승극의 소설 가운데 두드러지게 ‘없다’가 ‘웁다’로 나타나고 있다.

“뭐 발써 즐실 먹어, 허허허, 불일이야 있음 있구, 웁음 웁구 그렇지”(『박승극 문학전집1』 76쪽)

“흥, 약도 웁다나?”(『박승극 문학전집1』 82쪽)

“응, 뭐 차르년 것도 웁어. 그냥 있기 뭐하니까 말뽏으로 하년거지”(『박승극 문학전집1』 86쪽)

“저두 호셀 여지껏 못 헛년데, 널 즐말 집행을 니올까요?”(『박승극 문학전집1』 123쪽)

이렇게 문법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언학의 범주를 벗어나 속된 비유를 통한 능청스러움이나 속담 투의 지방 입말이 도처에 널려 있어 작품을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 대추 방맹이같은 여펜네가 왜 그렇게 뽏뽏 말라죽은 줄 아슈”(『박승극 문학전집1』

96쪽)

“지금 개 맘이 한껏 달떠서 마치 공중에 뜬 떼뽕에 매처럼 우뚝 줄을 모르지”(『박승극 문학전집1』 101쪽)

“참 그럴것군! 어쨌든 예전으로 치면 벼슬은 벼슬이죠. 하여간 하나 해두는 게 좋아. 사후 명정거린 꼭 될 테니까요. 허허허”(『박승극 문학전집1』 111쪽)

“그 구장인지 개장인지, 회장인지 생선장인지 꼴이 가관이네그러. 그럴 줄 알았다면 애당초 그까지 가지도 말았을 걸”(『박승극 문학전집1』 126쪽)

비유를 통한 능청스러움이나 속담 투의 지방 입말의 기능은 풍자와 해학에 있다. 죽은 마누라를 앞에 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흥국표의 마음을 “공중에 뜬 떼뽕에 매”로 표현한 것이나 면협의원이란 직책을 벼슬로 풍자하여 죽은 후 명정에다 써놓을 것이라는 표현 모두 인물에 대한 풍자에서 기인한다. 방언과 입말의 기능은 결국 소설의 내용과 필연적 관련을 맺고 있다. 박승극은 방언을 통하여 민중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친일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냉소에 가깝도록 우리말을 서투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어디 있소까?”

그는 조선 사람인데도 조선말 발음같지가 않았다(『승극 문학전집1』 323쪽)

‘이따귀’는 이 말을 들은 체도 않고 그의 버릇대로 일본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 것과 같은 어조로 일장 설유를 베푼 뒤

“...이번에 특별히 온소하는 고다. 알았소까? 이담엔 단단히 주의해야 돼!음.”(『박승극 문학전집1』 140쪽)

면서기나 친일주의자들이 쓰는 말은 민중들의 입말과는 다르게 일본어 발음에 가깝게 그리고 있는 것도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승극 소설의 방언과 입말에 대한 고찰은 경기남부의 언어학적 연구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론의 실천가로 출발한 박승극이 어떻게 소설가로 정착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된다. 그것은 또한 박승극의 소설이 단지 이념에 봉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소설미학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V. 수필 다여집과 맺는 말

그의 문학 활동 가운데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한 분야는 바로 수필이다. 1946년에 발행된 수필집 『다여집』 46편으로 총 20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머리말에 “다여적 생활(多餘的 生活)의 소산이라 할 인생에 대한 것만 골라” 모았다고 밝히고 있듯이²⁷⁾ 사람살이에 대한 인상을 탄탄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평생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한 운동가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합일시키려했던 문학가로서의 강렬한 자의식 너머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를 이 수필집은 보여주고 있다. 박승극이 가졌던 인간적 고민의 편린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편의 제목이 「고독」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굳은 신념까지도 얹어져 간다. 희망의 불길은 꺼지랴 한다. 오라지 얹어 식은 재가 될지도 모른다. 고독의 정신! 이것만이 나를 지배하고-²⁸⁾

언제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통 받는 민중을 향해 자신을 헌신했던 치열한 운동가의 내면에도 이토록 쓰라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박승극의 문학을 신뢰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념이 여과 없이 문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카프 내의 논쟁에서도 있었던 바이지만 박승극과 같은 강경파의 내면에 흐르는 고독의식이야말로 박승극 소설이 문학답게 창작되어진 받침이 되었을 터이다.

또한 수필 곳곳에 나타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박승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문학이란 사실에 있어 어려운 것이라는 절실히 느끼었다”는 고백은 리얼리스트로서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쓰고자 하는 문학의 입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래 고백에 잘 나와 있다.

나의 사랑하는 「고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즉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던 이 고장! 문학가란 흔히 기사(技師)가 문학이란 언어의 기술로써 이 고장을 묘사함도 적지 않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그만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²⁹⁾

27) 박승극, 『다여집』, 금성서원, 8쪽, 1938.

28) 위의 글.

29) 박승극, 「피꼬리는 울건말건」, 『다여집』, 금성서원, 126~127쪽, 1938.

박승극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 수필의 내용 가운데서도 고향마을의 자세한 풍경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상추어(路上愁語)」는 어느 봄날 자전거를 타고 양감을 떠나 오늘날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인 남곡을 지나 안녕리 그리고 오늘날 병점인 떡점거리를 지나는 소회를 그리고 있다. 거리를 지나며 그가 주목하는 것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다.

나의 고향에서는 어디나 가마를 치지 않는 데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마를 쳐서 산다. 만일 가마조차 없었던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³⁰⁾

가마를 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중들 그리고 집단으로 나와 일하는 여인들에 비해 깨끗이 단장된 일본인 이주마을과 과수원 등의 비교를 통해 당대 자신의 고향마을 비극성을 환기 시킨다. 또한 지금도 남아 있는 대항교동을 지나며 주점의 젊은 갈보들과 그 앞에서 모의하는 지방 유지들의 위선적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의 행로는 수원으로 이어져 식민 농정의 표본인 권업 모범장, 서호, 향미정으로 이어진다. 수원에 대한 그의 마음은 애뜻한 것이어서 「사바잡기(娑婆雜記)」에서 “수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서호의 은덕을 얼마나 입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몰락한 민중들의 삶과 술집들의 기승 그리고 자신 자들의 횡포를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확인한 그는 “아! 웃은 세상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 수필집은 박승극 삶의 기록인 동시에 섬세한 자의식의 표현이며 동시에 자신의 문학에 대한 옹호를 포함하고 있다. 『다여집』은 출간 당시에도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다여집〉은 박형의 인격을 그의 정신적으로 뭉쳐 놓 것 같다 할 것이다. 그의 건실한 사상과 간간한 문장과 그러면서도 정열적인 것이 우선 그러케 보인다.³¹⁾

이기영의 위와 같은 평가는 박승극의 수필집 『다여집』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 그리고 문학 제반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발언이다. 또한 이기영은 이 수필집의 가장 큰 장점을 시대의 양심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박승극이 비판사 판으로 출간하려했던 비평집의 제목이 『시대와 문학』이었던 점과 일치하고 있다. 이 비평집은 출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첩경으로 시대와 양심

30) 박승극, 「노상추어(路上愁語)」, 위의 책, 56쪽, 1938.

31) 이기영, 「뽕·레뷰 박승극 저 〈다여집〉」, 『동아일보』, 3면, 1938.9.18.

이라는 수사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박승극이 택한 이념은 결국 그의 문학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해방 후 수원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되었고 군정포고령으로 구속된 문인 1호가 그였다. 나아가 남로당 수원군당의 위원장을 역임하다 1948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쪽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냉철하게 돌아볼 기회를 말살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을 위한 그의 운동사적 성과와 더불어 그가 추구했던 리얼리즘 문학은 통일문학사 구성을 위해서도 분명한 위상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승극, 「생명보험」, 『다여집』 금성서원, 1938.
『박승극 문학전집1』, 학민사, 2001.
『박승극 문학전집2』, 학민사, 2011.
소련연방과학아카데미, 『미학의 기초Ⅲ』, 논장, 1994.
임규찬·한기형 편,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 해산기의 동향과 쟁점』, 태학사, 1990.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 해산기의 창작방법 논쟁』, 태학사, 1990.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 운동』, 국학자료원, 2003.

논문

-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승실사학』제 22집,
조남현, 「박승극의 실천·비평·소설」, 『한국문학』제 25집, 2000.6.
전기철, 「박승극 소설고」, 『승의논총』 25집, 2001.

신문자료

- 「프로예술동맹 수원지부 설립」, 『동아일보』, 5면, 1929.4.27.
「수원 문예 강연」, 『동아일보』, 5면, 1929.4.28.
「母校 維持를 爲한 交友들이 義務金」, 『동아일보』, 7면, 1931.4.26.
「수진중조사건 무죄자 보상금 청구 소송」, 『동아일보』, 2면, 1933.6.4.
박승극, 「문예와 정치 下」, 『동아일보』, 5면, 1934.6.9.
안함광, 「창작방법 문제 신이론 음미」, 『조선중앙일보』, 1934.6.17.
이기영, 「뽕·레뷰 박승극 저 <다여집>」, 『동아일보』, 3면, 1938.9.18.
이동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가」, 『수원일보』, 2010.5.3.

국문요약

박승극은 1909년 12월 14일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에서 출생하였다.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박승극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던 인물이다. 수원군 양감면은 평택군 서탄면과 맞붙은 수원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간 곳이다. 박승극의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들은 대개 그의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는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고향을 오래 떠난 본 일이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는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노동자·농민 등 가난한 계급에 속한 민중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수탈당함과 동시에 지주나 자본가들에 의해 이중으로 수탈당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박승극은 고향의 현실 속에서 민중들의 고통 받는 삶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수원, 오산, 평택 등에 설립된 진보 단체의 핵심에는 늘 박승극이 있었다. 수원청년동맹, 신간회수원지회, 수진농민조합 등의 단체에서 주요 인물로 활동했으며 가난한 민중들의 편에선 문학단체인 카프 수원지회를 이끌기도 하였다. 당시 카프는 최고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최대의 문학 단체였다.

박승극은 문인으로서 비평, 소설, 수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였다. 비평가로서 박승극은 리얼리즘을 역설하였다. 그가 주장한 리얼리즘이란 문학의 뿌리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자각함으로써 현실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승극은 자신의 비평론을 소설로 작품화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사회주의자로 변모해간다. 농민에 관한 소설로는 「평범한 이야기」, 「술」 등의 작품이 있으며 사회운동으로 인한 감옥생활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는 「풍진」, 「그 여인」, 「추야장」, 「백골」 등이 있다. 특히 「술」이라는 소설 작품은 일제말기 전시체제 속에서 수탈당하는 농민의 모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마저 내팽개치는 흉국표라는 인물을 통해 농민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필집 『다여집』은 당시 수원의 풍광들이 잘 그려져 있다. “수원을 기반으로

로 하고 있을 때 서호의 은덕을 얼마나 입었는지 알 수 없다” 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박승극에게 수원은 절실한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당시 최고 소설가였던 이기영은 이 수필집에 대해 “시대의 양심”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박승극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양심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쳤던 당시 수원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사회변혁 운동으로 인해 스물다섯 차례나 옥살이를 경험했던 인물이 박승극이다. 해방 후 수원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가 1948년 월북하였다. 초기 북한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1960년대까지 창작 활동에 매진하다가 1980년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어 :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농민문학, 카프, 방언과 입말

Abstract

on Park Seung-geuk's life and his novels

Woo, Dae Sik

Park Seung-geuk was born as the first of seven children in Jeong-mun Ri, Yang-gam, Myeon, Suwon Gun on December 14, 1909. On the outskirts of Suwon Gun was Yang-gam Myeon, bordering Seo-tan Myeon, Pyeong-taek Gun. He had deep affections for his hometown, most of whose residents made a living by farming. On the whole, his literary works take place in the setting of his hometown. He had never left his hometown before the Korean War broke out.

By the 1920s socialism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intellectuals, which was deeply related to the fact that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t that time. The people - laborers and farmers belonging to the proletariat- were exploited by Japanese Imperialism; on top of it, their existence was threatened by the exploitation of the propertied class such as landowners or capitalists. Directly experiencing that the people were suffering from poverty, Park Seung-geuk plunged into the progressive Movement of socialism to cope with the situation. He took the lead in organizing progressive groups in Suwon, Osan, and Pyeong-taek,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uwon Youth Fellowship, Suwon Branch of Singan Association, and Sujin Peasant Union, etc. He also led Suwon Branch of KAPF, a major literary group that consisted of a high level of the intelligentsia and sided with the proletariat.

Park Seung-geuk worked as a writer in various fields of criticism, novel, and essay and so forth. As a critic he laid stress on realism. He claimed that literature is based upon reality and that it should disclose the contradictions in society, changing them. On the basis of his criticism, he made great efforts to write his novels, whose characters, realizing the contradictions, transfigure themselves into socialists. 'A Common Story', and 'Wine' deal with the life of farmers; 'Pung jin(Wind and Dust)', 'The Woman', 'Chuyajang(Long Autumn Night)', and 'Skeleton' portray the imprisonment resulting from social movement. Among them, 'Wine' shows the quintessence of peasant literature by portraying the farmers being exploited on a war footing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rough its hero, Hong Guk-pyo, who abandons his family for his own benefit. Besides, 'Dayeo-jip', a collection of his essays, depicts the scenery of Suwon of those days. As he exclaimed, "I can't imagine how much I was indebted to 'West Lake' while living in Suwon.", Suwon was the hometown of his earnest heart. Lee Ki-yeong, a top novelist of those days, rated 'Da-yeo Jip' high, saying that 'conscience of the times' is one of its biggest merits. Park Seung-geuk was one of the leading intellectuals that struggled to act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his conscience in a turbulent age of Korea

Park Seung-geuk underwent the hardships of imprisonment 25 times by engaging in social reform movements.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he was chosen as chairman of People's committee of Suwan Gun. In 1948 he defected to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he had great effects on forming the nascent literature of North Korea, devoted his life to creating literary works until the 1960s, and died in the 1980s.

keyword : realism, social realism, peasant literature,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idiolect and spoken language

수원의 민요

홍은상(석분)*

- I. 머리말
- II. 음악사로서의 수원
- III. 수원의 전통예술 담당층
- IV. 수원의 민요
- V. 맺음말

I. 머리말

한류의 열풍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권고 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2012 12월3-7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민족의 뿌리이며 우리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의 저력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빼어난 구전 및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단어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원의 민요에는 무엇이 있을까?

민요는 사설과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자에 의해 구연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전승되어 불리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민요가 그 지역의 민요라고 할 수

* 수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통예술단 우리소리 대표



있는데, 과연 수원외 민요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원 민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수원외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 녹아 내린 민요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음악사로서의 수원

수원의 명칭은 부족국가시대(삼한시대)에 모수국으로 시작하여 고구려시대(457년)에는 매홀군, 통일신라시대(경덕왕16년-757년)에는 수성군, 고려시대(태조23년, 904년)에는 수주라 하였고, 조선시대 태종13년(1413년)에는 수원도호부, 정조17년(1793년)에는 수원 유수부, 고종32년(1895년)수원군, 일제강점기 1914년 3월 수원군 수원면에서 1931년 4월 1일 수원군 수원 읍으로, 1949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수원시로 승격하였다.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였고 1988년 7월 1일 장안구, 권선구 2개구를 개칭하였다가 1993년 2월 1일 팔달구를 개칭하였고,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을 이루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육지의 경계가 동쪽은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에 서쪽은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에 남쪽은 화성시 태안읍에 북쪽은 의왕시에 접해있다.²⁾

원래 수원은 지금보다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화산 아래가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조선 정조 13년(1789)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현 위치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면서 그 아래에 있던 관공서와 민가들을 팔달산 아래로 집단 이전시킴으로써 현재의 수원이 형성되었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정조 18년(1794)에 수원 화성축성공사를 시작하여 2년 뒤인 1796년에 수원 화성을 완공하였다.³⁾ 수원 화성은 실학자 유형원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중, 경기출판사, 274쪽, 1997 ·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2) 경기도, 『경기도 바로 알기』, 18쪽, 2008.

하경 『수원 · 화성의 전래동요와 민요의 지역화 교재 개발 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재인용

3)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과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영의정 채제공이 성역을 주관하고 화성유수 조심태 등이 전력하여 이룩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 구조 배치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장엄한 면모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성곽의 축조에 석재와 벽돌을 병용한 것,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구조와 총포를 방어하는 근대적 성곽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용재를 규격화하여 거중기 등의 기계장치를 활용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성곽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⁴⁾

수원의 역사에 있어서 정조대왕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특히 수원 화성 축성은 화성행궁이라는 수원의 문화예술을 꽃피운 문화 공간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 수원 화성 행궁에서 펼쳐진 전통 연행 예술은 봉수당진찬연(혜경궁 홍씨 회갑연)과 지방 관아 예인의 낙성연(화성 성역 완성을 축하하는 잔치)을 들 수 있는데 봉수당 진찬연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공연 내용에 관한 기록과 그림 자료가 전하고,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라는 병풍 그림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화성 축성을 축하하는 낙성연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있는 「낙성연도」라는 그림 자료가 전하여 당시 연희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⁵⁾

봉수당 진찬연이 갖는 문화예술사적 의미는 중앙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예술의 조화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봉수당 진찬연에 참여한 연행자들의 구성을 기록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행자의 이름, 나이, 출신지 등을 적고 있어 중앙출신의 연행자와 수원 출신의 연행자가 거의 동등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

화성 성역의 완성을 축하 하는 낙성연은 화성 행궁의 낙남헌(洛南軒)에서 연행됐고,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낙성연도」의 그림으로 알 수 있는데 궁중 행사에 행해지지 않았던 사자춤이 도입된 것으로 보아 민간 예인인 재인(才人)들도 연희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⁷⁾ 사자춤이 궁중 행사에 도입된 시기는 1887(고종 24)년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자춤이 행해진 것은 지방

4)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5) 공연예술 편저, 「제1편 조선후기 수원지역 연행 예술」, 『수원 문화예술사』, 19쪽, 2004

6) 앞의 책.

7) 공연예술 편저, 「제1편 조선후기 수원지역 연행 예술」, 『수원 문화예술사』, 2004.

8) 전경옥, 「북청 사자놀이 연구」, 태학사, 1997

예인들의 공연 양상의 하나라고 보여 진다.⁹⁾

봉수당 친찬연과 낙성연이라는 두 가지의 전통연행 예술을 통해 화성 행궁은 중앙 문화예술과 지방 문화예술과의 상호 교류가 있었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화성행궁은 수원 문화예술이 싹튼 공간이요, 문화예술교류의 장이요, 문화 예술을 꽃피운 문화예술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Ⅲ. 수원의 전통예술 담당층

궁중예인, 지방 관아의 예인, 재인(才人) 등 예술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수원의 예술을 담당했던 예술인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수원은 조선시대 경기도의 중심지가 강화였다가 1793년(정조 17년) 수원부에 종2품 유수가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경기좌도의 행정적 중심지역이 되었고,¹⁰⁾ 중앙국가기관인 나례청(難禮廳)에 등재된 정재인(呈才人)들은 각 지역의 도청(都廳)에 속하여 지방관아의 잡희와 지역의 예인집단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896년경에는 경기도의 재인들의 수가 4만 명이나 되었고 주·부·군·현의 편제에 따라 경기좌도의 수원재인청, 광주재인청, 경기우도의 개성재인청, 강화재인청이 동급의 지위를 확보하여 그 재인청이 속한 군과 현을 관장하게 되었으나,¹¹⁾ 훗날 조선 왕실이 무너지면서 이들은 민간 예인집단으로 활동하다가, 1922년 일제에 의해 수원재인청은 강제로 폐쇄 되었다.¹²⁾ 이들은 세습무가(巫歌), 무악(巫樂)을 반주하는 화랭이, 줄넘기 등의 곡예를 연기하는 재인, 가무(歌舞)를 하는 예인, 무악을 하는 광대, 무녀(巫女)등 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¹³⁾

9) 공연예술 편저, 「제1편 조선 후기 수원지역 연행 예술」, 『수원 문화예술사』, 33쪽, 2004.

10) 노동은, 「한국음악교육론」, 한국음악연구소, 266쪽- 275쪽, 2008.

11) 앞의 책, 266쪽.

12) 공연예술 편저, 『수원 문화예술사』, 「제1편 조선 후기 수원지역 연행 예술」, 51쪽, 2004.

13) 적송지성(赤松智城)·추엽옹(秋葉隆), 『朝鮮巫歌의 研究 (조선무가의 연구)』 하, 심우성 옮김, 동문선, 283-284쪽, 1991. 『수원문화 예술사』, 재인용

또한 수원기생조합의 기생들도 예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 서울의 대표적인 권변과 지방기생조합들이 소개되어있고, 수원기생조합과 수원기생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다. 기생조합의 탄생은 1908년 장악원¹⁴⁾에 소속되어 있던 관기의 관리가 일본의 제도하의 경시청으로 이관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수원 기생조합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13년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방기생조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원기생조합도 이때쯤 만들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⁵⁾

이들은 무용(舞踊), 가사(歌詞), 시조(詩調), 경성잡가(京城雜歌), 남도잡가(南都雜歌), 서관잡가(西關雜歌), 경·서·남리 곡(京·西·南理 曲), 경성속요(京城俗謠), 남도리창(南道理唱), 서관리요(西關理謠), 병창(並唱), 양금(楊琴), 가야금(伽倻琴) 등의 기예에 능했다.¹⁶⁾

그리고 수원기생 중 김향화는 3·1운동 당시 수원기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동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¹⁷⁾ 화홍문 담교놀이 라는 수원의 전래 놀이에 참여하여 일본인을 조롱하기도 했다.¹⁸⁾ 이와 같이 기생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권력 통치 아래서도 전통 가무의 계승과 신민요, 가요 등 새로운 장르를 확장하면서 대중예술을 꽃피웠고, 3·1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

현재는 사)한국국악협회경기도지회,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수원지부, 사)한국 전통민요 협회 수원지부, 사)서도소리진흥회 수원지부, 사)한국예악총연합회 경기도 지회, 사)대한시조협회수원지부, 사)수원화성판소리 진흥회, 선소리산타령 전수회관, 경기민요연구원, 전통예술단우리소리, 국악연주단 허브, 우리소리국악원 등의 단체가 있고, 이 단체와 이곳에 소속된 국악인들에 의해 국악 및 민요가 계승 발전되고 있다.

14) 조선시대 말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 일제강점기 때는 이왕직악부(李王職雅樂部)로 개편되면서 일부 이어졌으며, 8·15광복 후에는 구왕궁악부(舊王宮雅樂部)로 고쳐다가 1951년 국립국악원이라고 함.

15) 이동근, 『의기(義妓) 수원기생들의 3·1운동』, 수원박물관, 7쪽, 2011.

16) 조선연구회 (송방송색인, 이진원해제), 『조선미인보감』, 민속원, 2007

17) 이동근, 『의기(義妓) 수원기생들의 3·1운동』, 수원박물관, 15쪽, 2011

18) 이동안 고증, 유청자 복원, 김준일 자료제공.

IV. 수원의 민요

민요는 한 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노래로 그 민족의 공감들(희망, 종교, 연애, 감정)을 그 민족 특유의 리듬에 맞추어 솔직담백하게 표현한 노래들이다.¹⁹⁾ 한 민족의 구성원, 서민들이 부른 노래로 지칭할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를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자연 발생한 노동요, 놀이요, 동요 등은 향토 민요라고 하고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판소리) 등 널리 유행한 민요들은 대중민요라고 하겠다.

1. 수원의 향토민요

수원의 향토민요는 수원지역에서 발생하여 수원지역에서 부른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의 향토민요는 화성 축성 시 부르던 전래 노동요(勞動謠)와 화홍문 답교놀이 안에 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전래 놀이요(遊嬉謠)들과 수원 수원지역에서 채보된 전래 동요(童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전래 노동요

〈가사 1 화성 축성당시 부르던 노동요〉

1. 막을세라 막을세라
설한풍을 막을세라
2. 채울세라 채울세라
틈서리를 채울세라
3. 이을세라 이을세라
서리서리²⁰⁾ 이을세라²¹⁾

19) 이성천외, 『알기 쉬운 국악 개론』, 도서출판 풍남, 173쪽, 1994

20) 모서리

21) 김준일 제보, 이동안의 마지막 제자

이 노래는 화성 축성당시 부르던 노래로 곡조는 알 수 없고 몇 줄의 가사만 찾을 수 있었다.

(2) 전래놀이요-화홍문 답교놀이 안에서 놀이를 진행하며 부르던 노래들

화홍문 답교놀이는 수원에 화성이 축조되고 행궁과 군영 등이 설치되면서부터 군악과 농악이 함께 어우러져 연희된 놀이다. 화성의 성 밟기가 중심이 되어 행해졌는데 세시나 명절 때 창재인(唱才人)들이 화성과 화성민의 태평무사와 대유평(둔)과 서둔의 풍농(豐農)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던 민속대동놀이이다.

화홍문 답교놀이는 크게 행궁인과 양반이 14일에 즐기던 양반답교놀이와 평민들이 15일에 즐기던 서민답교놀이가 있다. 양반답교놀이에는 서호수상선회가 주가 되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서민답교놀이의 서열이 굿과 잡생이 놀이 문어발놀이 등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순을 소리와 함께 풍자와 해학으로 구성한 서민들의 놀이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원기생 김향화가 일본인의 의상 하오리를 입고 이 놀이에 참여해 일본인을 조롱하였고, 이동안의 조부 이화실은 재담과 재주로 일본인을 모욕하여 투옥 되었고, 그 뒤 다시 일제에 항거하는 만세사건에 가담하였다. 그 일로 인해 일제는 화홍문 답교놀이 자체를 금지시켰고, 재인청마저도 강제로 해체시켰다. 재인청이 해체되면서 수원의 민속놀이의 맥이 끊기고 말았는데 이동안, 지수상, 오경환²²⁾의 고증으로 유청자가 복원하여 1995년에 재현 연희하게 되었다.

화홍문 답교놀이는 이무기전, 다리밟기, 순위내기 싸움, 거미줄 돌리기 소리, 서호납줄갱이소리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놀이 안에서 불리는 거미줄 돌리기 소리, 서호납줄갱이소리, 조가비타령, 우렁이타령, 새끼 꼬기 소리, 응원소리(북군, 남군), 선상에서 낚시도사와 어부들이 부르는 소리 등은 전래놀이 안에 포함된 전래놀이요(遊嬉謠)이다

그 밖의 수원의 전래놀이로는 고색동 코잡이 놀이(줄다리기),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길마재라는 지역과 용인시 상현동 독바위 주민들에 의해 실시돼 오던 민속 놀이와, 수원장치기 놀이 등이 있는데, 이들 놀이 안

22) 수원재인청 재인들

에는 노래들이 불렀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다만 화흥문 담교놀이 안에서도 불리는 응원소리는 장치기 놀이 안에서도 불렀었다고 한다.²³⁾

〈악보 1 거미줄 돌리기 소리〉

거미줄 돌리기 소리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홍은상

빠르게 J. = 120

1.납 줄 갱 이 야 놀 아 라 남 줄 갱 이 야 놀 아 라
 2.거 미 다 리 를 잡 아 아 라 (누 구 다 리 야) 놀 아 라
 3.거 미 다 리 야 놀 아 라 (누 구 다 리 야) 놀 아 라

3

1.납 줄 갱 이 야 놀 아 라 살 — 망 살 — 망 돌 아 라
 2.비 단 잉 어 야 놀 아 라 아 라 자 사 — 사 — 돌 아 라
 3.거 북 이 너 도 놀 아 라 성 음 이 성 음 돌 아 라
 4.이 무 기 너 도 놀 아 라 두 벽 이 두 벽 돌 아 라
 5.우 령 이 돌 아 라 팽 그 르 르 돌 아 라
 6.조 가 비 돌 아 라 스 리 살 짝 돌 아 라

1. 납줄갱이야 놀아라 납줄갱이야 놀아라
2. 거미다리를 잡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3. (아무개(누구) 다리야)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이 부분을 A형이라 하고 3절 부분은 아무개를 자유롭게 삽입하여 부른다.

1. 납줄갱이야 돌아라 사랑사랑 돌아라
2. 비단잉어야 돌아라 요령조롱(사출사출) 돌아라
3. 거북이야 너도 돌자 성큼성큼 돌아라
4. 이무기야 너도 돌자 두벽이두벽이 돌아라
5. 우렁이야 돌아라 팽그르르 돌아라
6. 조가비아 돌아라 스리살짝 돌아라

이 부분은 A'형이라고 하고 1절~6절까지 부른다.

23) 김준일 대담, 2012년 11월 20일.

〈악보2 서호납줄쟁이소리〉

서호납줄쟁이소리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홍은상

A ♩ = 60

납줄쟁이야 울지-마라 이내말- 좀들 어보소 녘출녀-출출남-출남 머리빗- 어호 사라고

5 물결따라 떠나-가면 넓은세상있건-마는 망망대-해한경-창파 남방염수예산-파로다

B ♩ = 120

췌납줄쟁이야놀아라 남출남-출놀아라 울망이줄망이줄망이울망이 울망줄망줄망울망

납줄쟁이야놀아라 살망살-망놀아라

13 **D**

돌아라돌아라돌아라돌아라 뛰어라뛰어라 췌우렁이야놀아라 빙그르르돌아라

조가비아놀아라 빙그르르돌아라

A형

1. 납줄쟁이야 울지마라. 이내 말좀 들어보소
 녘출 녘출 출남 출남 머리빗어 호사하고
 물결따라 떠나-가면 넓은 세상 있건-마는
 망망대해 만경창파 남방염수에 산파(山波)로다
2. 납줄쟁이야 울지마라. 이내 말좀 들어보소
 녘출 녘출 출남 출남 머리빗어 호사하고
 구름 따라 꽃비늘에 호의호식 갈까보내
 이물 따라 떠나가면 일장춘몽이 웬말인가.
3. 납줄쟁이야 울지마라. 이내 말좀 들어보소
 녘출 녘출 출남 출남 머리빗어 호사하고
 바람 따라 떠나가면 좋은 세상 있건마는
 심신산천의 신불노가 북풍한설(에) 설한풍이라
 여기산을 떠-나가-면 북망산천이 웬말인가.

B형 〈후창〉

1. 납줄쟁이야 놀아라 남출남출 놀아라
2. 납줄쟁이야 놀아라 사랑사랑 놀아라

3. 납줄갱이야 뛰어라 사출사출 뛰어라
4. 납줄갱이야 뛰어라 설기설기 뛰어라
5. 납줄갱이야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6. 양친부모 모시고 형제자매 오순도순
7. 이웃사촌 올망졸망 골목골목 올망졸망

C형

올망이 졸망이 졸망이 올망이
 올망졸망 졸망올망 돌아라 돌아라 풀어라 풀어라 뛰어라 뛰어라

D형 (후창)

우렁이야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조가비아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A형으로 1절~3절을 부른 후 B형의 후창을 1절~5절까지 부르고 C형과 D형을 부른다.
 서호는 서호저수지를 말하며 납줄갱이는 서호에서 살던 물고기 이름이다.²⁴⁾

〈악보 3 조가비타령〉

조가비타령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홍은상

♩. = 60

1. 조 가 비 야 조 가 비 야 무 엇 하 러 나 왔 니
 2. 동 서 방 죽 얼 음 살 이 손 이 실 려 서 나 왔 지

문) 조가비아 조가비아 무엇하러 나왔니

- 답) 1. 조개방죽 흙탕물이 눈을 가려 나왔지
 2. 동서방죽 얼음살이 손이 실려서 나왔지

24) 김준일 대담, 2012년, 11월 20일.

3. 조개방죽 서당나리 회초리가 무서워 나왔지
 4. 지지고개로 가시는 님 애간장을 태우러 나왔지
 5. 사통팔달 찾아봐도 요내사랑만 못하리라

후창) 조가비아 조가비아 무엇 하러 나왔니

문답형식으로 되어있고, 문답형식의 노래가 끝나고 다른 노래로 넘어갈 때 리듬형태가 다른 후창 ‘조가비아 조가비아 무엇 하러 나왔니’를 부른다.

〈악보 4 우렁이타령〉

우렁이타령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홍은상

$\text{♩} = 60$

우렁이 - 야 - 우렁이 - 야 어디 - 어디를 - 가 - 니

3

1. 연 무 - 팔 - 망 - 놀 - 망 - 팔 - 망 정 - 분 이 - 난 다 고 - 간 다 - 지
 2. 수 류 - 정 - - - 건 달 - 님 - 네 안 - 주 - 먹 으 러 - 간 다 - 지

5

우렁이 - 야 - 우렁이 - 야 어디 - 어디를 - 가 - 니

문) 우렁이야 우렁이야 어디어디를 가-니

- 답) 1. 연무활랑 놀랑 팔랑 정분이 난다고 간다지
 2. 수류정 건달님네 안주 먹으러 간다지
 3. 팔월달산 처녀 총각 정분이 난다고 간다지
 4. 눈 무섭고 입 무섭고 스리살짝 간다지
 5. 매 무섭고 귀 무서워 손발 비비며 간다지

후창) 우렁이야 우렁이야 어디 어디를 가니

우렁이 타령은 조가비타령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다.

문답형식으로 되어있고 문답형식의 노래가 끝나고 다른 노래로 넘어갈 때 리

듬 형태가 다른 후창 ‘우렁이야 우렁이야 어디 어디를 가니’를 부른다.

〈악보 5 새끼꼬리소리〉

새끼꼬기소리

재보년도:2012
재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재보:홍은상

A J. = 60

1. 꼬아 보 세 - 꼬아 보 세 한 가 닥 - 두 가 닥 - - 꼬아 보 세

꼬아 보 세 - 꼬아 보 세 문 - 어 - 다 - 리 를 - 꼬아 보 세 *Fine*

B

잡 고 잡 고 또 잡 고 - 보 니 이 런 문 어 를 - 잡 았 - - 네

꼬아 보 세 - 꼬아 보 세 문 어 - 다 리 를 - 꼬아 보 세

1. 꼬아보세 꼬아보세 한가닥 두가닥 꼬아보세
 꼬아보세 꼬아보세 문어다리를 꼬아보세
2. 잡고 잡고 또잡고 보니 이런 문어를 잡았네
 꼬아보세 꼬아보세 문어다리를 꼬아보세
3. 양지쪽에 꾸들꾸들 문어다리를 말렸다가
 꼬아보세 꼬아보세 이가닥 저가닥 꼬아보세
4. 가려보세 가려보세 동에나 서에나 가려보세
 당겨보세 당겨보세 이가닥 저가닥 당겨보세
5. 당겨보세 당겨보세 이편 저편 당겨보세
 가려보세 가려보세 남에나 북에나 가려보세
6. 돌려보세 돌려보세 이 편 저 편 돌려보세
 돌려보세 돌려보세 이가닥 저가닥 돌려보세

A형과 B형으로 되어있는데 A형은 1절, 3절, 4절, 5절, 6절이며 B형은 2절이다.

〈악보 6 응원소리〉

응원소리-북군

장 장 장 장 군 장 안 장 군 큰 장 군
 장 안 문 에 장 사 났 네 장 장 장 장 군
 장 안 장 군 경 용 장 군 가 마 타 신 우 리 장 군
 장 이 장 이 장 장 군 아 장 아 장 꼬 마 장 군
 작 은 고 추 가 뎀 다 더 니 이 땀 게 나 독 할 까
 장 장 장 장 군 장 하 구 나 북 장 군

응원소리-남군

용 용 용 용 사 팔 달 용 사 호 용 사
 남 문 용 사 호 탕 이 용 사 용 장 명 장 되 앓 네
 팔 달 산 에 호 뜰 이 가 백 발 용 사 되 었 네
 화 산 지 기 호 연 감 이 백 전 노 장 아 닌 가
 용 사 장 사 역 사 열 사 사 통 팔 달 에 열 열 사

야유소리-북군

5 용 용 죽 겠 지 육 보 앓 다 용 용 사

9 용 이 용 이 용 용 사 용 열 맞 은 용 용 사

13 팔 달 산 에 팔 딱 장 군 메 뚜 기 뷔 듯 팔 딱 팔 딱

17 기 복 이 는 느 려 도 지 지 대 고 갈 념 고

21 토 갱 이 새 끼 갈 뛰 어 도 내 다 리 만 못 하 다

25 남 문 용 사 토 끼 용 사 팔 딱 팔 딱 숨 념 어 간 다

29 팔 달 용 사 팔 삭 동 이 물 뽕 박 이 되 었 네

33 팔 달 산 에 토 생 원 호 호 씨 가 매 호 씨

37 구 물 구 물 짜 리 몽 달 기 복 등 으 로 오 그 라 졌 네

41 토 토 생 원 호 호 백 발 콩 각 지 신 세 가 되 었 네

45 툇 툇 뛰 는 콩 각 지 주 그 러 신 세 가 되 었 네

49 남 문 밤 에 호 영 감 토 갱 이 신 세 가 되 었 네

살 금 살 금 눈 치 보 다 빨 간 눈 이 되 었 네

야유소리-남군

장 안 장 군 북 장 군 동 네 북 이 되 었 네
 5 북 문 장 군 거 북 이 장 군 떠 거 지 장 군 풍 장 군
 9 요 리 조 리 도 망 치 자 남 문 지 방 에 걸 렸 네
 13 느 린 동 이 거 북 이 동 이 영 금 영 금 기 는 구 나
 17 쫓 쫓 이 장 군 장 군 명 군 통 장 군
 20 장 장 장 장 군 용 장 맹 장 시 장 파 장
 24 용 장 맹 장 시 장 파 장 들 고 도 는 떠 들 이 난 장
 28 모 락 분 에 감 자 타 듯 새 까 땅 게 났 구 나
 32 에 간 장 이 다 타 도 록 용 을 쓰 다 쓰 러 졌 네
 36 느 린 동 이 거 북 이 동 이 용 이 되 다 말 았 네
 40 느 린 동 이 거 북 이 동 이 영 금 영 금 기 는 구 나
 44 이 리 저 리 더 들 다 가 난 장 파 장 들 장 하 고
 48 시 장 끼 가 들 기 먼 땅 팔 달 장 으 로 오 기 라

응원소리는 북군, 남군의 응원소리와 야유 소리로 나뉜다. 각 군의 응원소리로 사기를 북돋은 다음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위해 야유소리를 한다.

이 노래는 간단한 선율이 있기는 있는데 악보 채보상의 어려움이 있어 리듬 꼴로만 표현했고 북군응원가 뒤에 북군 야유 소리가 나오고 남군 응원소리 뒤에 남군 야유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면의 편집상 응원가는 응원가대로, 야유소리는 야유소리대로 정리했다.

〈악보 7 선상에서 낚시도사와 어부들이 부르는 소리〉

선상에서 낚시도사와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홍은상

J. = 60

잡 았 네 - 잡 았 네 - 들 쥐 새 끼 를 잡 았 - 네

3
 잡 았 네 - 잡 았 네 - 들 - 쥐 예 미 를 잡 았 - 네

1. 잡았네 잡았네 들쥐새끼를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들쥐예미를 잡았네
2. 잡았네 잡았네 웅어 애비를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웅어 예미를 잡았네
3. 잡았네 잡았네 이무기 된 놈을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이무기 잡놈을 잡았네
4. 잡았네 잡았네 이무기할애빌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이무기할미를 잡았네

웅어는 민물장어 이다.

〈악보 8 낙시도사 서얼이 노래 (굿거리 문어잡이)〉

굿거리 문어잡이

채보년도:2012
 채보장소:수원시
 소리:김준일
 채보자:홍은상

J. = 60

잡고 잡고 또 잡고 보니 이런 문어를 잡았구려

3
 꼬아보세 꼬아보세 새끼꼬기, 동아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
 문어다리를 꼬아보세

5
 이다리는 동동다리요 저다리는 남창다리

7
 당겨보세 당겨보세 문어다리를 당겨보세

1. 잡고 잡고 또잡고 보니

이런 문어를 잡았네(잡았구려)-커다란 문어, 손짓으로 표현해도 됨

2-1. 꼬아보세 꼬아보세(새끼꼬기, 동아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

문어다리를 꼬아보세

2-2. 양지쪽에 꾸들꾸들

문어다리를 말렸다가

2-3. 꼬아보세 꼬아보세

이다리 저다리 꼬아보세

3-1. 이 다리는 동동다리요

저 다리는 남창다리

4-1. 당겨보세 당겨보세

문어다리를 당겨보세

4-2. 돌려보세 돌려보세(교체할 때)

두 가닥으로 돌려보세

4-3. 돌려보세 돌려보세

네 가닥으로 돌려보세

2-4. 이가닥 저가닥 당겨보세

이편 저편 당겨보세



- 3-2. 이가닥은 이리루 가고
저 가닥은 저리로 가고
- 2-5. 당겨보세 당겨보세
동에나 서에나 가려서고
- 2-6. 당겨보세 당겨보세
북에 남에 섞지 말고

이 노래는 새끼 꼬는 소리하고도 비슷한 선율로 되어 있으며 1번 형, 2번 형, 3번 형, 4번 형으로 4가지 유형이지만 2번 형과 4번 형은 같은 형의 리듬 꼴로 3가지 유형의 리듬 꼴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1번 유형은 한 번 출현하고 2번, 4번 유형은 아홉 번 출현하고, 3번 유형은 두 번 출현한다.

(3) 전래동요

전래동요로는 김숙경이 채보한 정월이라(명절), 바삭바삭 서생원, 동동 우리 아기등과²⁵⁾ 노동은이 채보한 불아 불아, 걸음마 걸음마, 앞니 빠진 중강새 등이 있다.²⁶⁾ 이들 노래들은 수원지역에서 채보된 노래들이다. 그런데 노동은이 채보한 노래들은 채보장소가 수원시 내교동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내교동은 매교동을 지칭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악보 사보 상에는 원본 중심의 지명을 따르되 괄호를 써서 내(매)로 추가해서 표기했다. 이 노래들이 수원에서 채보 했다고는 하나 앞니 빠진 중강 새는 전국적으로 불리는 노래이다.

25) 김숙경, 『한국 전통문화와 구전 전래놀이노래』, 서울: 동문사, 2006

26) 노동은 채보(수원지역 전래동요), 1979

하경 『수원·화성의 전래동요와 민요의 지역화 교재 개발 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재인용

〈악보 9 정월이라(명절)〉

정월이라(명절)

체보장소: 수원시
소리: 이천란(71)
체보, 편곡: 김숙경

원음은 정6도 아래음

정삼유구 월월월월 이삼이중 라진라구 대계유약 보비일쑥 몸오두름 날고날고 오사칠시 곡월월월 밤이칠상 에라석달 율초건조 놀과우상 이일적계 라날녀사

3 이오팔동 월월월월지 이이이달 라라라에 초단대동 하해보지 웃오름팔 날날날죽 산청송선 에포편달 가에파그 서일름 칸머달까 디리맞치 케감이셜 고고라날

〈악보 10 바삭바삭 서생원〉

바삭바삭 서생원

체보장소: 수원시
소리: 양원석(51)
체보, 편곡: 김숙경

바삭바삭 바삭바삭 서생원 이 감부쓰고장죽물고
생원꿈 버질 슬하하 생원건만 생귀때가그리물고
소꿈 질이 하하 고실어 가웃가웃 들들

3 아깨아 장찍장 아아장 나아장 읍여니다 아장아장 나아장 읍여니다
아아장 아아장 나아장 읍여니다 아장아장 나아장 읍여니다

〈악보 11 등등 우리아기〉

등등 우리 아기

채보장소: 수원시
소리: 김순덕(76)
채보, 편곡: 김숙경

등 등 - - 우리 아기 - 나 라 에 는 - 충 신 - 등 아

부 모 결 에 - 충 신 - 등 이 등 등 - - 우리 아기
 등 동 간 에 - 우 애 - 등 이
 일 가 친 격 - 화 목 - 등 이
 등 네 방 네 - 심 봉 - 등 이

금 을 주 면 - 너 를 - 사 라 은 을 - 주 면 너 를 사 라

등 등 - - 우리 - 아 기 등 등 - 등 등

〈악보 12 불아 불아〉

불아 불아

채보년도:1979
채보장소:수원시 내(배)교동
소리:서보명월
채보:노동은

불 아 불 아 불 아 불 아 불 아 딱 딱 불 어 라

이 쇠 가 - 어 디 흰 가 황 해 도 재 명 원 세

〈악보 12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채보년도: 1979
 채보장소: 수원시 내(매)교동
 소리: 서보명월
 채보: 노동은

$J = 76$

걸 음 마 걸 음 마 어 서 걸 어 라
 걸 음 마 걸 음 마 걸 음 마 걸 음 마
 우 리 에 기 짝 두 헌 다 걸 음 마 걸 음 마

〈악보 13 앞니 빠진 중강새〉

앞니 빠진 중강새

채보년도: 1979
 채보장소: 수원시 내(매)교동
 소리: 서보명월
 채보: 노동은

$J = 72$

앞 니 빠 진 중 강 새 우 물 가 예 가 지 마 라
 붕 어 새 끼 놀 라 자 빠 진 다 옷 니 는 - 옷 지 붕 에 없 구
 아 랫 니 는 아 랫 지 붕 에 없 구 까 치 까 치 현 니 주 께 새 이 다 오

지금까지 악보 상으로 살펴본 전래놀이요, 전래동요의 가사들은 다소 순박하고 선율이 단순하다. 전래놀이요 악보2는 서둔동의 서호 저수지에 살았다는 물고기 납줄쟁이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노래의 원래의 의미는 정조대왕의 능행차시 출세를 위해 서울로 가는 능행차를 따라가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²⁷⁾ 수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악보4의 우렁이 타령에는 연무활랑, 수류정 건달님네에서 수류정은 방화수류정을 지칭하며, 팔월 달산 처녀 총각에서 팔월 달산은 팔달산을 지칭하는 등 수원의 지명에 대한 가사가 제시되어 있고 악보6의 응원소리는 북군은 북문을 상징하며 남군은 남문을 상징하며 팀을 나눈다.²⁸⁾ 응원소리에도 수원의 지명인 장안문, 팔달문, 팔달시장 등의 단어들 나온다. 전래동요 안에서는 수원에 대한 가사는 찾을 수가 없었다.

2. 수원의 대중민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조선미인보감』의 수원기생들의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수원기생들은 가사, 시조, 경성속요, 경성잡가, 남도리요, 서도리요, 등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수원기생조합이 1930년대에 생겼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1930년대 수원에서는 이미 각 지역의 민요들이 향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엔 정조대왕의 화성축성으로 행궁이라는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중앙의 문화가 유입됐고, 교통의 발달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쉽게 왕래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현재에는 수원에서 어떤 민요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향유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 방법으로는 수원에 있는 국악 단체들이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공연을 통해 각 단체가 어떤 내용의 공연에 어떤 민요를 불렀는지 살펴볼 것이며, 각 단체의 공연 내용을 중심으로 팜플릿을 수집하여 공연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를 내기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년도의 자료 수집과 더 많은 공연 자료를 수집했어야 했는데 2012년도 11월까지의 공연으로 국한한 점과,

27) 김준일 대담, 2012년, 11월 20일.

28) 김준일 대담, 2012년, 11월 20일.

팜플렛 등의 기록된 공연 중심으로 국한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조사에 앞서 용어에 대한 혼동이 우려 되므로 『조섬미인보감』에 기록된 기생들이 행했던 기예들의 장르별 용어를 현재 불리고 있는 용어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경·서·남리 곡은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등 각도의 민요를 칭하고 있는 듯하고, 병창은 가야금 병창과 거문고 병창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병창인지 알 수 없으나 주로 가야금 병창이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사, 시조는 기존대로 가사 시조로 경성잡가와 경성속요는 경기 잡가로 경리곡은 경기민요라고 하고, 남도리창, 남리곡은 남도민요로, 남도잡가는 남도잡가, 서관잡가는 서도잡가, 서관리요, 서리곡은 서도민요라고 칭하겠다. 즉 가사→가사, 시조→시조, 경성 잡가(경성속요),→경기 잡가, 경리곡→경기민요, 남도잡가→남도잡가, 남도리창→남도민요, 서관잡가→서도잡가, 서관 리요→서도민요로 정리하겠다.

〈표 1 20012년 수원에서 열린 민요 관련 공연〉

주최/주관	행사명	내용	장소 및 일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도립국악단	신춘음악회	기악연주 우리비나리(경기민요창법으로 만들어진 곡임)	경기도 문화의 전당 행복한 대극장 3월29일
사)서도소리진흥회 수원지부	제2회 경.서도민요 경창대회	서도민요: 경발림, 개성난봉가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5월 16일
경기도/(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012경기무형문화재대축제,예술혼의 향연	경기잡가 휘몰이잡가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무대 6월2일-3일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	사)전통예술원우리소리, 한국생활국악연합회통합출범식	경기민요(금강산타령,노랫가락,청춘가,태평가,벚노래,жат은벚노래) 서도민요(경발림,개성난봉가,연평도난봉가) 시조(청산은,기러기)	경기도 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6월10일
국악연주단 허브	2012찾아가는 문화활동	기악 연주 배 띄워라	태장고등학교 6월15일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수원시지부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수원시지부 정기공연	경기잡가(제비가), 경기민요(풍년가,청춘가,노랫가락,창부타령),판소리(심청가)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6월16일

주최/주관	행사명	내용	장소 및 일시
국악연주단 허브	2012찾아가는 문화활동	기악연주 배띠워라	수일여중 7월12일
사)한국생활 국악연합회	수원 화성백중제	경기민요(한오백년,강원도 아리랑, 태 평가,양산도,밀양아리랑), 서도민요(경발림,개성난봉가,연평도난 봉가,해주아리랑) 시조(청산은,나비아)	수원패션아일랜드야 외 9월1일
(사)한국국악협 회경기도지회/경 기국악제 집행위 원회	제18회 경기국악제 전 국대회	경기민요(긴아리랑,구아리랑,아리랑)	경기도 문화의 전당 행복한 대극장 9월1일-2일
사단법인 수원예 총	제8회수원예술인축제 개막공연	판소리(사랑가-춘향가) 쑥대머리(창작곡임)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9월3일
사단법인 수원예 총/(사)한국국악 협회경기도지회	제8회수원예술인축제 가을秋 우리음악여행	기악연주 판소리(춘향가-사랑가, 쑥대머리) 경기민요(한오백년,강원도아리랑,청춘 가,창부타령)	수원월드컵경기장 야 외무대 9월8일
경기도/전통예술 단우리소리	2012찾아가는 문화활동	기악연주 경기민요(노랫가락,청춘가,태평가,뱃 노래,жат은뱃노래)	영통벽적골공원 9월15일
사)한국생활국악 연합회/전통예술 단우리소리	한가위 국악한마당	기악연주 배띠워라, 경기민요(청춘가,태평가,뱃노래,жат은 뱃노래)	수원패션아일랜드야 외무대 10월1일
경기도 미술관	판소리 전	흥보가(흥보박타는 대목) 춘향가(이별대목) 수궁가(일개한퇴) 적벽가(조자룡활쏘는대목) 심청가(심봉사 눈 뜨는 대목)	경기도 미술관1층 야 외테라스 대안공간 10월12일-14일
사)한국생활국악 연합회	제11회수원화성주부국 악제생활국악 대축전	서도민요:배치기,연평도 난봉가 경기민요: 노랫가락,청춘가, 창부타령	수원 제1일 야외음악 당 11월 10일

위의 <표1>을 분석해보면 총 14회의 공연 중 경기민요는 7회 공연되어졌고, 서도민요 4회, 판소리 4회, 경기 잡가 2회, 시조 2회, 휘몰이잡가1회로 나타났다. 경기민요와 경기 잡가, 휘몰이잡가는 경기민요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고,

따라서 <표1>의 근거로 볼 때 경기민요라는 장르가 경기민요와 경기 잡가, 휘몰이잡가를 합쳐서(7회+2회)총 9회로 가장 많이 불려 졌고, 곡목으로는 청춘가(6회), 태평가(4회), 노랫가락(4회), 창부타령(3회), 뱃노래(3회), 잣은 뱃노래(3회)가 주로 불려졌다. 경기민요 다음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장르로는 서도민요와, 판소리(남도 민요)가 각각 4회로 두 번째이고, 그 다음은 시조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는 공연되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남도민요 범주의 노래들은 판소리가 공연의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수원에서는 각 지역의 민요가 모두 불리고 있고 그 중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민요는 경기민요이고 경기민요 중에서 많이 불린 곡목은 청춘가, 태평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뱃노래, 잣은 뱃노래 등 이다. 각 곡들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가사 2 청춘가(靑春歌)>

1.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2. 청춘 흥안을 네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3.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4.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라.

<가사 3 태평가(太平歌)>

1.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는 바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 니나노 날리리아 날리리아 니나노 얼사 좋아 얼시구 좋다
별 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 날아든다.
2.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공수래공수거 하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3. 개나리 진달화 만발해도 매란국죽만 못하느니 사군자 절개를 몰라 주니 이보다 큰 설움 또 있으리.

<가사 4 노랫가락>

1. 충신(忠臣)은 만조정(滿朝廷) 이요 효자 열녀(孝子烈女) 는 가가재(家家在) 라 화형제 낙처자(和兄弟樂妻子) 하니 봉우유신(朋友有信)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城主) 모시고 태평성대(太平聖代) 를 누리리라.

2. 무량수각(無量壽閣) 집을 짓고 만수무강(萬壽無疆) 현판(縣板)달아
삼신산(三神山) 불로초(不老草) 를 여기 저기 심어 놓고
북당(北堂)의 학발양친(鶴髮兩親)을 모시여다가 연년익수.
3. 나비아 청산(靑山)가자 호랑나비아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 머는 꽃에서라도 자고가지
꽃에서 푸대접하면 앞에서라도 자고 갈까.

〈가사 5 창부타령(倡夫打令)〉

※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1. 백두산(百頭山) 천지(天地) 가엔 들쭉 열배 아름답고 구비치는 압록강(鴨綠江)엔 뗏목
또한 경(景)이로다. 금강산(金剛山) 비로봉(毘蘆峯) 엔 기화이초(奇花異草) 피어 있고,
해금강(海金剛) 총석정(叢石亭) 엔 넘실대는 파도(波濤) 위에 백조 쌍쌍(白鳥雙雙) 흥
(興)겨운다. 배를 타고 노(櫓)를 저어 대자연 좋은 풍경 마음대로 즐겨 볼까.

※ 열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2. 한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落花) 진다고 설워 마라 한 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번연
히 알건마는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리거던 무심(無
心)코 밝고 가니 긴들 아니 슬플 소냐 숙명적(宿命的)인 운명(運命)이라면 너 무도 아
파서 못 살겠네

※ 열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3. 간밤 꿈에 기러기 보고 오늘 아침 오동(梧桐) 우에 까치 앉아 나를 보고 반기면서 짓
었으니, 반가운 편지 올까 그리던 님이 올까 기다리고 바랐더니 일락서산(日落西山)
해는 지고 출문망(出門望) 이 몇 번인가 언제나 유정(有情) 님 만나 화류동산 춘풍리
(花柳東山春風裡) 에 이별(離別) 없이 살아 볼까

※ 열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사 6 뱃노래〉

※ 어기야 디여차 어야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1. 부딪치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 소리 처량도 하구나.
2.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뱃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3. 하늬바람 마파람아 맘대로 불어라 키를 잡은 이 사공도 갈 곳이 있다네.
4. 바람 앞에 장명등은 꺼지건 말건 우리들의 사랑만은 변치를 마잔다.

〈가사 7 짝은 뱃노래〉

- ※ 어야디아 (어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 디야~
 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헤에에 야아아~ 에헤 에헤 에헤야
 어허야아아 어야디아 (어야디아)
1. 달은 밝고 명랑한데 어야디아 고향생각 절로난다. (어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 디야~ 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헤에에 야아아~
 에헤 에헤 에헤야 어허야아아 어야디아 (어야디아)
2. 순풍에다 돛을 달고 어야디아 원포귀범 떠들어온다. (어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디아) 어기야 디야~ 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헤에에 야아
 아~ 에헤 에헤 에헤야 어허야아아 어야디아 (어야디아) ~

위의 곡들은 제시된 가사보다 더 많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몇 절씩만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각 곡의 가사들은 삶의 애환, 사랑, 자연, 효 등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

(1) 경기민요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수원에서 불리고 있는 민요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시조 등 다른 지역의 민요들도 모두 불리고 있고 그 중 경기민요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향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민요는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민요로 잡가, 휘몰이잡가, 선소리산타령, 민요(좁은 의미의 장르적 표현: 청춘가, 노랫가락, 태평가, 창부타령 등등) 등이며 흔히들 경기소리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한다.

민요라는 용어 안에는 경기 잡가, 휘몰이잡가, 경기선소리산타령, 경기민요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장르적 해석과, 위의 노래들이 장르는 다르지만 향유층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민요라고 보는 개념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민요라는 개념은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에서 부터 그 명칭이 시작됐고²⁹⁾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용되고 있다.³⁰⁾ 그렇기 때문에 장르를 구분할 때 적잖은 혼동이 따른다. 즉 민요라는 용어는

29) 임경화 편저, 『근대한국과 일본의 민요창출』, 2005

30) 임경화 편저, 『근대한국과 일본의 민요창출』, 2005, 159쪽

전체를 포함하면서도 또 일부의 노래를 지칭하기도 한다. 민요라는 말이 생겨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의 노래들을 민요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 지고, 한 장르의 노래가 탄생하였으나 그 장르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민요보다는 풍요(風謠) 또는 요(謠)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풍요는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良志使錫)」에 의하면 영묘사(靈廟寺)의 불상을 만들 때 일을 도와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노래를 지어 일을 하면서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때 풍요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풍요는 노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풍속(風俗) 노래의 의미로 민요적 성격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풍요는 민요라는 용어보다 더 앞선 시대부터 지칭하던 표현이기도 하겠거니와 풍속을 노래했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요는 노래라는 의미로 경기도 하면 경기지역의 노래로서 경기지역의 모든 장르의 노래를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민요에도 이런 용어를 적용시킬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은 용어에서 오는 혼돈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이다. 그렇다고 현재 일부에서 풍요나, 요라고 한다고 해서 민요의 명칭이 풍요나 요가 될 수 없으므로 민요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민요가 민족의 노래라는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장르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장르별로 구분 되어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성악곡의 공연형태는 크게 앉아서 부르는 노래와 서서 부르는 노래로 구분한다. 즉 입창(立唱)과 좌창(坐唱)으로 구분하는데, 입창에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남도잡가, 서도민요 등이 있고 좌창에는 경기 잡가, 휘몰이 잡가, 서도잡가, 가곡, 가사, 시조 등이 있다.

민요와 잡가의 연주형태는 민요는 분절형식³¹⁾으로 가사 외에 후렴구가 발달하여 가사와 후렴구를 나누어 부르는 것이 특징이고, 잡가는 긴 사설을 통절형식³²⁾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민요(좁은 의미)는 청춘가, 태평가, 창부타령, 노랫가락, 뱃노래, 잣은 뱃노래, 방아타령, 아리랑,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오돌

31) 본절과 후렴구를 나누어 부름.

32) 긴사설을 끊지 않고 이어서 부름.

독, 등등이며, 다른 장르의 곡에 비해 곡수가 많고 수원지역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노래들이다.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빠른 곡으로 끝내며 여러 곡을 한데 묶어 연곡 형식으로 부른다.

경기 잡가는 『조선민인보감』에 기록된 경성잡가, 경성속요에 해당되는 곡들이며³³⁾, 경기 긴소리라고도 하고, 12 좌창(坐唱)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음악형식이 섞여있다는 의미에서 잡가라고 하고 곡목으로는 유산가, 제비가, 소춘향가, 적벽가, 선유가, 출인가,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평양가, 달거리 등 내용은 판소리의 일부 사실을 따왔으며 전문 소리꾼에 의해 전승되었다.

휘몰이잡가는 만학천봉, 곰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육칠월흐린날, 생매잡아,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한잔부어라, 비단타령, 순검타령(巡檢打令) 등이며 휘몰이라는 말은 사설(辭說)을 빠른 속도로 촘촘히 휘몰아쳐 나가는 창법에서 붙인 이름이고 음악적 특징이나 창법은 12잡가와 같다. 잡잡가라 하여 금강산 타령, 장기타령을 분류하기도 한다.

경기선소리산타령은 여럿이 한 줄로 서서 장구를 멘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소고(小鼓)를 든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주는 형식으로 여러 곡을 접속으로 부른다. 곡목으로는 놀량(놀량사거리),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도라지타령),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북궁타령, 청개구리타령과 같은 민요를 덧붙인다.

경기민요(넓은 의미)의 창법은 경토리로³⁴⁾ 불리고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향토민요이건, 대중민요이건 전문적으로 소리를 하는 사람에 의해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민요는 197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로 지정되었고, 예능보유자로는 안비취, 이은주, 목계월에서 이은주, 이춘희로 이어졌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는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1996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가호, 경기휘몰이잡가 예능보유자는 이성희 이고, 199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나호 경기소리 예능보유자는 임정란으로 지정되었다. 경기선소리산타령은 196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로 휘몰이 잡가로 지정되었고, 예능보유자로는 황용주가 있다. 휘몰이 잡가는 1998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

33) 이창배, 『가창대계』, 1976.

34) 경기민요를 부르는 창법(솔, 라, 도, 레, 미 형의 5음 음계(창부타령조)와 라, 도, 레, 미, 솔 형의 5음 음계를 사용한다.)

가로 지정 되었고 예능보유자로는 박상옥이 있다.

현재 수원에서 경기민요를 전승하는 단체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수원지부, 사)한국 전통민요 협회 수원지부, 선소리산타령 전수회관, 경기민요연구원, 우리소리국악원 등이 있다.

(2) 그 밖의 대중 민요

남도민요는 전라도지방의 민요를 일컬으며 넓은 의미의 남도민요 안에 남도민요, 남도잡가 등을 포함 시킬 수 있고 판소리는 남도민요 창법으로 불리기는 하나, 하나의 독립된 장르라고 보아야한다. 남도민요의 종류로는 농부가,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흥타령, 남원산성 등이고, 남도잡가는 보렴, 화초사거리, 외에도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흥타령, 개구리타령, 새타령, 성주풀이 등이다. 그런데 남도민요민요와 남도잡가는 중복되는 곡들이 있고, 경기 잡가와, 서도 잡가가 좌창인데 비해 남도잡가는 서서 부르는 입창인 것으로 보아 민요와 잡가의 장르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창법은 육자배기 토리³⁵⁾ 또는 남도민요 토리이다. 오늘날 남도민요나 남도잡가보다는 판소리가 성행하고 있고, 창작을 하더라도 판소리의 가사를 중심으로 곡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현재 수원에서 남도민요 및 판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단체는 사) 판소리 진흥회가 있다.

서도민요 평안도 및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민요로 거의가 일정한 장단이 없으며, 간혹 있더라도 사설을 따라서 적당히 쳐주는 불규칙한 장단법이다. 창법은 '수심가토리³⁶⁾' 또는 '수심가조'이다.

서도잡가에는 공명가(孔明歌), 사설공명가, 제전(祭奠), 초한가(楚漢歌),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적벽부(赤壁賦), 관동팔경(關東八景),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관산옹마 등이 있고, 서도민요에는 수심가, 엮음수심가,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영변가(寧邊歌), 긴아리, 자진염불,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사

35) 남도민요를 부르는 창법(미, 라, 시 3음중심이며 미는 떠는 음, 라는 평으로 내는 음, 시는 꺾는 음이다.)

36) 서도민요를 부르는 창법(레, 미, 솔, 라, 도의 5음 음계와 라, 도, 레, 미, 솔 형의 5음 음계를 사용한다.)

리원난봉가, 감내기, 몽금포타령 등이 있다.

현재 수원에서 서도민요를 전승하는 단체는 사)서도소리진흥회 수원지부가 있다.

시조는 가곡, 가사와 함께 정가라 하여 서민들의 노래인 민요의 개념보다는 귀족 중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귀족 중심의 노래를 서민들의 노래인 민요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은 다소 장르의 모호성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수원에서 시조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미인보감』에 따르면 수원기생이 가사, 시조 등등에 능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수원에서 시조가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수원에서의 시조 역사를 살펴보면, 1957년 3월 당시 수원갑부로 알려진 양규봉이 그의 집 후원 초당에다 시객 20여 명을 모아 놓고 수원시조동우회를 만들었다. 학술 연구와 친교를 목적으로 시객들이 모여 시조로 세월을 노래하는 등 풍류를 즐겼다. 그해 10월 19일 수원시조동우회는 장악원을 발족 하게 되고, 1969년 10월에는 한국국악협회 수원지회로, 1970년 3월에는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부를 창립하였다.³⁷⁾ 현재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기도 지회에 이르렀다. 이렇듯 시조동우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수원의 국악예술의 산실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기도 지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이들은 수원 국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 시조를 전승하는 단체는 사)한국예악총연합회 경기도 지회, 사)대한 시조협회 수원지부가 있다.

37) 수원 문화예술사, 「제1편 조선후기 수원지역 연행 예술」, 2004 (공연예술 편지)47-48쪽

입창(立唱)의 공연형태 -전통예술단 우리소리정기연주회(경기민요)



좌창(坐唱)의 공연 형태 - 경기12잡가완창공연(흥은상)



V. 맺음말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은 일제강점기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재인들과 기생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은 화성행궁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중앙의 문화예술이 받아들여졌고, 화성행궁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이 싹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원은 오래전부터 다른 지역과의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의 노래들이 유입됐고, 수원만의 특색을 가진 민요는 드물다고 하겠다. 그나마 화홍문 담교놀이 안에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전래놀이요 안에는 수원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노래들이 몇 곡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형태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대중민요가 형성되는데, 그 시기의 대중민요로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청춘가, 태평가 등 현재 경기 민요라고 하는 곡들이며 신민요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의 대중가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악사에서도 성악곡의 역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노래들로 한정하는데 그 이유는 현전하는 노래들이 그 시기의 노래들이기 때문이다.

수원의 민요 역시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재인청의 재인들이 부르던 노래들과 수원기생들이 부르던 노래들이 수원 민요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역시 그 당시 부르던 노래들이 현재에도 전승되어 불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자연 발생한 향토민요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노래들 역시 정확한 발생연대의 기록이 없고, 곡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요의 유행정도는 예술성의 차이로 보여 지는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민요와 그렇지 않은 민요에서 알 수 있다. 즉 대중민요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리고 있으며 전래놀이요와 전래동요는 누구나가 즐겨 부고 있지는 않다. 향토민요들은 대중민요에 비해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가사의 내용면에서도 단순하여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요는 놀이 자체를 발굴하여 놀이를 재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동요는 초등저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전승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 불리는 대중민요는 경기민요, 판소리(남도민요), 서도민요, 시조 등이고 이 순서는 애창 되어지는 순서이기도하다. 그 근거는 2012년 1월-11월까지의 공연기록물로 살펴보았는데, <표1>의 분석결과 총 공연 횟수 14회 중 경기민요 공연 횟수는 9회를 차지했다. 많이 불린 노래로는 청춘가, 태평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뱃노래, 잦은 뱃노래 순이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정서(사랑, 삶의 애환, 자연, 효 등)를 담고 있었다. 경기민요 전승단체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수원지부, 사)한국 전통민요 협회 수원지부, 우리소리 국악원, 경기민요연구원, 선소리산타령 전수회관 등 13개 단체들 중 5개의 단체였고, 사)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와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의 각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7개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민요가 제일 많이 불리고 있고, 전승 단체도 제일 많은 것으로 보아 수원을 대표하는 대중민요는 경기민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원의 민요는 화흥문 답교놀이 안에서 불리는 전래놀이요와 전래동요 등의 향토민요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향유되어지고 있는 대중민요인 경기민요와 그 밖의 대중민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명혜, 「시조의 변이 양상」,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2006.
- 김대행(金大幸), 「시조형식의 의미(時調形式의 意味)」,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1995.
- 김숙경, 『한국 전통문화와 구전 전래놀이노래』, 동문사, 2006.
- 김학성, 「時調史의 展開와 樂時調」, 『시조학론총』, 시조학회, 1995.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1991.
- 백순철, 『시조집(연대본)』 의체제와 수록 작품의 특징.
- 신순웅, 「시조창 연원소고」,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
- 신영명, 「여말선초 시조의 세 가지 국면」, 『학시조론총』, 한국시조학회, 2008.
- 송은주, 『경기12잡가의 시대적변화연구-20세기 초의 12잡가와 현행12잡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능우(李能雨), 『이조시조사(李朝時調史)』, 이문당(以文堂), 1956.
- 이동근, 『의기의 수원기생』, 2011.
- 이성천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납, 1994.
- 이창배, 『가창대계』, 1976.
- 임종찬, 「시조의 三章 구조 연구」,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1999.
- 원용문(元容文), 「시조형식에 대한 논의(時調 形式에 대한 論議)」,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1991.
- 정병욱(鄭炳昱), 「별곡(別曲)의 역사적(歷史的) 형태고(形態考)」, 『국문학산와(國文學散藁)』, 신구문화사(新丘文化社), 1959.
- 조규익, 「시조발생 담론의 전개양상과 지향점」,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2007.
- 조규익, 「시조와 궁중 악장의 관계」, 『시조학론총』, 한국시조학회, 2006.
- 조선연구회(송방송 색인, 이진원 해제), 『조선미인 보감』, 민속원.
- 조운제, 『국문학사(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63.
- 최동원, 「시조의 형성계층과 형성기」, 『부산대문리대논문집16』.
- 하 경, 『수원화성의 전래동요와 민요의 지역교재개발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사)화성연구회, 『수원 문화예술사-공연예술편』, 2004.
- 황용주, 『경·서도창대계』,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1992.

국문요약

한류의 열풍 속에 한류의 근원인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시기에 수원을 대표로 하는 민요는 무엇일까? 라는 우리지역의 전통음악에 대한 원류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일제강점기 표면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재인(才人)들과 기생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재인청 재인들과 수원기생 역시 수원의 문화 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재인들은 화성행궁에서 연회를 펼쳤던 것으로 보아 전통음악의 전승자 역할을 했고, 수원기생들 역시 가사, 시조, 경성잡가(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잡가 등에 능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재인청의 재인들과 함께 전통음악의 전승자였음을 알 수 있다.

수원의 민요를 살펴보면, 민요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민중의 노래이며, 민중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온 서민문화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수원기생들이 부르던 노래들과 화홍문 답교놀이 안에 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전래 놀이요(遊嬉謠)와 전래동요들을 수원민요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르던 노래들이 현재도 불리고 있고, 전승되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자연 발생한 향토민요인 농요(農謠)나, 노동요(勞動謠)등과 더 많은 놀이요(遊嬉謠)와 전래동요들이 있겠지만 그 노래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노래들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수원기생의 노래들은 민속원의 『미인보감』에서, 화홍문 답교놀이는 경기도 재인청 출신인 이동안의 고증으로 유청자가 복원한 화홍문 답교놀이에서 놀이의 방식과 놀이요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김숙경의 『한국 전통문화와 구전전래놀이 노래』에서 전래동요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수원기생들은 가사, 시조, 경성잡가(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잡가 등에 능했다는 기록이 있고, 전래 놀이요는 화홍문 답교놀이 안에 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거미줄 돌리기 소리, 서호납줄쟁이소리 등이 있고, 전래 동요로는 한 다리 두 다리, 명절놀이, 바삭바삭 서생원, 똥똥 우리 아기 등이 있다. 화성 행궁 축성 당시 부르던 노동요(勞動謠)는 김준일 고증을 통해 이을세라 이을세라로 시작되는 노래 1곡의 가사만을 찾을 수 있었다.

수원은 화성행궁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중앙의 문화예술이 받아들여졌고, 화성행궁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원은 오래전부터 다른 지역과의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의 노래들이 유입됐고, 수원만의 특색을 가진 민요는 드물다고 하겠다.

일제강점기 문화형태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대중민요가 형성되는데, 그 시기의 대중민요로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청춘가, 태평가 등 현재 경기민요라고 하는 곡들이며 신민요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의 대중가요인 것이다.

민요의 유행정도는 예술성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민요와 그렇지 않은 민요에서 알 수 있다. 즉 대중민요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리고 있는데 향토민요인 전래놀이요와 전래동요는 누구나가 즐겨 부르고 있지는 않다. 향토민요들은 대중민요에 비해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가사의 내용면에서도 단순하여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요는 놀이 자체를 발굴하여 놀이를 재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동요는 초등 저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전승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중적으로 파급 여파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수원의 고유한 향토민요인 만큼 전승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 불리는 대중민요는 경기민요, 판소리(남도민요), 서도민요, 시조 등 이고 이 순서는 애창 되어지는 순서이기도하다. 그 근거는 2012년 1월-11월까지의 공연기록물로 살펴보면, 표.1의 분석결과 총 공연 횟수 14회 중 경기민요 공연 횟수는 9회를 차지했다. 많이 불린 노래로는 청춘가, 태평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뱃노래, 잦은 뱃노래 순이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정서(사랑, 삶의 애환, 자연, 효 등)를 담고 있었다. 경기민요 전승단체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수원지부, 사)한국 전통민요 협회 수원지부, 우리소리국악원, 경기민요연구원, 선소리산타령 전수회관 등 13개 단체들 중 5개 단체였고, 사)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와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의 각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7개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민요가 제일 많이 향유되고 있고, 전승단체도 제일 많은 것으로 보아 수원을 대표로하는 대중민요는 경기민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원의 민요는 화홍문 답교놀이 안에서 불리는 전래놀이요와 전래동요

등의 향토민요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향유되어지고 있는 대표적 대중민요인 경기민요와 그 밖의 대중민요인 판소리(남도민요), 서도민요, 시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요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고, 오랜 세월 우리민족과 함께해온 노래인 만큼 수원민요의 보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민요 안에는 수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화성행궁, 수원재인청의 재인들, 수원기생조합의 수원기생, 향토민요와 대중민요, 경기민요

Abstract

Suwon's beautiful song, Minyo

Hong, Eun Sang(Seok Bun)

Looking into the Suwon's folk song, Suwon is the number one city, not far away from the capital city Seoul, the Folk Song of Suwon absorbed ones cre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As Folk Song is the public song which continues to be handed down to this day incessantly for a long time and the complex of people's culture which has taken root and developed among the people lives, so we can't assure what kind of music the Jain (Korean traditional music artist) at Jain-cheong (a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which manages the artists who play music) had played. In spite of that, since they performed a musical play in Hwaseong Fortress,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aditional music's succession. Additionally, As an archives shows that Suwon-Gisaeng (female performers who danced, sang, and played musical instruments in Suwon) were proficient in lyrics, sijo(Korean poem), Kyungsung's popular folk song(Gyeonggi folk song), Seo-do folk song (folk song in the northwestern districts of Korea), and Nam-do folk song(folk song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they also are an hei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ogether with Jain.

In particular, it is enough to infer that the songs by Suwon-Gisaeng, the traditional songs while they were playing treading on the bridge in Hwahongmun,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can be the original form of Suwon's folk song. It is because the songs of



genres sung at that times has been sung to this day and handed down among people. Though it is widely known that there were Nong-yo (spontaneously generated farmer's song), Rodong-yo (song over farming), Nori-yo (song over play)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in Suwon at earlier times, the accurate records on them aren't transmitted, so I have no alternative but to base Suwon's folk song on folk songs which remain in official records.

The research on the songs by Suwon Gi-saeng was performed mainly focused on the play method and Nori-yo (song over playing game) in the book 『the beauty art book』 by Minsokwon (the folklore institute). On the other hand, the study on 『Hwahongmun-dabgyo-No-ri』(the traditional songs while they were dancing with treading on the bridge in Hwahongmun) primarily was grounded on Hwahongmun-dabgyo-No-ri restored by Yoo, Chong-za chiefly centered on the research conducted by Lee, Dong-an from Jain (Korean traditional music artist) at Jain-cheong (a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which manages the artists who play music in the Joseon Dynasty era) by checking on its story. Besides, th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in Suwon was conducted primarily referred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Folk Song』 by Kim, Suk-Gyeong.

There are records that Suwon-Gisaeng (female performers who danced, sang, and played musical instruments in Suwon) were proficient in lyrics, sijo(Korean poem), Kyungsung's popular folk song (Gyeonggi folk song), Seo-do folk song(folk song in the northwestern districts of Korea), and Nam-do folk song(folk song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Nori-yo(song over play) includes Geomijyul-dolligi-sori sung playing stepping on the bridge at Hwahongmun in Suwon, Seoho-napjulgangi-sori, etc,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includes Han-da-ri, Do-da-ri, Myeong-jeol-nori, Ba-sak-Ba-sak-Seo-sang-won, Doong-doong-woori-agi, etc.

What is most desired, however, is that though there existed Nong-yo (spontaneously generated farmer's song), Rodong-yo (song over farming), it doesn't remain records for the research and thus, it is difficult in finding out the records. Still worse, There was no detecting in 'the history of Suwon City'(the historical book about Suwon's history),or 'local folk history'(the book which records the ancient folk history of local area).

The extent of transmission and repercussion of the Suwon's folk song looks like it originates from artistry and tells from the extent of repercussion of Chang(folk song that was sung a lot) folk song which gained popularity with the public and the traditional Nori-yo which was song over play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In other words, in Chang folk song's case, it has been handed down among people and sung by many people, but the traditional Nori-you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weren't folk songs which were sung by anyone. Compared to Chang folk song, they didn't gain recognition for their artistry. Therefore Nori-yo has to place emphasis on recreating with finding play itself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has to place emphasis on instructing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To be brief, with the influence of history and the geographical location, Suwon's folk song absorbed ones cre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nd show sit have been handed down by the Jain at Jain-cheongin Gyeonggi-do and Suwon-Gisaeng Association.

Besides, Nori-yo that was spontaneously generated and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s are part of Suwon's folk song, and their repercussion effect is weaker than Chang folk song. Although the extent of repercussion effect depends on depth of artistry and is weak, because it is the intrinsic traditional nursery rhyme of Suwon area, it needs to make an effort to set up a system for tradition.



The folk song is not a song that is popular temporarily but it has been with our n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most important of all is to promote Suwon's folk song because Suwon's past, present and future are in Suwon's folk song.

Keyword : Hwaseong Fortress, The Jain(Korean traditional music artist) at Jain-cheong, Suwon-Gisaeng Association, The traditional song and Popular folk song, Gyeonggi folk song

토론문
...

정조, 우리시대 멘토인가?

- 사회 :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 패널 :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준혁(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계승범(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기봉(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조의 능행과 위민정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문식

- I. 머리말
- II. 정조의 능행일지
- III. 정조의 대민 접촉
- IV. 정조의 민원 해결
- V. 지방민을 위한 조치
- VI.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의 국왕들은 왕릉에 행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예를 올리는 것은 효를 숭상하는 유교국가의 일반적 관행이었고, 국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조는 왕위에 즉위한 이듬해부터 사망할 때까지 경기도 일원에 흩어져 있는 왕릉을 참배하는 능행(陵幸)을 계속했다. 정조는 능행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계통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이는 특히 영조와 사도세자의 묘소를 방문함으로써 나타났다. 또한 정조는 상공업의 발달로 사회 변동이 활발하던 수도권 지역을 방문하여 사민(士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는 등 수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글은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정조, 우리시대 멘토인가?’ 토론회를 위해 작성한 것이며, 수원학연구소에서 필자에게 의뢰한 제목은

‘정조의 능행을 통해 본 정조의 위민적 가치와 사고’이다. 정조의 능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위민정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¹⁾

II. 정조의 능행일지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총 66회에 걸쳐 경기도 일원에 흩어져 있던 왕릉을 방문했다. 정조가 방문한 장소는 왕릉에 국한되지 않고 왕실 가족의 원묘(園墓)에도 미쳤다. 정조의 능행은 1777년(정조 1) 2월부터 1800년 3월까지 계속되며 연평균 3회에 달한다. 영조의 능행이 통상 연 1회, 많아야 2회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정조의 능행은 매우 잦았음을 알 수 있다. 동구릉(정조 당시는 동철릉), 서오릉, 서삼릉에서 보듯 왕릉의 대부분은 서울의 근교에 있었고, 정조의 능행은 당일애 참배를 마치고 환궁(還宮)하는 경우가 38회나 된다. 그러나 7박 8일, 4박 5일, 3박 4일과 같이 도성 밖에서 여러 날 머무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방문지의 행궁이나 재실(齋室)을 숙소로 이용했다.

정조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소인 영우원(永祐園)과 현릉원(顯隆園)을 방문한 것은 31회에 이른다. 권력 투쟁의 와중에 희생된 생부(生父)의 죽음을 신원(伸冤)하고, 자신의 혈통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²⁾ 국왕이 된 정조는 1781년부터 영우원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1789년 영우원을 수원으로 이장하여 현릉원을 조성한 이후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문하여 생부에 대한 끝없는 추모의 정을 표현했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승하려는 목표를 가졌다.

1) 본고는 주로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2) 정조는 즉위한 날 발표한 繪音에서 ‘자신이 思悼世子の 아들’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正祖實錄』 권1, 正祖 즉위년 3월 辛巳).

Ⅲ. 정조의 대민 접촉

정조의 능행은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린 성대한 행차였다. 능행은 행렬이 화려하고 국왕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정조가 행차할 때 능행로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실록에서는 이들을 ‘관광민인(觀光民人)’ 즉 구경하는 백성이라 표현했다. 따라서 정조는 능행을 통해 백성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1779년 정조가 여주 청심루(淸心樓)에서 군사훈련을 했을 때 여주의 남녀노소 수만 명이 남한강 강변으로 몰려나와 구경했다. 이튿날 이튿날 행궁에 행차했을 때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정조는 ‘저들이 모두 나의 적자(赤子, 자식)이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³⁾

임금이 말했다. ‘이번 연로(輦路)에서 구경하는 백성이 많은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렇게 많이 모인 자가 모두 나의 자식인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안정할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한탄이 없게 하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밀어서 도랑 속으로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조가 백성들을 직접 만나게 되자 국왕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백성이 나타났다. 1784년 정조가 영릉(永陵)을 방문하고 환궁하는 길에 고양에 이르자 떡을 주려는 백성이 있었다. 경기감영에서 무엄하다며 벌을 주려고 하자 정조는 ‘물건이 좋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상하다.’며 타일러 보내게 했다. 1786년에 포도대장 조규진(趙圭鎭)은 경호상의 난점을 들어 관광하는 백성을 금지시키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정조는 이들이 모두 자신의 적자이며 민정(民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⁴⁾

임금이 말했다. ‘경이 망녕된 말을 하였다. 온 산에 담장처럼 서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나의 자식이 아닌가? 와서 깃발을 우러러보는 것을 보면 민정을 알 수 있는데, 금

3) 『正祖實錄』 권8, 正祖 3년 8월 丁巳(6일).

“上曰, ‘今番輦路, 觀光民人之多, 可謂初見. 彼林林葱蔥者, 皆予赤子也. 何以則使無一夫不獲之歎乎? 一有不獲, 是何異於推而納陷溝中也?’”

4) 『正祖實錄』 권21, 正祖 10년 1월 丁卯(22일).

“上曰, ‘卿言妄矣. 遍山如堵者, 孰非吾赤子乎? 來瞻羽旄, 民情可見, 設禁遠逐, 萬萬乖當. 至於駭機二字, 尤豈可語? 到處誠如卿言, 何異於認子爲賊乎?’”

지시커 멀리 쫓아낸다면 사리에 너무 어긋난다. 심지어 놀라운 뒷이란 말을 어찌 할 수 있는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경의 말과 같다면 자식을 적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조는 구경나온 백성들이 통금시간이 임박해 서둘러 성안으로 돌아가느라 혼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금(夜禁)을 늦추기도 했다. 1792년 고양에 행차했을 때와 1794년 과천에 행차했을 때, 정조는 구경나온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 다음에 성문을 닫도록 명령했다. 정조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백성들을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IV. 정조의 민원 해결

정조는 능행길에서 백성들을 만나 민원(民冤)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시행했다. 먼저 정조는 능행을 인도하는 경기감사와 방문지의 지방관에게 현지 사정을 물었고, 행차 전에 현장으로 파견했던 암행어사의 감찰 결과를 들었다. 정조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했으며, 지방관은 사안에 따라 인사 조치를 했다.

1791년 정조는 능행을 떠나기 전날 과천, 금천, 수원, 광주 지역에 암행어사 정동관(鄭東觀)을 파견하여 폐단을 조사하게 했다. 이들 4개 읍은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신작로 개설을 담당했다. 이 때 정조는 수원에 암행어사 조진택(趙鎭宅)을 별도로 파견하여 민정을 살피게 했다. 1779년에는 이천 행궁에서 암행어사의 감찰 보고를 받았다. 그 결과 업적이 좋은 음죽현감 이보첨(李普瞻)에게는 말을 하사했고, 양주목사 엄숙(嚴濤), 여주목사 박사륜(朴師崙), 양근현감 김재화(金載華), 과천현감 이의화(李義和)는 파면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직접 민원을 듣고 처리해 주었다. 1779년 정조는 이천 행궁에서 경기감사와 이천현감에게 백성들을 인솔해 나오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⁵⁾

5) 『正祖實錄』 권8, 正祖 3년 8월 丁巳(6일).

행렬이 먼 길을 움직이느라 숙박하는 날이 많아 여러 읍의 백성들이 노역할 일이 많다. 내 마음에 걱정스러움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이미 저치미(儲置米)를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구제할 방책으로 삼았지만, 이밖에도 고통스럽고 근심스런 단서가 어찌 없겠는가? 나 과인(寡人)은 너희들의 부모라. 밤낮 일념으로 자식 기르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환난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비단이나 보배도 편안하지 않다. (중략) 지금 너희들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은 그 폐막(弊瘼)을 물으려 함이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진달(進達)하라.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1780년에 정조는 행렬 앞에 있던 파주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파주와 고양의 환곡(還穀) 이자와 군역의 부담을 탕감했다. 1792년 포천 축석령에서는 백성들의 건의를 따라 환곡 1년분의 이자를 감면하고, 청 사신의 접대품과 군향(軍餉)을 특별히 면제해 주었다. 정조에게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수혜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백성들을 직접 접촉한 것은 영조 대에도 나타났다. 정조의 대민접촉은 더욱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웠는데, 능행시 행렬 앞에서 앞드려 상언을 올리는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징이나 북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위외격쟁(衛外擊錚)이 많았다.

정조가 능행을 하는 동안 접수된 상언과 격쟁은 총 3,355건이었다. 상언은 3,232건, 격쟁은 123건이었다. 정조는 능행 중에 민원을 접수하고 환궁하는 즉시 처리하여 담당 관서로 내려 보냈다. 수도권 백성들은 부세 수탈, 토지 침탈, 상공업 이익의 침탈 등 민원 사항을 정조에게 직접 알렸고, 이에 대한 국왕의 즉각적인 조치를 받았다.⁶⁾

정조는 주로 환곡이나 군포(軍布) 같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했다. 정조는 능행을 ‘행행(行幸)’이라 하는 것은 행(幸) 즉, 은택(恩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그는 방문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다양한 조치를 했다. 1792년 정조는 양주, 포천의 사민(士民)에게 일곱 가지 조치를 했으며, 그중 다섯 가지가 백성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치였다.⁷⁾

6)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願制度』, 一潮閣, 182~247쪽, 1996.

7) 『正祖實錄』 권 35, 正祖 15년 9월 丁未(11일).



- ① 조관(朝官)으로 70세인 사람과 사서(士庶)로 80세인 사람은 모두 영조의 행차와 지금의 행차를 본 사람이다. 이들에게 자품(資品) 하나를 더해준다.
- ② 100세를 넘긴 사람에게 쌀과 고기를 추가로 지급한다.
- ③ 백성에게 일 년 동안 복호(復戶, 호에 부과되는 요역 면제)를 준다.
- ④ 금년에 향곡(餉穀)과 환곡의 이자를 면제한다.
- ⑤ 토지세는 편한 것을 따르되 쌀을 거두거나 희망에 따라 돈으로 받는다.

정조는 능행 중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개방하고 조장했으며, 상언이나 격쟁을 통해 민원을 수집하고 처리했다. 이는 유교정치의 본령이라 할 여론정치의 수렴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었다. 정조가 어느 곳으로 능행한다는 소문이 나면, 국왕의 성대한 행차를 구경하고 민원도 해결하려는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V. 지방민을 위한 조치

정조는 백성들의 고통을 청취하고 편안히 살게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안민(安民)을 위해 노력하는 정조의 모습을 심상규(沈象奎)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⁸⁾

백성에 관계된 일이면 더욱 부지런히 하여 방백(方伯, 관찰사)이나 수령을 임명해 보낼 때에는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유시(諭示)하기를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고 병폐를 바로잡으라고 했다. 때때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불법을 저지른 자를 들춰내고,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군읍의 관리들을 불러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물었다.

촉우기를 두어 강수량을 측정하고, 장대를 세워 바람을 살피면서 비 한 번 내리고 햇볕 한 번 나는 것에도 관심을 두었다.

정조는 자신의 위민정치가 지방관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지방관들에게 민정을 살피라고 당부하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

8) 『正祖實錄附錄續編』 「遷陵誌文」.

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조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윤음(綸音)의 반포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윤음은 국왕이 관리나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글로서, 국왕의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정조는 윤음을 언해(諺解, 한글로 번역함)하여 백성들이 국왕의 뜻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윤음언해는 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동안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대부분은 흉년이 들었을 때 세금을 감면하고 진휼 물자를 공급하는 등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었다. 정조는 백성들의 고통을 조정에서 직시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백성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한글로 번역한 윤음을 작성했다.

백성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내리거나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안민을 실천하는 방안이었다. 정조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백성들이 교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삼대의 성왕(聖王)들처럼 백성들에게 인륜을 가르쳐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개최한 정조는 국왕과 백성이 함께 효도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양로연을 개최하고, 효행을 실천한 사람들을 표창했다.⁹⁾ 그러나 이런 일과성 행사를 통해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1797년 새해에 「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을 발표했다. 제목에서 보듯이 노인을 봉양하고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정조는 백성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노인이 편안하고 상하가 화합하면 그 기운이 풍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생이 안정되고 상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본 것이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방안으로 『소학』과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익히고,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 향약(鄉約)을 실천하는 것을 제시했다. 정조가 『오륜행실도』와 『향례합편(鄉禮合編)』을 간행하여 전국의 지방관과 향교에 보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륜행실도』는 오륜(五倫)을 실천한 모범적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향례합편』은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의 제도를 정리한 책이었다.

정조는 『소학』 『오륜행실도』 『향례합편』을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이 오륜을 익

9)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225~229쪽, 1998.

히고 상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책을 읽고 백성들을 가르쳐는 사람은 지방관과 유생이었고,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었다.

Ⅵ. 맺음말

정조는 능행을 통해 백성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민정을 살피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정조의 행차하는 곳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고, 자신들의 민원이 즉시 해결되는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정조의 통치방식은 유교의 이상인 민본정치, 여론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정조가 백성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은 유교의 위민정치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정조의 위민정치는 선왕인 영조의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백성들과 접촉하는 범위가 늘어났고 민원을 듣는 방식도 다양화되었다. 정조는 지방의 백성들과는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지만, 암행어사를 통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위민조치를 운음언해로 알렸다. 정조는 안민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륜으로 대표되는 인륜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조의 위민정치에서 백성은 정치의 대상이지 주체는 아니었다.

정조의 위민정책과 화성건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준혁

- I. 정조의 개혁구상과 실천
- II. 화성건설의 추이와 의의

I. 정조의 개혁구상과 실천

1. 更張大誥를 통한 국가 개혁론 전개

조선시대 모든 국왕을 비롯하여 오늘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주창하지 않은 지도자는 없었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이던 과거 회귀적이던 지도자는 이전 시대와 차별을 하고자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국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영조의 정책에 대한 ‘繼志述事’를 천명하며 개혁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일견 보기에는 선대를 계승하는 보수적인 형태의 개혁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조의 개혁은 이전의 정책과 다른 파격을 보여주었다.

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관계에 있는 하층민의 소외정책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는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民國’의 주체인 백성중심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식이 정조에게 있었던 것이고 정조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으로 노론 위주의 기득권층을 압박하여 조선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眞元이 허약해져서 혈액이 막히고 흑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民産、人才、戎政、財用的 4항목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조의 4대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백성과 국가의 존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양란 이후 기득권층의 발호와 폐단으로 나라 전체가 병들어있다고 인식한 정조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백성의 재산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를 개혁하고, 국가 전체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은택을 누린다”는 爲民政治論의 발현으로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이며,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¹⁾

정조는 경장대고를 통해 천명한 4대 개혁과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로서 그치지 않고 재위기간 내내 이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정조는 平等的 人性論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大同社會論을 수용하여 인간존중의 신분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²⁾ 이와 같은 정조의 개혁정책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히 따를 수 없는 파격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주창한 첫 번째 개혁은 民産이었다. 정조는 백성들의 재산을 늘려 부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과 상업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백성의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농업 개혁은 매우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시대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戶曹, 道, 郡에 비치하였다. 양란 이후 토지에 대한 측량인 量田이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아 대토지소유자인 양반 사족들은 세금이 경감되고 오히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일반 백성들의 세금이 과중되

1)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p.293.

2) 김성운, 앞의 책, pp.120~131. 조선후기 대동사회론에 대한 연구는 김성운, 2004, 9. 「조선시대 大同社會論의 수용과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0가 있다. 김성운은 유형원과 홍대용의 대동사회론을 통해 경제치용과 이용후생의 입장에서 실학자들이 대동사회론을 통해 지향한 사회가 무엇이었고,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는 극심한 폐단이 존재했다.

民産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상업정책이다. 정조는 1791년(정조 15) 1월 ‘禁難塵權’을 혁파하고 저자에 있는 백성 모두가 난전을 차려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辛亥通共’을 선포하였다.³⁾

18세기 후반은 청국과의 무역교류가 활발해지고 私商의 기능 강화와 잉여 생산물의 증가로 상업이 활발해졌다. 정조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상업관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정조는 사상의 경제적 실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을 새로운 조세원으로 확보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의 대규모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막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용이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더불어 시전상인들은 노론의 기득권층의 경제적 후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조의 인재 양성 개혁 방안은 규장각 설립이 대표적이다. 규장각의 설립 목적은 왕실도서관과 인재양성이었다.⁴⁾ 물론 산림세력과 문벌세력들을 대신하기 위한 친위세력의 양성 목적이 겉으로 드러난 명분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었지만 공개적 거론을 하지는 않았다. 정조는 당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규장각 초계문신과 검서관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약화된 鄕校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약화된 향교에 대하여 정조는 향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와 같이 공부하는 방식과 재정지원을 복구시켰다.⁵⁾ 향교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도유사의 주관으로 교관을 선발하여 강의하게 하고 기숙사의 시설도 보완하여 학습의 안정을 추진했다. 이로써 향교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서당과 더불어 평민들의 대중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정조의 인재양성 개혁은 규장각을 통해 엘리트를 양성하고, 향교의 공교육 강화를 통해 평민들의 대중적 지식기반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3) 『正祖實錄』 卷32, 15年 1月 庚子

4) 『正祖實錄』 卷2 卽位年 9月 癸巳

5) 『正祖實錄』 卷3 1年 1月 癸巳

정조는 인재양성과 평등정신의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서얼허통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노비추쇄관 효과를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노비제도 자체를 없애는 파격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의 차별은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기본 사회질서였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체제변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의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조는 스스로 봉건체제의 신분질서를 허물고자 하였다.

18세기 사회의 발전을 통해 하층민들의 의식구조가 발달되고 따라서 신분제에 따른 차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역모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정조는 이들의 역모와는 별도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평등론에 입각하여 그들을 구제할 고민을 하였고 일차적으로 서얼의 과거차별 금지와 관직의 활발한 진출을 추진하였다. 규장각의 5대 검서관 중에서 유득공을 제외하고 모두 서얼 출신으로 임용한 것은 인재를 발탁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얼 출신 모두를 국왕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왕권강화화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노비제도의 효과를 추진한 것은 정조가 강조한 “천하의 원통함이 노비보다 더한 인간은 없다”는 노비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 모두를 양인으로 전환시켜 조선 사회에서 더 이상 노비제도를 존속시키지 않고자 하였다.⁶⁾ 다만 이 정책은 정조가 추진하던 중 흥서함으로써 1801년 寺奴婢만 혁파되는 아쉬움이 있다.

정조의 노비제도 효과안은 수많은 노비들을 양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왕을 지지하는 臣民으로 만들어 왕권강화에 일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양인으로서의 의무인 國役을 담당케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조의 4대 개혁에서의 핵심은 군제개혁이었다. 당시 국가 재정의 56%가 군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백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가장 큰 폐단이었다. 정조시대 중앙오군영은 17세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무반 가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주요 무반들은 정치세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군영의 亂立은 필연적으로 양역의 폐단을 가중시켰기에 군영개혁이 군주들의 현안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⁷⁾

6) 『弘齋全書』 卷12, 序引5, 翼靖公奏藁財賦類叙 奴婢引 : 「予嘗以爲天下之冤 莫切於奴婢」

7) 裴祐晟, “正祖의 軍事政策과 『武藝圖譜通志』 편찬의 배경” 『震檀學報』 91, (진단학회, 2001)

정조는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사통수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군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조는 冗兵을 덜어내어 군제를 갖춘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軍費 축소를 통해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⁸⁾

그러나 왕권의 기반이 공고화되지 못했던 그의 치세 전반기에 軍營制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무리였다. 이 때문에 전체 군영의 혁파보다는 守禦廳과 摠戎廳의 합병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⁹⁾ 정조는 일차적으로 강화도를 방어하는 統禦營과 鎭撫營을 합치는 군제개혁을 단행하였다.¹⁰⁾ 이후 지속적인 군비절감을 위한 군영의 통합을 추진하여 마침내 도성에서 수어청을 통제하는 守禦京廳을 혁파하였다.¹¹⁾ 그리고 중앙오군영의 군사들을 대폭 축소하고 장용영을 통한 군사정예화를 추진하였다.

정조는 왕실재정의 개혁도 추진하였다. 왕실 재정을 위한 궁방전의 확대와 백성들의 강제노역은 백성들의 지탄 대상이었다. 따라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이를 위해 궁방전과 왕실재정을 개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궁방전의 부정 면세 결을 혁파하여 궁방전과 연관된 백성들의 고통을 끊었다. 더불어 정조는 국영농장인 둔전이 궁방전으로 빠져 나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 그 토지를 다시 둔전으로 환원하였다.¹²⁾

더불어 정조는 왕실 재정에 대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다. 일차적으로 즉위 후 궁녀의 반을 내보내 왕실재정을 강화하였다.¹³⁾ 그리고 스스로 검약함을 강조하고 왕실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따라 배우기를 권고하였다.¹⁴⁾

이에 더하여 정조는 왕실 재정으로 둔전을 구입하거나 개발하여 토지 없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내수사에서 책정한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고, 농행에 사용된 내수사 비용중 남은 비용을 둔전에 투여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8) 『正祖實錄』 卷5 2年 6月 壬辰

9) 『弘齋全書』 卷28 綸音3 守禦京廳出鎭南漢山城綸音

10) 『正祖實錄』 卷5, 2年 閏6月 辛未

11) 『正祖實錄』 卷43, 19年 8月 丙申

12) 김덕진, “조선후기 관둔전의 경영과 지방재정,” 조선시대사학보 25(조선시대사학회, 2003), pp. 86~88.

13) 당시 아기나인의 궁녀 1인당 월급이 쌀4말이나 되었기에 왕실 유지를 위한 재정 소요는 막대하였다.

14) 『正祖實錄』 卷7 3年(1779) 2月 庚辰

1795년 윤2월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위한 화성행차였다. 정조는 행차의 남은 비용을 民國 즉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였고¹⁵⁾ 총 4만냥이 남아 농민들이 농사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整理穀價錢 2만냥, 제주도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한 耽羅賑資錢 1만냥, 화성에 둔전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華城設屯錢이 1만냥 들어갔다.

2. 사회 의식 개혁 추진

기본적인 4대 개혁과제와 더불어 정조는 사회통합을 인한 백성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호를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정조시대 이전에는 민간에서 수양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되었지만 정조는 유기아나 행걸아의 구제에 있어서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조의 인식속에 제정된 것이 바로 字恤典則이다.¹⁶⁾

자휼전칙은 조정에서 흉년을 당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림으로 이들이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또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양하게 하였다. 이 규정은 총 9개조로 이루어졌으며 구호대상자인 행걸아는 부모나 친척 또는 상전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유기아는 3세 이하의 유아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구호하여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며, 날마다 1인당 정하여진 분량의 쌀과 간장, 미역을 지급하였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하여 젖을 먹이고 유모나 거두어 기른 사람에게도 정하여진 분량의 쌀과 간장, 미역을 지급하며, 어린 아이를 기르고자 원하는 자는 진휼청의 입안을 받아 자녀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정조는 윤음과 함께 조례를 정하여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다.¹⁷⁾

이 자휼전칙의 반포와 시행은 정조의 애민정신을 상징화하는 정책으로 그 어

15) 『園幸乙卯整理儀軌卷』 1, 筵說, 甲寅(1794) 12月 11日

16) 『正祖實錄』 卷16, 7年 11月 壬辰

17) 『正祖實錄』 卷16 7年 11月 壬辰

면 구휼정책보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아동을 국가에서 책임지어야 한다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 현재의 유기아 정책보다 오히려 앞서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이 정책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30세 이상의 남녀를 지방 수령의 책임하에 결혼시키게 하는 법률까지 제정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단행하였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형률에 적용되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조는 비록 죄인이어도 형벌의 남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악형에 의한 백성들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즉위 직후인 1777년 6월에 「形具整正綸音」을 내리고 형구의 규격을 정하고 형구사용 범위를 명시한 「欽恤典則」을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⁸⁾ 이로 인해 1778년(정조 2) 刑具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해 준행하도록 조치한 律書를 반포하였다.¹⁹⁾ 이로써 정조시대 이전까지의 형률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조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도 추진하였다. 조선시대 내내 서북지역은 항상 소외지역이어서 관직에 진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정조는 일찍부터 서북지역의 무사들을 등용하는 것을 신료들에게 하명하였고 특히 장용영을 창설하면서 서북 지역 무사들을 특채하여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²⁰⁾ 이와 함께 정조는 장용영의 哨官을 선발할 때 중인이나 서얼도 참여하게 하여 전례 없는 혜택을 입게 하였다. 이는 무예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무반직에 나갈 수 없는 소외 세력을 끌어들이어 인재양성과 더불어 친위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²¹⁾

정조는 제도적 개혁만이 아닌 思想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朱子性理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 사회에 다양한 사상을 발현하여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정조는 도교·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유교와 함께 이들이 풍속을 교화하고 세상에 도움을 준 공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양명학에 대한 장점을 거론 하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춘저시기 정조는 주자학과 노론학 통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방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노장·양명·불학 등을 통하여

18) 『日省錄』 正祖 元年(1777) 6月 28日.

19) 『正祖實錄』 卷5 2年(1778) 1月 癸酉

20) 『壯勇營故事』 卷7 丁巳(1797) 6月 17日

21) 『正祖實錄』 卷30 14年 4月 庚辰

자유로운 사색적 편력을 거쳤다. 정조는 특히 장자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逍遙遊篇을 높이 평가하며, 장자의 문장이야말로 諸子の 문장 중에서 제일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²²⁾ 또한 왕양명에 대하여도 ‘학술은 비록 다르지만 문장은 명대의 제일인자다’라 평하였다.²³⁾

정조의 이러한 학문 사상의 개방성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조의 학문이 주자학으로만 경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조의 사상적 개방성이 斯文萬能主義²⁴⁾를 배격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

사상의 개혁을 통해 정조는 자주적 인식을 활성화하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대한 사대는 조선의 선비들로 하여금 조선이 아닌 중국을 선호하는 인식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조는 오랫동안의 사대인식을 개혁하는 방법은 바로 역대 국가 창업 군주를 추승하고 이를 통해 국가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바로 단군 치제의 활성화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단군릉의 발견은 영조 재위 시절이었으나 단군에 대한 제사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근본은 단군임을 강조하고 단군릉에 대한 치제를 규정화하고²⁵⁾, 단군, 기자, 신라, 고구려, 고려 시조 왕릉을 수리하는 절차를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사당을 정비하면서 崇烈殿이라는 명칭을 하사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치제하게 하였다.²⁶⁾

단군을 강조함으로써 정조는 외래 사상에 빠져 조선의 학문과 국왕의 정통성을 무시하려는 세력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정치적 효과와 아울러 조선이 중국과도 다르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온 문화민족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던 것이다.

22) 『弘齋全書』 卷162, 90冊 日得錄 文學,

23) 『弘齋全書』 卷161 89冊 日得錄 文學

24) 斯文萬能主義는 春秋大義를 역설하는 내용으로 현실정치에서 노론의 사상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노론의 정치사상은 聖學論으로 이어져서 국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략 되기에 정조는 주자 성리학과 더불어 다른 분야의 학문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철학과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25) 『正祖實錄』 卷7 3年(1779) 1月 戊申

26) 『正祖實錄』 卷43, 19年(1795) 9月 丙寅

II. 화성건설의 추이와 의의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壯勇營外營을 신설하였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축조를 위한 사전 준비였다.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배후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 승격하고 더불어 장용외영을 신설한 것이다.

1789년(정조 13) 현릉원 천봉으로 수원 신읍치를 건설한 후부터 화성 축성의 준비는 시작되었다. 현릉원 천봉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6월에 부사직 姜游가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성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²⁷⁾

강유는 수원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산성과 서로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어떠한 적이라도 감히 쳐들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復戶 5백 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 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새 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 하였다.²⁸⁾

강유의 수원 신읍치 축성론을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에 부사직 申基慶은 수원 신읍치에 축성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²⁹⁾

이와 같은 강유와 신기경의 상소는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조하고 강력한 군병을 설치하여 현릉원과 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국왕 정조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했다. 정조가 장헌세자의 원칙을 수원으로 천봉한 것은 이 지역을 친위지역화하고 본격적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수원 읍치 이전과 商圈扶養策의 추진, 壯勇外營 주둔, 華城築造로 구체화되어 갔다.³⁰⁾

정조는 화성축성에 대하여 “현릉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³¹⁾이

27) 『正祖實錄』 卷30, 14年 6月 己未.

28) 『正祖實錄』 卷30, 14年 6月 己未.

29) 『備邊司謄錄』 178책(冊) 15年 正月 21日.

30) 金成潤, 1997,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241~242쪽.

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국왕 자신을 변란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弑害事件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강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변란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수원 신읍치를 육성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배후도시를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부 장헌세자를 추존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1804년(순조 4) 王位를 물려주고 세자였던 순조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아 子王이 祖父인 莊獻世子를 國王으로 追尊케 하고 자신은 上王이 되어 화성유수부에서 국정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³²⁾ 결국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화성을 축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원이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구상의 핵심거점으로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수원은 三南地方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상의 요지로 평가되었다. 수원 지역은 방비를 튼튼히 하고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삼남의 튼튼한 배후지를 바탕으로 서울 이북의 가상의 적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지역이었다. 둘째, 수원이 교통상의 요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단순한 군사거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下三道의 곡창과 군사를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 되며, 장기적으로 거점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원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었다.³³⁾ 따라서 군사력의 증추를 수원에 집결시키고 왕의 거처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조는 수원에 자신의 친위부대를 반드시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다.

수원도호부를 책임지고 있던 조심태의 건의로 장용영 향군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정조가 추진하는 배후 친위도시의 군사력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안정된 재정과 군사적 기반을 중심으로 정조는 수원지역의 향군을 장용영외영을 확대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확실한 군사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화성유수부에 장용영외영을 설치하고 화성유수로 하여금 壯勇外使를 겸하도록 하는 조치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로 지방의 일개 고을이 국왕의 친

31) 『華城城役儀軌』卷2, 節目, 守城庫節目.

32) 『高宗實錄』卷39, 39年 8月 3日.

33) 金成潤, 앞의 책, 250~253쪽.

위도시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했다.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신설하면서 수원지역이 자신을 비롯한 왕실의 고향과 같이 중요한 곳이며 따라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하며 수원지역의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에 대한 강조는 다른 아닌 자신의 친위군영인 장용영외영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입어서 용이 서리고 범이 응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 억 만년 끝없을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周나라의 豊이나 漢나라의 沛와 같이 응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도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小子의 정리로나 예법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顯隆園을 마련한 뒤로부터 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 종 략 - 남한 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武將이 남한산성에 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곳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³⁴⁾

정조의 특별한 知友를 받게 된 화성유수는 대신이나 무장으로 국왕의 특지를 받아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정5품 판관이 보좌하게 하였다.³⁵⁾ 정조는 신설된 화성유수 및 장용외사의 지위를 강화·개성의 종2품의 유수와 격이 다르게 정경 2품이상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초대 화성유수만은 더욱 특별하게 임명하였다.

정조는 초대 화성유수로 1790년(정조 14)부터 좌의정으로 獨相體制를 유지한 채제공을 임명하였으니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의 신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왕을 제외한 최고의 고위관료를 특교로 화성유수에 임명한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장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화성유수부의 수장이 조정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만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결정하

34) 『正祖實錄』 卷37, 17年 1月 丙午.

35) 『正祖實錄』 卷37, 17年 1月 丙午.

지 못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장용외영이 신설되어 壯勇外使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장용영내영과 외영의 분리는 정조대 군제개편에 있어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중앙오군영 중에서 총융청은 내외영제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군영을 유지하였다. 총융청 역시 처음에는 총융사 및 총융대장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총융청병방이라고 호칭하다가 비로소 외영의 설치 이후 명칭의 변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⁶⁾

정조는 장용외영을 신설하면서 장용영병방을 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공식적 호칭 사용을 정하였다. 이는 남한산성을 방비하는 어영청의 수장인 御營使를 御營大將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都提舉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經理營의 도제조는 삼공이 의례 겸대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대장의 관청을 합해서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내영과 외영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자신이 마련한 경비에서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³⁷⁾

정조는 화성유수부 및 장용외영을 신설하는 주목적이 단순히 현릉원을 호위하는 읍치의 지위를 승격시키는데 있지 않고 이를 통해 군제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고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³⁸⁾

즉, 이와 같은 정조의 하교는 1778년(정조 2) ‘更張大誥’에서 밝힌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군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이를 장용영을 내외영제로 개편하는 것을 근거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앙오군영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방위체제를 개편하여 장용영 내외영으로 도성 및 수도권 일대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화성유수부를 兩京體制로서 정조의 친위도시로 만들어 경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36) 『萬機要覽』軍政編 三 摠戎廳條.

37) 『正祖實錄』卷37, 17年 1月 丙午.

38) 앞의 주.

정조와 대보단: 정조는 개혁군주였나?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계승범

- I. 문제 제기
- II. 정조의 大報壇 친행과 시대인식
- III. 정조의 대보단 관련 정책
- IV. 정조는 개혁군주였나?
- V. 정조는 우리시대의 ‘멘토’인가?

I. 문제 제기

2012년 현재 역사에 관심이 있는 대중을 상대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군왕을 꼽으라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세종(r. 1418~1450)과 정조(r. 1776~1800)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세종, 후기에는 정조라는 도식은 이미 대중뿐 아니라 학계에도 상당히 침투해 있는 실정이다. 세종이야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개척하고, 집현전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후세에 칭송을 들을만한 업적이 적지 않다. 반면에 정조는 兩亂 이후 심각하게 피폐된 왕조를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한글에 버금갈 정도의 문화적 업적을 남긴 바도 없고, 영토를 개척한 일도 없고, 과학기술 진흥에 두드러지게 이바지 한 일도 없다. 세종에 버금갈 업적이라면 규장각을 세워 문헌을 정비하고 학문을 장려한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조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군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조선후기 12명의 군왕 가운데 정조만큼 어떤 원칙에 충실하고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 한 자가, 곧 16세기부터 士林에 의해 형성된 유교적 군왕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현한 군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솔직히 인물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조를 띄우는 연구 동향은 해방 이후 국내 한국사학계의 연구 흐름을 사실상 좌우한 식민사관 극복 운동, 곧 내재적 발전론의 정치사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¹⁾ 이런 추세를 주도한 일부 학자는 심지어 정조를 ‘계몽절대군주’에 비견하기도 하며, 그렇게까지 하는 띄우지 않더라도 정조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발군의 개혁군주로 추켜세우는 분위기가 학계에서조차 대세를 이루는 형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계 일각에서는 이제 ‘正祖學’이라는 말이 들릴 지경이다.

그렇다면 정조는 과연 개혁군주였을까? 이 발표에서는 정조가 재위 기간 내내 매우 (어쩌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강조한 大報壇祭禮 관련 정책을 살핍으로써 정조가 어떤 군주였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대보단은 대개 皇壇이라고 하는데, 明에 대한 春秋義理를 지키고 再造之恩에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명이 망한 지 1주갑이 돌아온 숙종(r. 1674~1720) 때인 1704년에 萬曆帝(r. 1573~1620)에게 제사하기 위해 궁궐의 후원에 세운 제단을 말한다. 이후 영조(r. 1724~1776) 때 대보단을 대폭 강화해 洪武帝(r. 1369~1398)와 崇禎帝(r. 1627~1644)를 더 해 이른바 三皇을 기리는 제단으로 거듭났다. 대보단 제례는 이후 줄곧 진행돼, 1894년에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이 점령당하기 직전까지 시행되었다.²⁾

1749년에 영조가 대보단에 흥무제와 숭정제를 추가로 배향한 이후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삼황의 즉위일 친행을 제외하더라도) 조선의 국왕이 일 년 중에 대보단에 친행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 네 번이었다. 삼황의 기일 세 번에 더해 매년 3월 상순에 길일을 택해 거행하는 春享大祭가 한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이 네 번의 기회 가운데 영조가 한 번 이상 친행을 거행한 해수는 27년 가운데 23번으로 85%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삼황의 기일에 거행한 친행 비율도 도합 80번 찾아온 기일 중에서 46번의 친행(58%)을 거행해 거의 60% 가까이 유

1) 해방 이후 국내 한국사(조선시대) 연구의 이런 추세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20~30쪽 참조. 한편, 조선시대 관련 內發論의 정치사 버전으로는 신흥사대부론, 사림파론, 붕당정치론 등이 있다. 이른바 正祖論도 이런 흐름에 잘 부합한다.

2) 200년에 가까운 대보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에 상세하다.

지함으로써, 대보단 제례는 영조 재위 후반(1749~1776)에 이르러 이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³⁾ 그렇다면 世孫 때부터 영조를 따라 대보단 친행에 참여했던 정조는 대보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18세기 후반, 이른바 ‘정조의 시대’(1776~1800)는 조선후기 역사 전개에 있어서 북학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해, 淸은 이제 더 이상 夷狄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중화가 되었다는 인식이 양반지식인 사이에서 서서히 힘을 받아갈 즈음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사조는 숙종과 영조가 대보단을 설립하고 강화한 애초의 취지와는 여러 면에서 상충하는 것으로, 어떤 면으로는 북학론의 대두로 인해 대보단 제례가 시의성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대 조류에 직면해 정조로서는 대보단과 관련해 무엇인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

정조는 자신이 처한 18세기 후반의 새로운 시대 흐름과 관련해 대보단 정책을 어떻게 조정했을까? 선왕인 영조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을까, 아니면 대보단이 시대의 현실에 더 이상 맞지 않아 시의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까? 또한 계승했는지 축소했는지 그대로 두었던지 상관없이, 정조의 선택은 당시 조선의 역사 흐름 내지는 역사의 진행 방향과 관련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을까? 이 발표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답을 구해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거의 미화 일변도로 소개된 정조의 인물론·군주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3) 영조의 대보단 친행 빈도 및 그 해석에 대해서는 계승범, 「조선 속의 명나라: 大報壇을 통해서 본 조선 지배층의 중화 인식」, 『明清史研究』 35 (명청사학회, 2011) 참조. 영조의 대보단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구와노 에이치(桑野營治), 「조선 小中華 의식의 형성과 전개: 大報壇祭祀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박충석·와타나베 히로시 편,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아연출판부, 2002); 노대환, 「숙종·영조 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韓國文化』 3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이근호, 「영조의 명태조 이해와 皇壇祭祀」, 박한남 외,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조선시대 양반사회와 문화』 2 (집문당, 2003) 등 참조.

II. 정조의 大報壇 친행과 시대인식

정조 때 대보단 제례에는 이전 영조 때에 비해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정조는 영조가 규정한 그대로 삼황의 기일마다 제례를 거행했으며, 삼월 상순 중에 길일을 택해 올리는 춘향대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제례에 더해, 정조는 대보단과 관련된 부속건물을 새로 세워 대보단의 취지를 고양하기도 했으며, 영조의 친행 빈도를 훨씬 웃돌 정도로 친행에 적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보단과 관련된 제반 조치에 있어서도 영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는 정조가 대보단을 향한 영조의 의증과 의도를 심분 이해하고 그 취지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버전으로 대보단 제례를 새롭게 해석하고 보다 강화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런 점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조의 친행 사례를 <표>에 나타내었다.

<표> 정조 연간 대보단 친행 사례

연도	정조 재위	大祭	승정제 3.19	홍무제 5.10	만력제 7.21	비고	
1776	병신	-	-	·	·	3월 10일: 정조 즉위	
1777	정유	1	·	·	·		
1778	무술	2	·	망위	·		
1779	기해	3	친향	망배	·	망위	1월 망위례
1780	경자	4	망배	망배	망배	망배	1월 망위례
1781	신축	5	·	망위	망위	망배	
1782	임인	6	·	망배	망배	망배	
1783	계묘	7	친향	망배	망배	망배	
1784	갑진	8	·	망위	망배	망배	
1785	을사	9	·	망위	망배	망배	
1786	병오	10	망위	망배	·	·	
1787	정미	11	망위	망배	·	망위	
1788	무신	12		망위	·	망위	1월 망위례
1789	기유	13	·	망위	망위	망위	
1790	경술	14	망위	망배	망배	·	
1791	신해	15	·	망배	·	망위	

연도	정조 재위	大祭	송정제 3.19	홍무제 5.10	만력제 7.21	비고	
1792	임자	16	·	망위	망배	망위	
1793	계축	17	·	망위	망위	·	
1794	갑인	18	·	망위	망위	·	
1795	을묘	19	망배	망위	·	망위	
1796	병진	20	친향	망위	망위	망배	
1797	정사	21	·	망위	망배	망배	
1798	무오	22	·	망위	망배	망배	
1799	기미	23	·	·	망배	망위	2월 망위례
1800	경신	24	·	·	망배	-	6월: 정조 사망

* 「皇壇年表」를 저본으로 하되,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도 참고해 작성했다.

* 빈칸(·)은 해당 월일 기사에서 친행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먼저, <표>의 내용을 토대로 정조의 친행 비율을 살펴보면, 한 번 이상 친행한 햇수는 즉위년을 제외한 재위 기간 24년 가운데 23년으로 96%에 달한다. 이는 삼황을 숭후함으로써 대보단을 강화한 이후 영조가 보인 85%보다도 더 높아 거의 100%라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이런 빈도는 정조가 선왕인 영조의 대보단을 향한 의지와 뜻을 단순히 계승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보단 제례에 임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정조는 삼황의 기일에 거행한 망배례 친행에서도 영조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에 모두 24번 찾아온 송정제의 기일 가운데 20번(83%)의 친행을 거행함으로써, 62%의 친행 빈도를 보인 영조보다 앞섰다. 25번 찾아온 홍무제의 기일에는 17번(68%)의 친행을 거행했는데, 이 또한 영조가 행한 56%의 빈도보다 높은 수치였다. 24번 찾아온 만력제의 기일에는 17번(71%)의 친행을 거행함으로써, 역시 52%에 그친 영조의 사례보다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정조는 자신의 재위 기간 중에 찾아온 73번의 삼황 기일 가운데 54번의 친행을 거행하여 74%의 빈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영조가 기록한 5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렇듯 대보단 친행에 적극성을 보인 정조는 그 이유를 명료하게 피력하곤 했다. 한 예로, 1797년(정조21) 5월 홍무제의 기일에 망배례를 거행한 후에 정조가 신료들에게

“병신년(1776년, 정조 즉위년) 이후 억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매년 이날을 맞아 반드시 몸소 의식을 행하는 것은 비단 풍천의 감회가 마음속에 간절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先朝에서 尊周한 성의를 체득해서이다. 또한 선왕의 사업을 계승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날에 당연히 거행해야 할 의식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⁴⁾

라고 한 말을 꼽을 수 있다. 요컨대, 정조는 대보단 제례의 목적을 尊周義理의 체득, 국가의 전통 계승, 후왕들에 대한 경계 등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했던 것이다.

정조는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보단 제례에 임하는 정조의 의도와 취지를 잘 드러낸 발언의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임진전쟁(왜란) 발발 200주년을 맞은 1792년(정조16)에 거행한 한 망배례 후에 정조는

“오늘은 바로 우리 동방이 다시 지음을 받은 날이다. 아! 황제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금년은 꼭 200년째가 된다. 사실이란 오래되면 흐릿해지기 쉽고, 인정은 멀리 있으면 [편안함] 탐내기 쉬우니, 한 부의 大一統의 의리를 어디서 밝히겠는가? 해마다 이날이면 壇門 밖에서 공손히 절하기를 감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비단 조금이나마 風泉(명나라에 대한 감회)의 정성을 떨 뿐 아니라 우리의 家法을 살피 지키고자 함이다.”⁵⁾

라고 전교했다. 즉, 대보단 제례를 꾸준히 거행함으로써, 세월이 가고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존주의리를 가시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1796년(정조20년) 3월 초순의 춘향대제를 앞두고 내린 諭示에서

“생각하건대 이 단을 세운 것은 皇朝를 받들어 보답해 영원히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함인데, 세월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인심이 보통의 일로 여기게 되어 춘추의 尊王하는 의리가 거의 강구해 발할 곳이 없게 되었다. 나는 이에 대해 늘 경계하고 근심하고 있다. 사대하고 교린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더욱 이런 마음을 일으켜 한 줄기의 王春이 이에 힘입어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비록 의식 절차의 말단에 있어서도 또한 그 당시를

4) 『정조실록』 46권 21년 5월 10일 기유. “... 上曰 丙申以後 如非難強之端 則每當此日 必躬自行 禮者 非但風泉之感 益切于中也 體先朝尊周之聖意 亦出於繼述之義 而欲使我子孫 知此日應行之禮也”

5) 『승정원일기』 정조16년 7월 21일 무오. “... 又命書傳教曰 今日卽吾東方再造之日也 於戲 皇恩不可忘 況今年恰閱二百星霜 事實久而易晦 人情遠則易狃 一部大一統之義 於何講明 年年是日 祇拜壇門之外 無敢或曠者 不惟粗伸風泉之誠 竊欲遵守我家法也 ...”

상상하고 느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오늘의 친향은 나의 뜻이 깊다. 경들 또한 모름지기 이런 뜻을 깊이 체득하고 각기 서로 힘써 권면함이 옳을 것이다.”⁶⁾

라고 한다거나,

“... 우리 聖祖께서 대를 이어 은덕을 받들어 깊은 뜻은 천하 만대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춘추의 큰 뜻이 미미해지고 드러나지 아니하여, 寧陵(효종)께서 내정을 닦고 외적을 물리친 큰 뜻과 先正(宋時烈)이 성군을 만나 성대히 한 일을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내가 친히 [대보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퇴락하는 풍속을 경계해 [다시] 일으키는 방도가 되기에 족할 것이다.”⁷⁾

라고 하여, 명이 망한 지 오래 되어 사람들이 춘추의 尊王攘夷 의리를 잊는 것과 그런 풍조로 인한 풍속의 타락을 경계하는 데에도 대보단 제례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말들을 통해 정조가 드러내고 싶었던 의도의 핵심은 춘추의 리에 기초한 조선의 尊明義理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치이자 도리이며, 삼황을 제사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대보단 제례가 바로 그런 도리를 지키고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실제로, 1793년(정조17) 7월에 만력제의 기일을 맞아, 만력제의 陪臣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李舜臣(1545~1598)을 영의정에 추증하면서 정조는 명과 조선의 관계를 춘추의 의리에 빗대어 이르기를

“이 의리는 우주 간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해와 별과 함께 광채를 빛낼 것이다. 어찌 이를 강구해 밝힐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날이 무슨 날이란 말인가!”⁸⁾

라고 한다거나, 3월의 춘향대제 절차 중 새벽에 친히 강신제 의식을 마치고 하교 하면서

6) 『승정원일기』 정조20년 3월 2일 무신. “... 上曰 惟此建壇 崇報皇朝 永有辭於天下後世 而歲月寢遠 人情易狃 春秋尊王之義 幾乎無地講明 予於此 常存警惕 至於事大交隣之際 尤欲提掇此心 使一脈王春 賴以不墜 雖儀文度數之末 亦可謂想像感發之端 今日親享 予意深矣 卿等亦須深體此意 各相勉勵 可也 ...”

7) 『弘齋全書』 권177, 1左右, 『日得錄』 17, 「訓語四」. “... 我聖祖所以繼世崇報之義 可以有辭於天下萬歲 而輒近以來 春秋之大義 微而不章 人幾不知寧陵修攘之大志 先正際遇之盛事 是深慨然 今予親享 亦足爲警起頹俗之道矣” 이 책에서는 『국역 홍재전서』(민족문화추진회, 1998)에 수록된 원문을 참조했다.

8) 『승정원일기』 정조17년 7월 21일 임자. “... 此義此理 長在宇宙間 與日星并葆光輝 烏可不思講明之方 是日何日也”

“우리 동국이 우리 동국일 수 있는 까닭은 두어 척의 제단이 있기 때문이니, 아마 천하 만대에 길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九州가 어두워져 사해에 [오랑캐의] 누린내가 가득하니, 洋洋하신 황제의 혼령이 우리 동방에 오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제물을 올리고 강신제를 지내며 [몸을] 일으키고 구부리는 사이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줄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⁹⁾

라고 함으로써, 대보단의 영원불멸의 존재이유를, 더 나아가 오랑캐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해 華夷가 전도된 새로운 국제상황에서 조선왕조의 존재이유를, 곧 레종데트르를 분명히 천명했다.

특히 대보단과 관련해서 정조가 강조한 춘추대의는 거의 집착 수준에 가까워, 그는 대보단의 취지를 말할 때마다 춘추의 대의를 거듭해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 예로, 재위 3년째인 1779년에 대보단 제례의 격식과 예모를 새로 조정하면서 내린 하교 가운데

“당초 황단을 설치한 제도는 곧 우리 성조께서 처음으로 일으킨 예로써 천하 만세에 길이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아!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혀 사해가 누린내 나는 더러운 곳이 되어, 중국의 의관의 윤리가 모두 금수의 지경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오직 이 동쪽의 한 귀퉁이에서 삼황을 높여 제사 지내고 있으니 춘추대의가 이에 힘입어 끊어지지 않고 실 같이 [남게] 되었다.”¹⁰⁾

라고 하여, 대보단 제례의 의미가 조선이 명나라에 대해 영원토록 지켜야 할 춘추대의의 가치적 실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정조의 이런 의도를 보면, 그는 대보단과 관련해 홍무제를 특히 강조했던 영조와는 다소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는 영조가 한편으로는 존명여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던 당시 시대분위기를 대보단을 통해 적극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분위기를 역이용하여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무제의 합향을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졌던¹¹⁾

9) 『홍재전서』 권177, 8左~9右, 『일득록』 17, 「訓語四」. “吾東所以爲吾東 以其有數尺壇壝也 庶可以永有辭於天下萬世 而九有昏蒙 四海腥羶 洋洋皇靈 不于吾東而將安適歸 薦禩興府之際 自不覺涕沾于襟”

10) 『홍재전서』 권30 教 33左右 「大報壇禮儀增損問議教 己亥」 “... 當初設壇之制 卽我聖祖義起之禮 而可以永有辭於天下萬歲也 噫 夷狄亂夏 四海腥羶 中土衣冠之倫 盡入於禽獸之域 惟此東土一隅 崇祀三皇 春秋大義 賴是而不絕如線 ...”

11)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각주 3의 논문 참조.

것에 비해, 정조는 존주의리를 점차 잊어가는 시대분위기의 타락 자체를 더 고민하면서 그것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들 가운데 하나로 대보단 제례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같은 18세기라고 해도 정조의 시대는 그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시기적으로도 명이 멸망한 지 13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한 세대를 20~30년으로 본다면 이미 5~6세대가 지난 시점이라 존명의리가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기는 어려웠다. 특히 도저히 쇠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淸秩序는 너무나 튼튼해, 오히려 국내에서조차 청이 이미 중화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정조는 이런 시대풍조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식해, 대보단 제례는 형식적으로 흐르고 소위 朱熹(1127~1200)의 八字訓語조차 잊혀져, 군신의 의리마저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¹²⁾

실제로, 정조의 시대는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풍조에 노출되어 있었다. 화이론적 의리론에 기초한 주자학의 권위는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청의 稗官文學體를 따른 새로운 문체가 지식인들 사이에도 나타났으며, 청으로부터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대두하기 시작했고, 서학으로도 불린 천주교가 새로운 종교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사회를 받쳐주는 근간 가운데 하나인 제사제도를 위협하고 있었다. 국내 문제만 놓고 보아도 庶孽許通이나 亂塵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으며, 영조 대에 발생한 술한 정쟁과 탕평정치로 인한 후유증은 정조 대의 정치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안팎에서 대두한 이런 문제들은 국왕인 정조 입장에서는 분명히 심각한 도전이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조선왕조가 추구해 온 가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분위기에 직면해, 정조는 그런 새 사조에 자신과 자신의 왕조를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새 조류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정조 재위 이전이나 이후와 비교할 때 정조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개혁이라 불릴 만한 정책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전통적

12) 『정조실록』 49권 22년 7월 21일 계미. “敎曰 … 欲說皇恩 涕在言先 人情久而狃安 大義日益湮晦 并與朱夫子八箇字訓語 而漠然若相忘 則君君臣臣之所謂天經地義 幾乎熄矣 此尊周錄之所以編輯也 荏苒遷就 汗青無期 令內閣知悉 知委校正諸臣 俾卽專意完篇 …” 주희의 ‘8자훈어’란 “忍痛含怨迫不得已”를 가리키는 것으로, 금의 침입을 받아 도움을 상실한 宋이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 내려온 일을 통탄하며 복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인 질서나 가치의 틀을 유지하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¹³⁾ 대보단에 대해 정조가 보인 각별한 태도와 발언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쉽게 이해된다.

Ⅲ. 정조의 대보단 관련 정책

대보단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인식과 그에 따른 철저한 실천은 비단 대보단 친행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정조는 수많은 관련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의 전범이자 규례가 되어 후왕들에게 계승되었다. 이 소절에서는 그런 조치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대보단과 관련해서 정조는 소소한 것까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이곤 했다. 청 황제의 칙서를 맞은 迎勅禮에 사용하는 闕字牌를 대보단 제례에도 사용하는 것을 알고는, 즉시 명을 내려 대보단을 위한 꺾자패를 별도로 만들어 봉안하도록 함으로써,¹⁴⁾ 제사용품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오랑캐의 것과 혼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런가 하면, 비가 내린다거나 왕의 건강이 안 좋으니 망배례를 취소하자는 신료들의 건의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행한다거나,¹⁵⁾ 망배례를 위한 儀注의 규정 조목을 잘못 해석한 예조판서와 담당 승지를 파직한 일은¹⁶⁾ 대보단을 향한 정조의 각별한 마음을 잘 보여준다.

대보단 제례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친행을 마친 후에 이어지는 후속 행사에도 정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왕과 신료들이 대보단의 취지에 맞는 시를 주고받는 절차를 들 수 있다. 정조가 먼저 시를 지어 내리면, 신료들이 그에 대해 唱和해 시를 지어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왕이 특별히 應製하도록 지목한 부서의 관리로서 즉시 짓지 못하는 자는 다음날

13) 정조가 펼친 정책과 그에 기초한 정조 평가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의 4절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14) 『정조실록』 13권 6년 6월 5일 경오, ‘꺾자패’란 중국의 황제를 향하여 망배례를 행할 때에 모서 놓는 ‘꺾(闕)’자를 새긴 목패를 말한다.

15) 『정조실록』 14권 6년 7월 18일 계축; 18권 8년 7월 21일 갑술.

16) 『정조실록』 27권 13년 3월 6일 계해.

까지는 반드시 지어 올려야 했다. 잠시 후에 제시할 丁若鏞(1762~1836)의 應製詩 가운데 일부가 남을 위해 대신 써 준 것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당시에 대작이 횡횡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지은 시의 주제는 대개 특정 충신을 기린다거나, 명 황제에 대한 감회를 토로한다거나, 중화의 문명을 조선이 간직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응제시도 그에 부응해 지어졌다. 한 예로, 승정제의 기일에 망배례를 행한 뒤에 정조가 병자호란 때 대간으로서 척화를 외쳤던 尹煌(1572~1639)을 기려 특전을 내리면서

세상이 이르기를 팔송의 절개는 푸르고 푸른 고죽과 같다 하네.
삼학사와 마음을 같이 했고, 만언의 상소로 의리 밝혔네.
북해의 이름은 오히려 남았거니와 동창의 계획엔 서투름을 어찌하랴.
백세토록 제사를 받드는 일은 단에 배알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네.¹⁷⁾

라고 지은 시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에 굴하지 않고 의리를 지킨 윤황의 의리와 절개를 높이 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정조는 이와 유사한 풍의 시를 많이 지었다.

그런가 하면, 이렇듯 정조가 먼저 시를 지어 내리면, 대보단 제례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려야 했다. 한 예로, 1796년(정조 20) 3월에 춘향대제를 성대하게 거행한 후에 정조가 지어 내린 시에 대해 賡載해 화답시를 지어 올린 자는 모두 1,038명으로,¹⁸⁾ 그 규모가 상당했다. 이때 정조는 숙종과 영조가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7) 『정조실록』 48권 22년 3월 19일 계미. “世謂八松節 青青孤竹如 同心三學士 明義萬言書 北海名猶在 東窓計奈疎 方禪延百世 肇自拜壇餘” 이 시의 해석은 『정조실록』 국역본을 참고했으며, 註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북해는 漢武帝 때 蘇武가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대로 억류되어 있던 곳으로, 19년 동안이나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고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고사를 가리킨다. 東窓은 북송 때 秦檜가 金과 화의를 은밀히 계획하면서, 금과 전쟁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岳飛를 죽인 고사를 가리킨다. 이 시는 『홍재전서』 권7, 13左에도 실려 있다.

18) 『홍재전서』 권182, 34右, 『群書標記』 4, 賡載軸四十八卷, 「皇壇親享日賡載軸」. “丙辰三月 親行大享于大報壇 … 敬步肅宗英宗兩朝板上韻 賦七言近體一篇 俾諸臣賡之 享官四十三人 皇朝人子孫八十三人 忠良子孫七百九十九人 大臣閣臣侍衛諸臣新舊選抄啓文臣一百十三人 軸既滿 序次之爲二卷”

“황제가 東巡하심을 어렴풋이 보는 듯해라
 사모하는 壇木에만 王春을 붙였네
 산하의 북쪽 끝까지 諸夏가 다 멸망하니
 우리 동방만 희생과 술의 제향을 드리도다
 수십 권 춘추의리는 묵혀진 지 오래인데
 삼천리 동방에서만 예의를 보전하네
 齊明盛服 엄숙히 하고 정화수를 살피어라
 선왕의 萬折必東 그 정성 힘써 준행하련다”¹⁹⁾

라고 하여, 역시 명을 사모·애도하고 춘추의 의리를 되새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시에 대해 화답시를 지어 올린 인원이 무려 천 명이 넘었던 것이다.

대보단 친행을 마친 후 정조가 내린 시제에 부응해 지어 올린 응제시의 한 예로는 정약용이 지은 시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下國에는 홀로 은나라의 일월이 떠 있는데
 중원에서는 누가 한나라의 의관을 보존할까?

[우리] 동쪽 사람들에게는 존왕양이의 춘추필법이 오히려 남아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머리를 싸맬 망건조차 없도다.²⁰⁾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 한 정조의 시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청을 이적시키고 중화의 문명을 간직한 조선의 현실에 자위하는 소중화 의식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음은 분명하며, 정조와 정약용 모두 그런 의식에 깊이 심취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런 의식이 대보단 제례를 마칠 때마다 문무백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정기적으로 재확인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조선사회에서 변발 여부와 복식 스타일이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분명하고도 현실적인 기준으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도 잘 보여준다. 이는 앞에 제시한 정약용의 시뿐만 아니라, 정조 스스로도

19) 『홍재전서』 권7, 2左~3右. “玉輅東巡悅見親 依依壇木寄王春 山河極北淪諸夏 牲醴吾東享肆陳 數十懸經淹日月 三千鯨域葆冠巾 齋衣肅穆監明水 萬折餘誠志事遵” 이 시의 해석은 『국역 홍재전서』 1, 324쪽 참조.

20) 『茶山詩文集』 2 (민족문화추진회, 1994), 331~332쪽. “下國獨懸殷日月 中原誰保漢衣冠” 및 “東人尚有尊王筆 中國今無斂髮巾”

“지금 천하는 모두 左衽을 하고 있으나, 우리 동국에서만은 중화의 풍속과 문장을 가지고 있다.”²¹⁾

라고 말한 데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어쨌든, 대보단 친행에 바로 뒤이어 진행된 이런 후속 절차의 성격 또한 대보단의 취지와 직결됨은 이를 나위도 없다.

친행 후에 행한 주요 후속 조치로는 참여한 신료들이나 유생, 또는 여타 무인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르게 해 합격자를 포상하거나 관리로 임용한 일도 꼽을 수 있다. 문신이나 유생을 상대로는 製述 시험을, 무사들을 상대로는 활쏘기 시험을 베풀었다.²²⁾ 망배례에 참여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술시험의 제목으로는 ‘再造藩邦’처럼 대보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가 늘 선정되었다.²³⁾ 경우에 따라서는 망배례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충신의 후손이나 명나라 유민들을 별도로 불러들여 시험을 베풀기도 했다.²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신이나 명 유민의 후손을 위한 우대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명유민의 자손이나 충신의 자손을 제례에 참여케 하고, 제례를 마친 후에 직접 불러 접견을 한다거나,²⁵⁾ 祠宇 수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거나,²⁶⁾ 관직을 주어 등용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직함만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직을 주어 등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三學士의 자손,²⁷⁾ 李舜臣(1545~1598)과 林慶業(1594~1646)의 자손,²⁸⁾ 金應河(1580~1619)의 자손²⁹⁾ 등을 꼽을 수 있으며, 漢人으로는 李如松(1549~1598)의 자손이³⁰⁾ 조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곤 했다. 이런 후속 조치들은 영조 때에도 일부 시행한 바 있으나,³¹⁾ 그것들이 간헐적인 특별 조치로

21) 『홍재전서』 권177, 1左右, 『일득록』 17, 「訓語四」, “... 今天下皆左衽 惟我東有中華之儀章 ...”

22) 『정조실록』 35권 16년 7월 21일 무오; 40권 18년 5월 10일 병신; 52권 23년 7월 21일 정축.

23) 『정조실록』 47권 21년 7월 21일 무자.

24) 『정조실록』 23권 11년 3월 7일 을해; 44권 20년 5월 10일 갑인; 48권 22년 3월 19일 계미.

25) 『정조실록』 7권 3년 3월 5일 기축; 15권 7년 5월 10일 경자; 17권 8년 5월 10일 갑자; 20권 9년 7월 21일 무진; 26권 12년 7월 19일 기묘; 23권 11년 3월 19일 정해.

26) 『정조실록』 35권 16년 7월 21일 무오.

27) 『정조실록』 23권 11년 3월 19일 정해; 27권 13년 윤5월 10일 을미; 35권 16년 7월 21일 무오.

28) 『정조실록』 35권 16년 7월 25일 임술.

29) 『정조실록』 23권 11년 3월 19일 정해. 김응하는 선천군수로 재임 중이던 1619년(광해군11) 초에 명의 요구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이 조선군에 포함되어 후금 원정에 나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인물이다.

30) 『정조실록』 12권 5년 7월 12일 임자, 13일 계축.

31) 앞서 열거한 사례들 외에도, 친행을 마친 후 儒臣으로 하여금 『명사』를 낭독하게 한 일도(『정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규례처럼 굳어진 데에는 역시 정조의 의지력과 실천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보단 제례의 취지를 한껏 고양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조는 제례 행위뿐만 아니라 편찬사업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드러내고자 했으니, 대보단의 취지이자 존재이유인 존명여리의 가치를 책으로도 정리해 길이 남기고자 했다. 어명으로 이루어진 『尊周彙編』의 편찬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편찬 취지에 대하여 정조는

“어제 황단에 망배하니 풍천의 느낌이 더욱 절절하다. 이제 책 하나를 편찬하여 존주의 뜻을 붙이고자 한다. 맨 첫머리에 열성조의 운음과 어제 시문 중에서 춘추대의를 나타낸 것을 게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충신과 지사의 의리를 천명한 작품으로 疏章이나 시문을 막론하고 아울러 편입하며, 총절로 정표를 입은 자에 이르러서는 祠院의 소재와 사적의 본말을 하나하나 갖추어 실을 것이다. 이 책이 완성되면 거의 천하에 대의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³²⁾

라고 하거나, 또는

“황제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니 말하기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데] 인정은 [세월이] 오래되어 안일함을 탐닉하고, 큰 의리는 날이 갈수록 자취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朱夫子(朱熹)가 훈계한 여덟 글자마저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고 보면,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지의 떳떳한 의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尊周錄을 편집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편집을 담당한 자들이] 시일만 끌고 지체하여 책으로 만들어질 기약이 없으니, 내각으로 하여금 이를 모두 잘 알아서 교정하는 신하들에게 알리고, 즉시 이 일에 전념해 책을 완성하라.”³³⁾

고 명을 내림으로써, 『존주휘편』의 편찬을 재촉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세월이 흘러 헤이해진 존명여리 의식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

조실록』 7권 3년 3월 5일 기축) 영조 때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32) 『승정원일기』 정조20년 3월 20일 병인. “… 上曰 昨日望拜皇壇 益切風泉之感 今欲編摩一書 以寓尊周之意 而首揭列聖朝絲綸 及御製詩文中 表章春秋大義者 次以一時忠臣志士闡明義理之作 無論疏章與詩文 竝爲編入 至於以忠節被旌者 祠院所在及事蹟本末 一一具載 此書若成 庶可以昭大義於天下矣 …”

33) 『승정원일기』 정조22년 7월 21일 계미. “… 欲說皇恩 涕在言先 人情久而狃安 大義日益湮晦 竝與朱夫子八箇字訓語 而漠然若相忘 則君君臣臣之所謂天經地義 幾乎熄矣 此尊周錄之所以編輯也 荏苒遷就 汗青無期 令內閣 知委校正諸臣 俾卽專意完篇 …”

위한 취지였던 것이다.³⁴⁾ 그런가 하면, 정조는 자신이 즉위한 이래 자신이 尊周의 뜻으로 전교한 것과 御製한 것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 간행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또한 춘추의 대의를 밝히려는 의지의 발로였다.³⁵⁾

대보단에 배향된 여러 신하들의 기록을 모은 『皇壇諸臣配享目錄』을³⁶⁾ 왕명으로 편찬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해제에 따르면, 정조 말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에는 대보단에 배향된 여러 인물들의 사적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배향된 이들의 면면은 대체로 호란 중에 충절을 지켜 순국하거나 순절한 사 람들이며, 임진전쟁(왜란) 때 활약한 인물도 몇몇 포함되었다.

수록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忠烈祠享諸臣 金尙容(1561~1637) 등 14명, 顯節祠輟享諸臣 金尙憲(1570~1652) 등 5명, 忠烈祠義烈祠褒忠祠享 金應河(1580~1619), 忠愍祠享諸臣 南以興(1576~1627) 등 16명, 義烈祠忠烈祠膠享 洪命耆(1596~1637), 顯忠祠膠享諸臣 黃一皓 등 6명, 忠節祠享 李士龍(1612~1640), 特教參班諸家 李舜臣(1545~1598)과 林慶業(1594~1646) 등 7家, 殉節諸臣 吳稷 등 43명, 斥和諸臣 尹文舉, 1606~1672) 등 26명, 秉義諸臣 鄭鳳壽(1572~1645)와 申翊聖(1588~1644) 등 18명 순으로 되어 있다.³⁷⁾ 심지어 양 대 전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宋時烈(1607~1689)의 경우에도 그의 명에 대한 충성을 기려, 그 후손들로 하여금 망배례의 반열에 참석하도록 특명을 내리기도 했다.³⁸⁾ 이를 보면, 이 모두가 충절과 의리를 기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그 바

34) 『존주휘편』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鄭玉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 一尊周彙編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69 (일지사, 1992)도 아울러 참조. 단, 정옥자는 정조가 존주의리로 대표되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는 의미에서 편찬했다고 보았으나, ‘마무리’의 의미가 모호하다. 대보단에 대한 정조의 애착을 고려하면, 그것은 구시대의 마무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질서 내지는 그 가치를 계속 연장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35) 『정조실록』 51권 23년 2월 30일 무오. “... 敎曰此日行禮予心感概 尤倍前時 凡係卽昨以後爲尊周事有傳敎 與御製者 閣臣與承旨同爲考出 入梓揭板 表予明春秋之苦心”

36) 『皇壇諸臣配享目錄』 (규장각 청구번호 奎1325).

37) 단, 이 책의 실제 내용은 이들이 모두 대보단에 배향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보단 제사에 참반(參班)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곁표지의 제목과는 달리 속표지의 제목에는 配享諸臣이 아니라 陪享諸臣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제사를 받는 주신(主神)과 함께 제사를 받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후자는 제사에 참여하는 신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인물들의 목록은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보단 제사에 당연히 참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이옥, 『조선 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宗教研究』 42 (한국종교학회, 2006), 158쪽 참조.

탕에 존명의리라는 가치와 함께 청은 오랑캐이자 부모(명)의 원수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취지를 지닌 대보단이었기에 그 제례를 대하는 정조의 태도는 매우 각별했다. 존명의리 가치가 시들해지는 당시 시대 조류를 보고 그것을 큰 위기로 진단한 정조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살핀 다양한 후속 행사 외에도 대보단 제례와 관련된 제반 절차나 형식 등을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간섭하여 나라의 규정으로 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먼저, 제례의 격식에 대해 정조는 3월 초순의 춘향대제와 삼황의 기일 등 모두 네 차례에 달하는 대보단 연례행사 가운데, 삼황의 기일에는 친향을 행하지 않고 망배례를 행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도록 조치했다.³⁹⁾ 이는 그동안 일정한 형식 없이 그때그때 결정되던 친행의 양식을 규범화시킨 조치로, 대보단 제례의 격과 형식을 국왕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기보다는 국가의 전범으로 확실하게 굳힌 의미를 갖는다.⁴⁰⁾

망배례의 장소도 영조 때에는 상황에 따라 崇政殿·明政殿·仁政殿의 月臺를 옮겨가며 거행했는데, 정조는 인조 때 北苑에서 명 황제가 있는 북경을 향해 망배례를 거행한 사례를 전례로 삼아, 삼황의 기일에 행하는 망배례 또한 모두 대보단이 있는 북원까지 직접 행차하여 거행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⁴¹⁾ 친행과 攝行 사이에도 차별을 두어, 섭행 때의 誓戒 의식은 拱北門에서 행하도록 조치했다.⁴²⁾ 이런 조치들 또한 마찬가지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이나 무인들도 모두 망배례에 참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조치는 어느 망배례 때에 비가 내린 탓에 참석자 수가 불과 100여명에 지나지 않자, 정조가 진노해 불참자들에게 내린 처벌 조치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1795년(정조19) 3월 초순의 망배례 날에 비가 내렸고, 그 때문인

38) 『홍재전서』 32권 教31左~32右 「先正宋時烈後孫參皇壇望拜禮教」 및 36권 教18b~19a 「收錄三學士宋文正子孫 訪問曹文忠祠版寄寓處 仍命改建敬奉閣教」.

39) 『정조실록』 5권 2년 3월 19일 기묘.

40) 철종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畝豆錄』에는 삼황의 즉위일에도 망배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월 초에 있는 흥무제의 즉위일에만 이따금씩 지냈을 뿐이고, 규정대로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41) 『정조실록』 7권 3년 2월 17일 임신. “敎曰 … 此後勿論親行攝行 皇壇祭享誓戒肆儀望拜禮 皆行於北苑 著爲式 昔在仁祖朝 行望拜禮於北苑 則尤豈非可徵之一端乎”

42) 『정조실록』 7권 3년 2월 25일 경진. “禮曹判書權導 以皇壇享祀親行及攝行時 誓戒肆儀處所 啓稟 敎曰 親享誓戒及常時望拜禮 行於春塘臺 肆儀及攝行誓戒 行於拱北門”

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마침 그날 참석 인원은 평소 때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이에 정조는 그날 망배례에 참석하지 않은 유생과 무인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정거의 벌을 내렸으며, 관직에 있는 자들은 치죄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무단 불참자를 방지하기 위해, 漢城府 소속 각 집안의 최고 어른들로 하여금 집안 구성원들의 單子를 한성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출석 여부를 점검하도록 조치한 점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이 허용된 경우는 외직에 나가 있거나 증병을 앓고 있음이 증빙될 경우뿐이며, 그 밖의 불참에 대해서는 집안의 어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한 실제로 제례 반열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을 별도로 확보하고, 그것을 매년 3월 초순의 춘향대제 때마다 정기적으로 수정하도록 명했다.⁴³⁾

이렇듯,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보단 제례의 참석을 강조한 것은 마침 그날 참석 인원이 저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존주의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행하는 대보단 제례에 국왕인 정조 자신이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강조하여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다.⁴⁴⁾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조가 행한 대보단 친행 행사에는 상당수의 인원이 참석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대보단 제례를 향한 정조의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조는 대보단의 취지를 더욱 고양하기 위한 부속 건물로 대보단 옆에 敬奉閣을 건립했다. 1769년(영조45)에 영조는 명 황제로부터 받은 조칙들을 비롯해 명과 관련된 국가 소유 물품들을 청 관련 물품들과 뒤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경희궁에 경봉각을, 창경궁에 欽奉閣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승문원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 그 뒤 1799년(정조23)에 정조는 대보단의 왼쪽에 새로 건물을 지어 경봉각을 그곳으로 이전했다. 정조는 새 경봉각의 공사를 직접 지켜보았으며, 선왕들이 명 황제로부터 받은 誥勅을 새 경봉각에 봉안하는 모든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⁴⁵⁾ 또한, 이후로는 대보단 제례

43) 『정조실록』 42권 19년 3월 6일 정사.

44) 『정조실록』 42권 19년 3월 6일 정사. “... 敎曰 晴則多多爭趁 雨則占便不來 至於今番參班而該然甚矣 朝官儒武 不過百餘人云 揆以人情 寧有是乎 若念乃先之心 雨暘何擇 不參班儒武 一併限今秋停舉 朝官拿處 ... 查出各家門長 先從有職者 施以令該府拿勘之典 俾知愾我寤歎於匪風下泉之思 ...”

45) 『敬奉閣形止案』(규장각 청구번호 奎11584). 경봉각의 연혁과 봉안된 물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문식, 「조선후기 敬奉閣에 대하여」, 『書誌學報』 28 (한국서지학회, 2004) 참조.

를 행한 뒤에 경봉각을 奉審하도록 정식 절차로 만들어 규정으로 삼았다.⁴⁶⁾
경봉각을 향한 정조의 마음은

“아침에 열천문 밖에 나가서 의식을 거행하고 아울러 경봉각의 새 터를 살펴보았다. 비록 베껴서 찍어낸 대본이긴 하지만, 황조의 고칙을 황단의 곁에 보관해 둔다면, 구름무늬 책장이 찬란히 빛나 지난날 증화의 성대함을 접하는 것 같을 것이니, 그 주변을 맴돌고 섬돌을 오르내릴 때의 심경이 과연 어떨겠는가!”⁴⁷⁾

라고 한 그의 말속에 잘 녹아있다. 대보단의 섬돌을 오르내릴 때마다 과거 명나라와의 특수한 관계와 그 문화를 회상하고자 대보단 바로 서쪽에 경봉각을 건립하고, 명 황제로부터 받았던 조칙들을 등사하여 그 안에 봉안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보단 강화를 통해 드러난 정조의 의도는 구질서의 강화 및 그 연장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국의 왕으로서 정조는 퇴색해가는 존명 의리 의식을 새롭게 환기시킴으로써 그 이념의 영원한 재생산을 꾀했던 것이다. 18세기에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한 각종 제례는 거의 다 존명 의리와 관련이 있었는데,⁴⁸⁾ 정조의 대보단 정책은 그 두드러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조와 그의 왕조 조선은 현실적으로는 비록 ‘청질서’ 하에서 살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명질서’ 하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주나라 왕실의 쇠퇴를 한탄하면서 과거를, 곧 전설상의 三代를 회상하며 그 과거의 질서를 현실에 재현함으로써 질서와 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공자와 맹자나, 여진족이 주도하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세계에서나마 漢族中華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朱熹의 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만주족이 주도하던 17~18세기 동아시아 질서 하의 조선의 현실은 만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여진족이 주도하던 12세기 남송의 현실과 매우 유사했다. 따라서 남송의 신유학을 신봉한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여진족의 주도하에서 주희가 택했던 타개책을 그대로 계승·답습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⁴⁹⁾ 그렇지만 존명 의리를 고양하기 위한 대보단 제례는 朝報에도 실을

46) 『정조실록』 52권 23년 7월 23일 기묘.

47) 『승정원일기』 정조23년 7월 24일 경진. “朝詣洌泉門外行禮 仍審敬奉閣新址 雖是瞻鏤之本 而皇朝誥勅 藏于皇壇之傍 縫雲青簡 若接昔日皇華之盛 周旋登降 當作何懷 …”

48) 李迎春, 「朝鮮後期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韓國史研究』 118 (한국사연구회, 2002).

49)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鄭杜熙, 『朝鮮細時代 人物의 再發見』, (일조각, 1997), 90~117쪽; Seung B. Kye, "Confucian Perspectives on Egalitarian Thought in Traditional

수 없었으니,⁵⁰⁾ 이는 정조가 심혈을 기울인 대보단 정책이 국내에서만 은밀하게 통할 수 있는, 지극히 대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IV. 정조는 개혁군주였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핀 정조의 대보단 정책은 정조가 추진한 다른 주요 정책들과 어떤 맥락에서 연관성을 가질까? 이런 질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대보단을 대하는 정조의 태도는 지금까지 학계 일각에서 정조를 개혁군주 내지는 심지어 계몽절대군주로 부각해 그려낸 이미지와 크게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혁’이니 ‘계몽’이니 하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합의부터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단 그런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로만 보아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재생산한 산물인 대보단 관련 정책을 개혁이나 계몽이라는 말로 설명할 길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을 설명하는 시대론 가운데 正祖論을 빼놓을 수 없다. 정조론이 단 순히 인물론 차원을 넘어 시대론이 되는 까닭은 그를 ‘유교적 계몽절대군주’로, 즉 한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전진을 꾀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⁵¹⁾ 특히 북학을 근대 지향의 진보적 사상으로 해석하는 경향과 짝을 이루면서 정조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근대지향의 북학론’과 ‘근대지향의 계몽절대군주’라는 해설은 절묘하게 들어맞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용어로서의 ‘계몽절대군주’를 정조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사실, ‘계몽절대군주’는 유럽사에서 등장한 학술전문용어이다. ‘계몽(enlightenment)’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12 (Kore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History, 2008) 참조.

50) 『정조실록』 7권 3년 2월 17일 임신.

51) 대표적인 것으로는 李泰鎭, 「正祖: 儒敎的 계몽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참조. 이 논문은 이태진, 『왕조의 유산: 외규장각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1994), 181~212쪽에도 실렸고, KBS 역사스페셜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이라는 말도 역사서술에서는 그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전문용어이다. 기본적인 개념 정리 없이 그런 말을 지나치게 폭넓게 일반보통명사처럼 사용하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capitalism)나 민족주의(nationalism)라는 용어가 서구 학계에서는 정의가 분명한 전문용어로 쓰이는 데 비해,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보통명사로 다소 모호하게 쓰이는 데에서 오는 오해와 편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사상 조류로서의 계몽주의사상을 살펴보고 나서 계몽절대군주의 뜻을 정리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정조의 정책들을 살핍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유럽의 계몽주의사상에도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했지만, 주지하듯이 계몽사상이라면 대체로 신으로 대표되는 중세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한 르네상스시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성사의 바탕 위에 17~18세기 서유럽에서 꽃을 피운 일단의 사조를 말한다. 로크(John Locke, 1632~1704),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de et de Montesqu, 1689~1755), 루소(Jean Jaques Rousseau, 1712~1778), 볼테르(Voltaire, 1694~1788),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같은 사상가들이 바로 계몽사상을 주도한 인물들이었고, 고대사회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는 자연법·천부인권론·인간평등 등과 같은 인식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나 사회계약론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망라한 것이 바로 그 주요 개념이었다. 즉 기존 전통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하려는 사상적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계몽’과 ‘절대’라는 두 상반적인 성격을 겸비한 ‘계몽절대군주’란 어떤 군주를 말하는가? 역사용어로서 계몽절대군주라면, 상기한 18세기 유럽의 그런 계몽사상을 섭취하고 군주로서 자기 권력을 내세워 일련의 변화를 추진하되, 자국의 현실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히 변용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군주를 일컫는다.⁵²⁾ 그런데 계몽절대군주라는 역사용어는 세계사에서 17~18세기에 동유럽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루이14세나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국왕들로 대표되는 서유럽의 절대군주제가 자본주의의 발달에 이은 시민혁명이나 명예혁명으로 종말을 고한 데 비해, 동유럽의 절대군주제는 비록 계몽주의사상이라는 외피를 입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군

52) 계몽절대주의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 계몽절대군주에 대해서는 Hamish M. Scott, *Enlightened Absolutism: Reform and Reformers in Later Eighteenth-Century Europe*, (London: Macmillan, 1990)을 참조.

주의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계몽절대군주로 꼽히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r. 1740~1786),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Ekaterina II, r. 1762~1796),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Joseph II, r. 1765~1790)와 같은 군주들이 모두 동유럽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볼 수 있다.

서유럽에 비해 산업·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동유럽에서 계몽절대주의를 이끈 이들 군주들은 경제적으로는 대개 중농주의정책을 펼쳤으며, 비록 귀족의 기득권 철폐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조세제도개편·관세철폐·길드 폐지 등 일련의 변화를 꾀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계급과 농민의 지위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를 거시적·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절대주의는 서유럽의 경우라면 중상주의에 기초한 봉건적 절대주의가 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로 진화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동유럽에서는 절대군주제 자체가 19세기에도 줄곧 이어져,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야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계몽절대군주의 정책들에 대해 서양 학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필두로 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이 계몽절대군주를 반동적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계몽절대군주라고 하면 오히려 개혁군주니, 성군이니, 현군이니 하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요컨대, 서유럽에서 발흥한 계몽주의사상의 근간은 기존 권위와 가치체계로부터의 이탈이자 도전이었으며, 그것을 수입해서 십분 이용한 동유럽의 정치적 주체가 바로 계몽절대군주였던 것이다. 전자가 보편적 신에 의한 神政을 부정하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합의된 법에 의한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사상적 흐름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그것을 일부 섭취한 국왕이 스스로 철인 행세를 하면서 국내의 봉건영주들을 누르고, 국왕이 주민들을 직접 편제해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부국강병을 추진한 군주들을 가리킨다. 비록 그들의 행보는 계몽사상의 본연의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이 상기한 일련의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 외부적 요인으로 계몽주의 풍조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같은 시기(18세기) 조선에 대입한다면, 유럽에서 나타난 교회 중심의 중세적 질서로부터의 이탈 현상과 교회의 自國的 세속화 현상은 공

자·맹자·주희로 이어지는 유교 권위의 부정을 상당 부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화이관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가 그 골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식의 봉건영주는 조선이라면 지역적·혈연적 기반이 강한 당파와 그 영수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국왕이 주민들을 직접 편제하고 제도적 변화를 추진한다면, 아마도 중국의 시스템에 기초한 전통적 조세제도·토지제도·군역제도·관리임용제도·신분제도 등의 전반적인 개혁을 말할 것이다. 부국강병이라면, 해외무역 권장, 중농정책, 국가 상비군의 확대, 양반의 병역의무 부활, 상공업 장려, 무기와 전술 개발, 장교(무반) 우대, 군관학교 신설 등 일련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정조의 가치관이나 정책에서 그런 면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조는 주자학적 유교질서의 타파가 아니라 그 회복 내지는 강화를 추진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재위 기간 내내 심혈을 기울인 각종 편찬사업의 목적과 성격⁵³⁾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脫中華 여부 문제만 놓고 보아도, 정조의 조선은 정신적으로는 존명여리와 춘추대로 대표되는 漢族中華에, 정치적으로는 청질서에 강력하게 묶여 있었으며, 그런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⁵⁴⁾ 뿐만 아니라, ‘유교적 계몽절대군주’라는 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유교적’이라는 수식어는 오히려 계몽절대군주와 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사회에서 ‘유교적’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중세적 가치를 지향한 데에 비해, 계몽주의사상 내지는 계몽절대주의는 중세적 가치를 뛰어넘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조의 사상과 시대인식은 『정조실록』·『일성록』·『홍재전서』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분명히 확인했듯이, 그는 자신의 시대를 법과 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이단사설과 퇴폐풍조가 판치는 시대로 규정하고, 늘 그것을 한탄하곤 했다. 여기서 법과 질서라 함은 당연히 조선왕조가 전통적으

53) 이에 대해서는 김문식,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000) 참조. 아울러, 정조가 수많은 서책을 섭렵하고 쓴 서평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群書標記』에 나오는 서책 목록과 각 서책에 대한 정조의 코멘트를 일견하면, 정조의 최대 관심이 주자학적 춘추의리에 기초한 왕조의 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재건하는 것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54) 조선후기의 탈중화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정리한 연구로는 계승범, 「조선후기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 명·청 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19 (한국사학사학회, 2009); 계승범, 「조선의 18세기와 탈중화 문제」, 『歷史學報』 213 (역사학회, 2012) 참조.

로 강조한 유교적 예법과 질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왕으로서 그가 펼칠 정책의 기본 틀이 어떤 의도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한 예로, 서양사의 계몽절대군주정이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데 비해, 정조의 정치는 조선왕조의 건국 당시에 이미 천명된 두 개의 가치, 곧 사대와 유교, 다른 말로 尊周事大와 유교적 질서라는 기존의 가치를 회복하여 더욱 공고히 하는 것과 직결된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정조는 개혁군주이기는 했을까? 정조를 계몽절대군주로 보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개혁군주로 보는 데에는 많이 동의하는 추세이므로, 정조의 인물론과 관련해 이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조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써 정조를 개혁군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우선, “A는 B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의 범위와 그 기준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조는 개혁군주였다”는 명제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개혁군주에 대한 정의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조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개혁군주의 정의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논리적 절차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검증 절차를 밟은 연후에 정조를 개혁군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개혁군주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개혁군주는 간단히 말해 개혁을 추진한 군주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의 일반적·사전적 의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제도나 현상을 개선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역사용어로서 개혁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개선 차원을 넘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방향성을 갖추고 있어야 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관리들의 고질적인 불법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은 개혁일까, 아닐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원칙(법)의 재확립이지, 개혁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며, 당연히 그렇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불법이므로, 그것을 역사적 시

각에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개혁이라는 용어는 특권계층의 기득권을 급격한 혁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서히 포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그것을 이루었다면, 영국은 장기간에 걸친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받은 개혁을 통해, 독일은 위로부터 추진된 개혁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조의 정책들 가운데 역사적 방향성을 지닌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은 辛亥通共(1791) 외에는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⁵⁾

사실, 이 발표문의 주제인 대보단과 관련해 보아도, 정조의 최대 관심은 구질서의 회복이자 고수였다. 그는 청이 현실에서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를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세상이 이미 이적의 천지가 된 지 100년도 더 지난 18세기 후반에 이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명에 대한 의리의식도 시들해지고, 문체도 청의 풍으로 바뀌고, 오히려 청으로부터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대두하고, 천주교가 들어오는 등, 정조가 보기에는 결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조가 정조에게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인이자 동력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비록 관념세계에서나 가능했을지라도 과거 명이 주도하던 중화질서로의 회귀를 꿈꾸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상세히 살폈듯이, 정조가 대보단을 매우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런 시대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바로 그 시대인식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온 산물이었던 것이다.

55) 禁難塵權의 폐지로 대표되는 신해통공조차도 그것은 정조가 어떤 새로운 사상 조류의 영향을 받아 능동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18세기 전반부터 대두한 非市塵 상업세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조정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에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정치 현상의 거의 모든 분야가 그랬듯이, 신해통공 과정에도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정조 대 조정의 상업정책이 갖는 이런 성격과 그 한계를 잘 정리한 연구로는 李旭, 「18세기말 서울 商業界의 변화와 政府의 對策」, 『歷史學報』 142 (역사학회, 1994); 卞光錫, 「18세기 亂塵·都賈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 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 등을 참조. 요컨대, 신해통공 과정에 정조가 섭취한 어떤 새로운 사상철학이 독립변수(x변수)로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V. 정조는 우리시대의 ‘멘토’인가?

정조는 대화와 상식이 통하는 유교적 군주였다. 왕조의 전통이자 국시라 할 수 있는 유교적 군주가 되기 위해 노심초사한 군주였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 대한 비전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시종토록 옛 전통과 권위를 회복하고자 경주했다. 따라서 오늘날 굳이 따지자면 ‘건전보수’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상식을 갖춘 보수(건전보수)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조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이라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조의 정치와 정책을 ‘개혁’이라 부르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역사에서 말하는 진짜 개혁은 백년하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시대 정조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기봉

- I. 정조의 두 얼굴 - 개명군주인가, 반동군주인가
- II. ‘조선의 18세기’ vs ‘18세기의 조선’
- III. 조선의 절대군주로서 만천명월주인옹
- IV. 정조시대 - 근대의 여명인가, 중세의 가을인가

I. 정조의 두 얼굴 - 개명군주인가, 반동군주인가

조선 22대 왕인 정조(1752~1800)는 ‘開明君主’ 또는 ‘계몽절대군주’로 불린다. 규장각을 설치해 문예부흥을 이끌고 서얼을 등용해 신분 차별의 벽을 허물고자 했다. 또 시전 상인의 독점적 상업특권인 금난전권을 철폐하고,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등 구체제의 모순을 철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개혁의 꽃은 수원의 화성 축조였다.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거중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동원해 이 신도시를 조성했다.

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수원의 곳곳에 효심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다. 정조의 애민정신과 민본정치는 수원의 정신이며, 정조가 수원에서 펼치고자 했던 이상의 좌절은 조선 왕조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귀결됐기에 오늘날까지 우리의 꿈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역사 평론가 이덕일은 “정조의 죽음과 동시에 조선은 미래에서 과거로, 개방에서 폐쇄로, 소통에서 단절로, 사랑에

서 증오로 돌아섰다면 그가 5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실패를 아쉬워한다.

開明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혜가 열리고 문명을 누림”이다. 정조는 매우 다혈질이었지만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문명개화를 했던 군주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정조는 개명군주와 반동군주라는 2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는 정확을 통해 밖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서학과 이른바 정통 주자학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단사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그의 믿음이 확고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목적이 옳으면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조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발견된 비밀어찰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정조와 비밀어찰로 읽는 정조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같은 야누스적인 정조의 얼굴을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볼 때 그의 지적과 정치적 이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역사학은 신화를 만드는 학문이 아니라 신화를 깨고, 당대인들의 집단 욕망을 충족하기보다는 욕망의 근원을 밝히는 학문이 되어야한다. 이 같은 역사학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사다. 다시 말해 정조의 개혁이 얼마만큼 개혁적이었으며, 18세기 시대정신에 부응했는지를 조선이라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II. ‘조선의 18세기’ vs ‘18세기의 조선’

‘세계 18세기 학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 18세기 학회’가 있을 정도로 18세기는 역사에서 특별한 시대다. 18세기는 장기 중세의 세계관이 저물고 ‘사물의 질서’의 근대적 성좌가 나타난 시기다. 이 같은 18세기의 특징을 서구는 ‘계몽의 시대’라고 부른다. 서구 역사에서 18세기는 계몽을 역사의 목표로 삼는 근대의 기획이 시작된 시대라는 점에서 특별한 세기다.

18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세계의 허브가 중국에서 서구로 이동했다. 이른바

‘거대한 분기(the great divergence)’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대다.¹⁾ 18세기에 대한 서구와 동아시아의 비교사적인 연구는 왜 이 같은 역사의 역전이 이 시기에 일어났는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구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분기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적 계기가 만들어냈다.²⁾ 카오스 이론이 말하는 ‘초기조건에 민감성’이 만들어낸 나비효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구의 패권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지구사와 트랜스내셔널히스토리의 연구 경향성은 안드레 군데 프랑크의 말대로 “유럽이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유럽을 만들었다”³⁾는 사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명하느냐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서구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18세기는 위대한 백년이다.⁴⁾ 중국에서는 강희제, 건륭제, 옹정제로 이어지면서 청조가 중국대륙을 완전히 지배하고 최고의 전성기에 도달했으며,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바쿠후의 ‘통일국가’ 체제 아래 농업, 상업, 수공업이 가장 번성했다. 조선도 18세기에 숙종, 영조, 정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 아래서 중흥의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8세기에서 서구가 뜨는 해라면, 동아시아는 지는 해로서의 역사적 궤적을 그렸다. 왜 이 같은 문명사적인 쌍곡선이 그려졌을까? 한국사에서도 18세기 정조 시대는 근대로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말해진다. 그런데 왜 그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조 시대 이후 왕조는 쇠망의 길로 추락했을까?

18세기 서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나라가 프랑스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를 만든 이중혁명이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가장 강력했던 루이 14세 절대왕정 시기에 근대로 이행하는 프랑스적 고유한 경로가 결정되고 혁명의 전사(前史)가 만들어졌다. 프랑스사에서 장기 중세가 종말을 고하고 근대로 이행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transition point)을 지날 때가 루이 14세 치세라면, 그에 비견될 수 있는 조선의 왕이 정조다. 두 왕의 죽음과 함께 두 왕조 모두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두 나라 역사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방식은 달랐다. 왜 달랐을까?

정치란 비스마르크가 말했듯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사와 한

1)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2) 잭 골드스톤, 조지형 옮김, 『왜 유럽인가: 세계의 중심이 된 유럽 1500-1850』(서해문집, 2011).

3) 안드레 군데 프랑크, 이희재 옮김, 『리오리엔트』(이산, 2003), 53쪽.

4) 한국 18세기학회 엮음, 『위대한 백년, 18세기-동서문화 비교 살롱 토크』(태학사, 2007).

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는 17세기 루이 14세와 18세기 정조에게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을까? 그들은 자유롭게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구속되어 역사적 가능성들을 실현시켰다. 먼저 17세기 유럽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대 전쟁이라 말하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루이 14세에게 주어진 역사적 조건이다. 종교전쟁에서 시작하여 영토전쟁으로 끝난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조약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확정되어 여러 국민국가로 이뤄진 근대 유럽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의 행운은 유럽의 이 같은 변동기를 태양왕 루이 14세의 지배로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루이 14세는 1643-1715년까지 72년이라는 유례없이 긴 기간 동안 왕좌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함은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던 1661년 이후 반란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계속된 대외전쟁으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고, 1693년과 1709년 사이의 기후 변동이 수확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그의 치세 동안에는 반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치 사회적 안정이 이룩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루이 14세의 탁월한 통치술에서 기인하지만, 종교내전에서 프롱드난까지 한 세기에 걸친 혼란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사회 계층이 평화를 갈망하고 체제를 안정시킬 강력한 왕권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신교 사이의 종교분쟁으로 일어난 계속된 장기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종교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했다. 란케는 30년 전쟁을 겪은 후에는 “중대한 종교적 다툼도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⁵⁾고 썼다. 종교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고 반대로 전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세 동안 수행했던 국가의 감독자로서 교회의 역할은 끝나고, 교회와 교황이 일으킨 분쟁과 혼란을 오히려 국가와 국왕이 해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고 아직은 민중의 탈기독교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대신 종교의 힘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신앙은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30년 전쟁 후반기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 “신교도와 가톨릭교도라는 말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독일인, 프랑스인, 스웨덴인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옹고 그림의 새로운 기준이 정치계에 생겨났다. (...) 어느새 십자가가 국기로 바뀌었고, 발라호라에서 외치던 ‘성모 마리아’라는 함성은 뇌르틀링겐에서 ‘에스파냐 만세’로 바뀌었다.”⁶⁾

5) Leopold von Ranke, *Sämtliche Werke*, XXXVIII, *Die römischen Päpste*, p.376.

이처럼 유럽에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루이 14세는 자신의 존재를 태양왕으로 신격화시킬 수 있었다. 태양왕이란 원래 아폴론 신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국가인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이교도 신의 이름으로 왕의 신성화를 꾀한다는 것은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그리스신화와 기독교 왕권신수설의 ‘선택적 친화성’으로 루이 14세의 태양왕 신화는 만들어졌고, 이 같은 절대왕정국가의 특징을 역사가들은 ‘바로크 국가’라고 이름 붙였다.

“절대주의란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군주의 배타적인 권위에 의존하며 오직 그것에 의해 행사되는 통치방식”이라고 정의할 때,⁶⁾ 그 같은 절대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장 보댕이 정의한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인 주권이 국왕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권신수설에 입각한 군주권은 종교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국왕권이 주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때 왕의 신격화가 일어나서 국왕에 의한 국가의 인격화는 가능해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다는 신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신화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기에 역사를 통해 깨지고야 만다. 근대국가는 ‘왕의 국가’를 ‘국가의 왕’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성립했고, 이 같은 왕과 국가의 분리가 일어나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정치체제가 절대왕정이다. 이 같은 과도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왕조차도 국가의 반역자로 처형하는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근대국가는 탄생했다. 원래 혁명이란 왕이 바뀌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근대에서는 이 같은 혁명이 일어나는 근거가 더 이상 천명이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초월적 기의가 아니라 국가이성이 되었다. 17세기 내전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리바이어던으로 탄생한 국가는 더 이상 신분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계약을 상정하여 만들어지는 국가다. 도덕 정치(moral politics)에서 권력 정치(power politics)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근대국가는 탄생한다. 그런데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권력 중의 최고 절대권력인 주권의 소재가 국왕에게 있느냐 아니면 국민이 가져야 하느냐다.

6) C. V. 웨지우드, 남경태 옮김, 『30년 전쟁 1618~1648』(휴머니스트, 2011), 475쪽.

7)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19쪽.

정조는 미국이 식민지모국인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1776년에 즉위했다.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다”는 찰스 틸리의 말대로 유럽의 근대국가를 형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다. 이에 비해 조선은 정조의 진단대로 “본래 병란이 없기 때문에 전부터 편당의 명분을 만들어 서로 함께 주륙을 해왔다.”⁸⁾는 것이 18세기 조선왕조가 처한 문제 상황이다. 정조는 봉당정치라는 구조를 철폐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짚 목적으로 만천명월주인옹이라는 이름으로 유교의 절대군주가 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조의 경장이 ‘조선의 18세기’를 근대로 진입시키는 ‘18세기의 조선’을 위한 정치 기획이 될 수 있었는가?

‘조선의 18세기’는 일차적으로는 ‘18세기의 동아시아’라는 구조 속에 있었다. 명의 멸망이 확실해진 18세기에는 한족이 대거 청의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만한 융합체제가 성립했다. 따라서 북벌이 더 이상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지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천지원수인 청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청에게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했다. 북학론은 중화사상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변통하는 논리였다. 17-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망한 명 대신에 조선이 ‘소중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존재의미를 재확립하고자 했다. 조선의 지배층들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만동묘와 대보단을 세워서 이미 망해버린 명을 부활시켜서 조선중화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냈다.⁹⁾ 그리고 이 같은 매트릭스에 따라 예치라는 규율권력을 내면화 할 것을 강요했다. 봉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의 이행은 신하와 왕 가운데 누가 매트릭스의 지배자가 될 것이냐를 둘러싼 권력투쟁이었다. 이 권력투쟁에서 정조는 절대권력자가 되고자 했고, 이를 위한 정치적 비전이 만천명월주인옹이다.

8) 13/10/17 乙巳

9) 근대를 향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18세기에서의 조선왕조의 지배 엘리트들의 세계관과 문명관을 대보단 제례를 통해 들여다보는 연구로는 계승변,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Ⅲ. 조선의 절대군주로서 만천명월주인옹

정조는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가 영조의 관이 놓여 있는 빈전(殯殿)에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윤음(綸音)으로 내린 제일성(第一聲)이 “오호라,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말이다.¹⁰⁾ 이 말에는 그의 정체성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정조는 영조 재위 35년 8 세에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3년 후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보아야 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바로 정조를 이미 죽은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후궁인 정빈 이씨의 아들로 영조가 즉위한 해(1725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3년 뒤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영조는 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을까? 정조는 즉위 후 자신의 뿌리를 밝힌 다음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 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다”고 말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세력들이 죄인의 아들인 정조의 왕위계승의 정통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정조는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하면서도 “근본을 둘로 하지 않기 위해서(不貳本)” 효장세자를 법적인 아버지로 받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같은 예(禮)를 엄격히 지켜서 생부를 위한 제사를 태묘(太廟), 곧 종묘에서 지내지 않겠다고 말했다.¹¹⁾ 하지만 생부(生父)에 대한 인정 또한 퍼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향사(饗祀)하는 절차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대부(大夫)의 예법에 따라 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조의 이 같은 발언에는 조선시대 특유의 왕의 두 신체론이 함축돼 있다. 조선시대 왕의 자연적 신체는 죽음과 함께 소멸해도 정치적 신체는 종묘의 신주를 통해 영원히 존재해서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왕의 위상을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논쟁이 17세기 종법(宗法)과 예송(禮訟) 논쟁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왕조는 더 이상 종묘사직을 지킬 수 없는 절대 절명

10) 『정조실록』 1/3/10(신사).

11) 같은 곳.

의 위기에 처했다. 임진왜란에서는 아버지인 왕이 자식인 백성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조선사회를 유지하는 최고의 인륜적 가치인 충과 효가 크게 훼손됐다. 이 위기를 조선왕조는 명나라의 은혜로 제 2 건국을 했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병자호란에서 오랑캐인 청 태종에게 인조가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실시하여 왕 스스로가 천조인 명나라를 배반하는 불충을 저지름으로써 왕조가 존립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했다. 왕조의 생존을 위해서는 주화파의 주장을 수용해야 했지만, 존재 이유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척화파를 충신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척화파는 반역이란 조선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조인 명을 배반하는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상헌은 호란에서 패배하여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다는 맹약을 맺은 후에도 명의 침략을 도울 병사를 보내라는 청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반역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 어떤 사람이 ‘원수를 도와 제 부모를 친 사람이 있다.’고 아뢴다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다스리도록 명하실 것이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을 해명한다 할지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왕법(王法)을 시행하실 것이니,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리입니다.”¹²⁾

17세기 지식인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사회 내적으로는 성리학과 국제적으로는 중화질서 안에서 왕조의 존재이유를 재확립하지 않고는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미 천조인 명을 배반한 조선왕조가 계속 존립해야 할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뇌했던 17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국가 존립의 근거, 사회 재건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사대부 개개인의 삶의 의미 등을 ‘학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를 넘어 실천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¹³⁾ 성리학자로서 그들은 유교의 질서를 구현하는 예(禮)라는 추상적인 이념을 현실에 어떻게 올바르게 구현하느냐의 문제로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조선왕조에서의 정치투쟁을 성리학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형태로 전개하게 만들었으므로, 성리학을 정치적 도그마로 변질시켰다. 당시 지배세력들은 성리학을 중세 유럽의 기독교와 같은 유일사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유일사상 안에서의 논쟁은 정통과 이단 사이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전개

12) 『인조실록』 17/12/26.

13) 이경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푸른역사, 2009), 7쪽.

됨으로써, 권력투쟁의 수단이 된다.

17세기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나라가 망한 원인을 양명학의 흥기에서 찾고 재성리학화를 통해 조선왕조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리학의 예에 의거해서 종법질서를 세움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자 했다. 종법은 원래 중국 주나라의 왕위계승과 분봉 논리에서 나왔지만, 성리학은 이를 가족질서까지 확대했다. 천리(天理)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예법(禮法)이라면, 이에 따라 가족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종법이다. 종법에 따르면 혈연에 기초한 인정보다는 의리나 예법이 더 근본적인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한 것이다. 종법의 적용은 왕통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인조는 천조인 명과 오랑캐인 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했던 광해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 혈연으로 보면 인조는 선조의 손자지만, 의리상으로는 부자관계다. 문제는 인조의 생부인 정원균의 위상이다. 인조는 정원균을 원종(元宗)으로 추송해 선조-원종-인조로 이어지는 새로운 종통을 세우고자 했다. 이는 왕의 생물학적 신체를 기준으로 정치적 신체의 계보를 만들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것은 종법을 위반하는 처사였다. 이에 김장생은 인조가 선조의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의리가 정해졌으니 정원균은 아버지가 아니라 백숙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원균의 추송문제에서는 인조의 뜻이 관철되었다. 하지만 김장생의 종법사상은 아들 김집을 거쳐 조선의 주자로서 송자로 칭송된 송시열에게 이어져 두 차례의 대대적인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예송 논쟁은 왕의 두 신체를 둘러싼 정치논쟁의 결정판이라 말할 수 있다. 1차 예송 논쟁은 효종이 승하했을 때 인조의 왕비이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 복제를 두고 벌어졌다. 송시열은 효종은 차자(次子)이므로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했던 반면, 윤희는 효종은 종통을 계승했기에 장자(長子)로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에 따라 기년설이 채택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송시열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지만, 논쟁의 불씨는 남아서 현종 때 2차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결국 송시열은 효종의 적통을 인정하지 않고 봉당을 일삼았다는 죄목으로 유배에 처해졌다.

종법은 사대부의 가(家)와 왕실의 국(國)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예법이다. 이 같은 종법에 따르면 왕의 정치적 신체는 생물학적 신체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왕실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고 왕과 사대부는 같은 신분인 셈이다. 성리학의 예학에 근거한 종법사상은 기본적으로 신권(臣權)이 왕권(王權)을

제약할 수 논리를 제공했다. 무엇이 성리학적인 예인가 아닌가를 군주가 아닌 유학의 지식을 가진 사대부가 결정하는 정치시스템에서 국왕주권은 성립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는 양란을 통해 피폐해진 민심을 산림(山林)이라 불리는 재야에 숨어있는 선비들을 등용하여 수습하고 추락한 왕권을 재확립하자 했다. 당시 산림은 과거로 등용된 관리보다는 공명정대한 여론인 공론(公論)을 대변하는 지식인으로 여겨졌다. 16세기에 정계에 입문한 사림이 사화로 낙향하여 지방의 서원에서 후진을 양성하여 학맥을 형성하다가 17세기에 산림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이들은 학맥을 토대로 하여 봉당을 이름으로써 국왕을 보좌하거나 견제하는 정치시스템이 생겨났다. 원래 봉당이란 군자가 군자와 더불어 도를 함께하여 봉(朋)을 이루는 것으로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송 논쟁에서처럼 무엇이 종법의 올바른 해석인가를 둘러싸고 봉당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봉당정치는 왕권을 약화하는 구조를 형성했고, 이 같은 구조를 바꿀 목적으로 숙종은 물갈이 식 정권교체를 하는 환국(換局)이라는 비상수단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역모사건이나 왕위 계승 문제를 빌미로 단행하는 환국은 봉당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격화시켰다.

조선왕조에서 정치투쟁은 주로 왕위 계승자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유럽의 왕은 다른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지만 조선의 왕은 사대부의 딸로 혼인한다는 것이 봉당 사이의 권력투쟁의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사극의 주된 소재가 되듯이,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궁중에서 벌이는 암투의 배후에는 외척들과 그를 중심으로 한 파당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체험한 왕이 영조였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1724년) 봉당정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蕩平策)을 펼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미 존재하는 봉당을 당장 없앨 수 없는 현실에서 그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완론탕평(緩論蕩平)을 실시했다. 봉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일반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할 목적으로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고 궁 밖에 자주 나가 직접 민의를 청취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 양쪽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외척으로 포섭하여 기존의 당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당파적 탕평정치를 지향했지만, ‘탕평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당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의 모순은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탕

평당’은 영조의 당 하나이어야 하는 데,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아버지(父黨) 당과 자식당(子黨)”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자기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탕평당’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¹⁴⁾

아버지의 비극을 목격했던 정조는 당파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무당파가 아닌 초당파적 탕평정치를 추구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란 편액을 걸고, 능력에 관계없이 붕당의 인물들을 고르게 등용한 영조와는 다르게 명확한 의리를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에 부합하는 세력을 중용했다. 이는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탕평책이라는 뜻으로 준론탕평(峻論蕩平)이라 불렸다. 그는 “서로 다투던 사람들을 화동시키고 대립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켜 포용함으로써”, “은 세상을 황극(皇極)의 자리에 모으고 황극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영도”¹⁵⁾하는 정치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왕의 존재를 북극성에 비유했다. 그는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돌아가는 것처럼”¹⁶⁾ 국왕 중심으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고자 했다.

정조의 이 같은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을 이루는 것이 사도세자 문제다.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伸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정치 개혁은 아버지의 묘소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갑자년 이후 그의 상왕정치의 본거지가 될 화성 건설로 정점을 이뤘다. 즉위하자마자 정조는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도세자 문제를 왕권 강화의 발판으로 삼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조처를 단행했다. 사도세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최대 장애요인은 충과 효 사이의 딜레마였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 데, 그러면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선왕과의 약속을 어기는 불충을 범해야 한다. 정조는 이 같은 딜레마를 국왕의 두 신체론으로 극복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는 국왕이라는 정치적 신체와 사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자연적 신체를 나눔으로써 충과 효 사이의 가치충돌을 해소했다.

정조는 충과 효 사이의 모순을 지양할 수 있는 조처를 유교의 일반적인 통치행위인 경도(經道)를 초월하여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는 국왕의 권한으로 정당화했다. 도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경도(經道)와 상황에 맞게 임시변통으로 취해

14) 영조실록, 38/05/06.

15) 정조실록, 7/10/21.

16) 정조실록, 7/6/16.

야할 권도(權道)가 있는 데, 정조는 자연적 신체만을 가진 일반사람과는 다르게 종묘사직이라는 정치적 신체를 가진 국왕은 경도를 뛰어넘는 고도의 재량권, 곧 권도라는 초법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⁷⁾

정조는 사도세자의 문제 뿐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역모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종친을 보호할 목적으로도 권도를 사용했다. 정조 재위 기간 동안 이복동생인 은전군과 은언군이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 신하들은 이 둘의 처단할 것을 주장했다. 국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 둘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지만 정조는 종친들을 사면해줌으로써 왕에게는 경도를 초월할 수 있는 권도가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로 표현되는 절대왕권을 정조는 권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다. 그는 이 같은 권도를 하루아침에 관철시킬 수 없었고, 결국 신하들의 강력한 성토로 은전군이 자진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비해 규장각이나 장용영을 설치하여 강력한 왕권을 정착시켰던 집권 중반기에 발생한 은언군 역모사건은 자신의 의지대로 은언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은 후, 그를 다시 도성으로 불러들일 갖가지 방도를 모색했다. 정조가 신하들과 정순왕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모색을 끊임없이 했던 이유는 권도를 국왕이 행사할 수 있는 정상 권력으로 만들어서 절대왕권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빚발치자, 그는 상소나 차자를 통해 그 문제 자체를 거론하는 것을 막는 금령(禁令)을 발표했다. 정조의 잦은 금령 설치에 대해 우의정 이병모는 “조정이란 전하의 조정이 아니라 조종(祖宗)의 조정이요, 조종의 조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신령한 영혼들(聖神)에게 내려 준 것으로, 영원한 역사의 터전”이라고 주장했다.¹⁸⁾ 이 같은 문제제기에는 국가란 신하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신체를 가진 국왕이 소유할 수 없는 종묘사직이라는 정치적 신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노론의 신하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하와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군신공치주의(君臣公治主義)’를 정조에게 환기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정치 문제의 근원이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붕당에 있다고 보는 정조는 건국 이래의 조선왕조의 통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장을 단행했다. 이 같은 경장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그는 유학의 성왕군주론에서 찾았

17) 정조의 정치현실 인식과 권도론에 대해서는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37-71쪽.

18) 『정조실록』 18/5/25 신해.

다. 유학은 원래 요순시대라 불리는 삼대의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 요순시대에는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이 군주가 됨으로써 성왕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요가 순에게, 순이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전통이 단절되고 세습군주 체제로 바뀌면서, 이 같은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정치형태가 가장 훌륭한 현자를 등용하여 그에게 정치를 맡기는 재상 정치다. 정도전은 재상 정치에 입각해서 조선왕조를 설계하려다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왕권과 신권은 서로 갈등을 빚다가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난 계기는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반정이다. 중종이 낸 책문에 대한 대책에서 조광조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하늘과 계절에 비유했다. 그는 하늘이 혼자 돌기만 하고 계절이 바뀌지 않아서 만물이 자랄 수 없듯이, 군주는 대신에게 정권을 믿고 맡겨야 정치의 법도가 설 수 있다는 사림정치의 비전을 제시했다.¹⁹⁾ 훈구파의 반발로 조광조는 실각했지만 사림정치는 16세기 이후 조선왕조를 통치하는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왕조는 17세기 양난 이후 발생한 왕조의 정통성 위기와 정신적 충격을 사림정치의 큰 틀 안에서 재야의 덕망 있는 선비를 등용하는 산림정치로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산림이 붕당을 형성하면서 당쟁은 격화되고, 왕권은 약화됐다. 붕당정치가 구체제의 모순으로 나타난 18세기에 새로운 정치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었다. 이번에도 유학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역성혁명으로 왕조교체를 이룩한 조선왕조에서 왕권은 천명사상에 입각해서 정당화 됐다. 조선시대 천명사상은 중세 유럽의 왕권신수설처럼 기능했다. 유럽의 왕권신수설은 동아시아의 천명사상처럼 한편으로는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 정치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왕에게는 신민에게 선정을 베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양날의 칼로 작동했다. 조선왕조에서 천명사상도 반정의 명분으로 활용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고 신권을 강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천명사상에 근거하여 재야의 산림은 공자 이래의 도통을 이어 왕을 보좌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산림이 정계의 주류를 형성하여 붕당을 이루어 공론의 대변자가 될 때 송시열은 세도(世道)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세기에는 이 같은 이상과는 반대로 붕당이 공론이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는 당파로 변질됐다. 이 같은 붕당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대

19) 중종의 책문과 조광조의 대책에 대해서는 정두희, 『조광조: 실천적 지식인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카넷, 2001, 327-337쪽.

안을 찾는 것이 정조의 화두였다. 그는 중국 고대의 성왕정치를 모범으로 삼아 봉당정치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했다.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에게 “성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성대한 정치를 해달라는 뜻과 정사는 현명한 신하에게 맡기고 유학공부나 전념하라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있었다.²⁰⁾ 하지만 정조는 왕 스스로가 학문에 정진해서 도통하여 만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백성들이 왕과 한마음을 이루도록 세상을 교화하면 대동사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같은 정치철학을 갖고 봉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과 직접 상대하는 ‘민국(民國)’ 정치를 꿈꾸었다. 그는 ‘민국’ 정치의 이상을 담아 자신의 호를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고 지었다.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도통한 군주로서 그는 자신을 모든 개천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존재로 비유했다. “만천명월주인옹은 말하노라. [...] (나는) 물과 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태극·음양·오행의 이치를 깨달았다. 달은 하나며 물은 수만이지만, 물로써 물을 담으니 앞에 흘러가는 물에도 달이요 뒤에 흘러오는 물에도 달이다. 달의 수와 개천의 수가 같으니 개천의 수가 만 개라면 달의 수도 만 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이 본래 하나기 때문이다.”²¹⁾

정조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달과 개천, 그리고 왕과 신하를 달과 구름에 비유했다. 만천명월주인옹에서 구름의 존재의미는 없다. 구름이란 단지 하늘의 달빛을 가릴 뿐이므로, 결국은 천하의 모든 인재는 모두 왕의 운용에 종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조는 사대부의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모두가 왕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태극·음양·오행의 원리를 깨달은 후 모든 사람은 그 생김새에 따라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이용하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결국 하나의 달이 개천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은 사물은 하나의 이치인 이(理)를 지니고 있으나 개개의 사물·현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희의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조는 국왕의 존재를 초월적인 기의로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루이 14세처럼 국가라는 정치적 신체를 인격화했다.

국왕 스스로가 하늘의 도를 표상하는 존재가 되어 국가의 정치적 신체를 전유하여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재정립하려는 정조의 의도는 이미 원자(후의 순조)를

20) 박현모, 『정치가 정조』, 7쪽.

21) 정조, 『홍제전서』 권10, 만천명월주인옹서인

세자로 책봉할 때 문묘보다는 종묘에 먼저 알현시키려 했을 때 드러났다.²²⁾ 정조는 “종묘알현보다 공자배알을 먼저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늘을 높인 뒤에 할아버지를 높이고, 할아버지를 높인 뒤에 공자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조의 ‘종묘알현 우선론’은 노론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종묘와 문묘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의 논쟁은 결국 왕조의 정통성이 왕실과 성리학 이념 가운데 어디에 우선적으로 근거하느냐의 문제였다.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이란 호는 종묘와 문묘가 상징하는 두 초월적 기의를 모두 자신의 인격체 안에 담아내는 기호다.

유교적 절대군주를 표방했던 정조는 얼마 전 발견된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어찰들이 증명하듯이 공론정치를 초월하여 신하들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밀실정치를 했다. 노론의 심환지든 남인의 체제공이든 정조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개천들일뿐이므로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정조는 낮에는 도학군주로 행사하고 밤에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여우같은 군주가 되어 비밀어찰을 보내서 신하들을 권력의 쇠사슬로 엮어댔다.

조선의 성왕정치 이상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이 같은 실패의 징조는 이미 그의 생전에 나타났다. 만천명월주인옹이란 현실정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1789년에 정조는 화성 신도시 건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격에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정조는 1800년 갑자년 구상이라는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다. 4년 뒤에 왕위를 세자에게 이양하고 상왕이 되어 화성으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정조는 정말로 완전한 정계은퇴를 생각했을까?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비밀 어찰로 했던 막후정치를 한양을 떠나 자신이 건설한 화성을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본거지로 삼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갑자년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데 정조가 더 오래 살아서 갑자년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면 조선왕조는 어떻게 됐고, 이후 한국 근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조 사후 19세기를 지배한 것은 세도정치다. 이 같은 세도정치를 주도한 핵심 세력은 장인인 김조순을 필두로 정조의 후광을 받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그러므

22) 20/3/12 무오(戊午)

로 유봉학은 “19세기 세도정치기의 역사는 정조 시대와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²³⁾ 세도정치란 탕평정치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조 말년에 드러났듯이 탕평정치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구조라는 것이다. 요컨대 세도정치란 “탕평정치를 움직여 간 경화거족(京華巨族)들의 수평적 연대와, 그들 문벌 내부의 주공(主公)-겸인(僉人) 간 수직적 관계가 고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⁴⁾

과거는 신도 못 바꾸는 결정된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조시대로 대표되는 18세기 조선이 근대를 향한 내재적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가능성들이 있었는가? 그 가능성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명군주로 일컬어지는 정조의 신화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이 같은 신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 그가 단행한 문체반정을 거울로 해서 그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IV. 정조시대 - 근대의 여명인가, 중세의 가을인가

정조는 문장을 도를 담은 그릇으로 보는 도문일치(道文一致)를 주장했다. 그에게 학문의 목적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이치에 우리의 인식이 도달해 궁극적인 앎에 이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다. 하지만 격물치지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은 문학적 상상력을 억압해야 한다. 그는 성리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문학을 규율권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억압의 구조를 해체하려면 문학적 상상력을 경학의 이념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탈성리학화가 일어나야 한다. 조선의 탈성리학화가 서구 근대의 탈주술화에 해당하는 셈이다.

실제로 18세기의 조선에서도 성리학이라는 매트릭스에서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반체제 지식인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과거 답안지에 소품문체를 썼다고 유배를 당한 이옥이다. 이옥은 나한상을 다음과 같이

23)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17-18쪽.

24) 위의 책, 25쪽.

묘사했다.

“눈이 같으면 코가 다르고, 코가 같으면 입이 다르고, 입이 같으면 얼굴빛이 다르고, 모두 같으면 키와 체구가 다르고, 키와 체구가 같으면 자세가 다르다. 나한들은 혹은 서고 혹은 앉고, 혹은 숙이고 혹은 옆의 것에 붙고, 혹은 왼쪽을 돌아보고 혹은 오른쪽을 돌아보고, 혹은 남과 이야기하고, 혹은 글을 보고 혹은 글을 쓰고, 혹은 귀를 기울이고, 혹은 칼을 지고, 혹은 어깨를 기대고, 혹은 머리를 떨어뜨리어 근심하는 듯하고, 혹은 생각하는 듯하고, 혹은 아녀자와 같고, 혹은 무사 같고, 혹은 병자 같고, 혹은 어린애 같고, 혹은 늙은이 같다. 천 명이 모인 모임이요, 일만 명이 모인 시장 같다.”²⁵⁾

정조가 보기에 이옥의 문장은 사물에 집착하여 뜻을 잃는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전형이다. 자신을 천개의 개천을 비추는 달로 자처했던 정조는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의 이념만을 백성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이옥은 나한상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개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했다. 정조는 관념적인 도(道)로 사물의 구체적인 개성을 제거하는 문장을 요구했던 데 반해, 이옥은 사물들의 차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글쓰기를 했다. 결국 정조와 이옥의 갈등은 전통과 근대의 세계관 충돌, 곧 도(道)라는 거대담론으로 현실을 규정하는 전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근대 사이의 문화투쟁이다. 이옥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사상을 담는 새로운 문체를 추구했다. 이옥은 학식을 과시하거나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글은 죽은 글로 보았다. 그는 자신이 바라본 세상을 표현하는 살아 있는 글을 쓰고자 했다. 정조는 이 같은 소품을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반체제사상으로 탄압했다.

위로부터의 역사로 보면 정조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다. 하지만 거대한 수목을 지탱하는 것은 리즘(rhizome), 곧 땅 속의 잔뿌리들이다.²⁶⁾ 최근 정조 시대 왕조를 지탱하는 등뼈처럼 통일적인 수목적 줄기들이 아니라, 18세기 조선의 잔뿌리들의 다양한 역사를 발굴하려는 저작들이 미시사와 픽션으로 등장했다.²⁷⁾ 미시사와 픽션은 정조 시대에 분출한 조선증화의 매트릭스를 해체하고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사회적 상상력에 주목한다.

정조는 자기 시대를 위기로 인식했지만, 문양해, 강이천, 이옥 등의 반체제 불

25) 이옥, 심경호 옮김,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시오』(태학사, 2001), 쪽.

26) 들뢰즈,

27) 백승중,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한국의 예언문화사』, 2006, 푸른역사;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설흔,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창비, 2011.

온한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사회적 상상력의 차이가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낳았다.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정조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중세의 가을’이었다. 정조는 계몽군주가 결코 아니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밝아오고야 말 근대의 새벽을 막으려 했던 보수반동 군주였다.

정조의 성공은 근대적 맹아를 가진 신지식인들의 실패이며, 조선의 근대를 향해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다. 고종에까지 이어지는 세도정치는 정조의 에피고넨(Epigonen)의 시대였다. 정조의 에피고넨들의 무능은 조선왕조의 몰락과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정조 시대에 잃어버린 ‘지나간 미래’는 무엇이었는가? 정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 정조는 우리 시대의 멘토가 될 수 있으며, 그의 시대에 ‘지나간 미래’를 우리의 현재로 만들 수 있다.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 3. 연구위원 약간 명
- 4. 편집위원 약간 명
- 5. 상임연구원
- 6.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2.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3. 연구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문화원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5.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6.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위촉)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20조(권한 및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3. 회지 논문 및 간행물 투고에 관한 규정 작성.

제21조(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2월 29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7월 3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2월 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1〉 제목, 목차, 필자 명

1. 게재 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2〉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3〉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 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증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3.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事多稽滯 仍罷之"(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 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5〉 주의사항

1. 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 첨부

① 맺음말 뒤에 국·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②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③ 주제어는 국·영문 각 5개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초록 뒤에 첨부한다.

2.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연구위원장 :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편집위원장 : 정수자 (시인)

편집간사 : 김민서 (수원문화원 학예연구사)

水原學研究 第九號

인 쇄 _ 2012년 12월 18일

발 행 _ 2012년 12월 20일

발행인 _ 염상덕

발행처 _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TEL. 031-244-2161~3

제 작 _ 한언기획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